佛事 전념 20年
불교미술전시관
시설물에의 모든 것
책임 상담해 드립니다
☎ 02)733-4800

현대불교

'98 자양강장제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원비-디®

회장: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논설고문:고은/편집국장:최정희/인쇄인:김규석/등록번호:다-3379/㉾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737-8881/편집국:722-4162 FAX:737-0698/광고국:732-1522/구독신청: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3년(서기 1999년) 11월 3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제 244 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불서 안읽는 풍토

지난달 26일 김청정화 보살(45)은 불교전문서점인 여시아문에서 법문집과 쉽게 쓰여졌다는 경전류 10권을 샀다. 김보살은 두 달에 한번쯤은 서점에 나와 이처럼 책을 구입한다. 그리고 이 책들을 주위의 도반들에게 나누어 준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눠준 책을 거의 읽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한다.

한국인들이 책을 안 읽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중에서도 불자들이 더욱 책을 멀리 하고 있어 뜻있는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 2월 민족사 윤창화 사장이 한국출판연구소가 발간하는 〈출판연구〉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94~97년 4년간 종교부분 전체 신간 중 기독교 85.1%에 비해 불교는 12.4%였다. 또 97년 한국갤럽조사에서 불자들의 독서량은 1년에 평균 0.8권, 기독교인은 15권, 천주교인은 4권이었다.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불자 독서량 1년에 0.8권
스님들이 모범보여야

팔만대장경을 자랑하는 불자들이 왜 이렇게 책을 안 읽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책 읽는 풍토가 조성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불자들은 스님 법문만 들으면 그만이고 기도는 매일 하더라도 불서를 매일 읽겠다는 생각에는 인색하다. 대부분의 스님들 역시 신도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권하지도 않는다. 많은 신도들이 드나드는 사찰에 번듯한 도서관 하나 없는 곳이 허다하다. 또 상당수의 불서들은 딱딱하고 어려워 독자들의 흥미를 끌기 어렵다. 읽기 어려운 책이 손에 잡힐리 없고, 서로가 책을 읽지 않으니 스스로가 뒤떨어진다는 의식도 없다.

21세기는 '문화전쟁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한다. 책을 읽지 않고는 문화전쟁 시대를 대비하기는 커녕, 불교 고유의 공부하는 전통마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책읽기도 습관이다. 스님들은 좋은 책을 스스로 읽어보고 자꾸 신도들에게 권해야 하며 불자들은 시간을 정해 책읽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출판계도 관심을 끌수 있는 좋은 책 내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알림 교계뉴스 매일 속보제공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폐교가 절로 변했다

나주에 '성덕사' 개원…어린이·청소년 수련도량으로

호남지역 최초로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전문 수련도량 '성덕사'가 개원됐다.

광주불교어린이지도자회 회장 무등스님은 전남 나주시 봉황면 덕곡리에 위치한 폐교 봉황서초등학교 덕곡분교를 인수, 1년여의 수리를 거쳐 10월 22일 삼존불 점안및 수련원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어린이·청소년포교에 들어갔다.

성덕사는 특히 초등학교를 인수해 도량을 개설하므로써 학교라는 어린이들에게 친근한 환경을 그대로 유지해 어린이들이 부담없이 드나들수 있게 하고, 체육시설이 마련된 운동장 등에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행사를 결칠 수 있어 '폐교이용'이라는 새로운 포교 전범을 보여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대지 1천5백평에 교실건물 1동, 관사, 부속건물등이 있는 덕곡분교를 지난해 7월 인수하여 법당과 수련원으로 개조한 성덕사는 교육관 2실과 법당 1실, 식당, 목욕및 세면시설, 방사 4개, 체육시설이 마련된 운동장을 갖추고 있다. 성덕사는 앞으로 '친근한 불교전하기'를 모토로 주말 수련회와 더불어 여름·겨울방학에 집중적으로 어린이·청소년 수련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성덕사 주지 무등스님은 "외아들 외딸로 자라 자기중심적인 요즘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부모은중경에 근거한 효경(孝敬)사상을 바탕에 두고 신세대 문화와 전통불교문화를 접목한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어린이·청소년들이 자연과 함께하며 동체대비사상을 배우고, 불교문화와 예절교육을 통해 씩씩하면서도 예절바른 불자로서 정진시키겠다는 것.

무등스님은 어린이 지도자의 역할도 중요한 만큼 지도자교육을 한달에 2회 개최하여 능력있는 지도자 양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0613)331~0805.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폐교가 새싹 전법도량으로 거듭났다. 사진은 호남유일의 어린이 청소년 도량으로 새롭게 문을 연 성덕사의 개원식 모습.

전사법등 불교관련법 정기국회서 통과요청

조계종, 불자의원 초청간담

조계종총무원장 권한대행 원택스님과 중앙종회 의장 법등, 부의장 청화스님은 10월 29일 3당 불자회장단을 서울 63빌딩으로 초청, 전통사찰보존법과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등의 국회통과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3당 불자의원들은 이번 정기국회내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 스님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 "국가형벌권의 민간이양인 만큼 장단점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준비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조계종의 입장을 전달했다. 또 "농림부에서 전통사찰의 농지취득을 가능토록 농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놓고 취득조건을 까다롭게 적용해 농지취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전통사찰의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재개정을 요구했다.

정성운 기자

정화회의 항소 각하 서울고법

총무원 "직무대행 부존재 법원서 입증"
정화회의 "대법에 상고하겠다"

정화회의측 정영스님이 낸 총무원장 부존재확인소송 항소심이 각하됐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안성회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원고 정화회의측의 항소에 대해 "전부승소한 원고가 예외적으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총무원은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총무원장직 부존재확인 1심 판결의 결정을 재차 확인시켜주는 것이며, 황도견 직무대행의 권한이 존재하지 않음을 법원이 입증한 것"이라며 "정화측의 항소가 계류중이기 때문에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아니 하였고 따라서 직무대행자는 그 권한이 유효하다는 그동안의 주장이 허구였음이 밝혀진 것"이라고 밝혔다.

정화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도견 총무원장 직무대행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원고의 항소를 서울고법에서 각하했다 하더라도 대법원의 상고절차가 남아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스님은 총무원장직 부존재확인 소송 1심에서 전부 승소했으나,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이 항소를 포기해 법원이 선임한 총무원장 직무대행의 효력발생을 무효화하자 지난 7일 항소를 제기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불교TV이사회 "허사장 퇴진결의"

직무대행에 이수덕 전무

노조의 과업과 사측의 직장폐쇄 등 노사 갈등의 위기에 놓인 불교TV가 이사회를 열고 허문도사장의 해임을 의결했다. 불교TV이사회는 10월27일 타워호텔에서 이사회를 개최, 허문도사장의 퇴진을 의결하고 이수덕전무를 대표이사 직무권한대행에 선임, 오는 18일 주주총회에서 인준키로 했다. 〈관련기사 3면〉

한편 허문도사장은 "나의 퇴진을 비롯한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정족수 미달과 의장인 본인이 정회를 선포한 후에 결정된 사항이다"며 "상법상 위배되는 만큼 무효이며, 결의무효 확인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28일 과업을 풀었으며 같은날 오후5시를 기해 이수덕 권한대행은 직장폐쇄를 철회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종단협 대북 의류지원키로

조불련서 지원요청

종단협의회(회장권한대행 인곡)는 10월 27일 4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북한에 겨울옷 보내기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종단협은 조선불교도연맹으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종단협은 대북 월동품 지원의 시기 및 규모 전달방법은 민족화합 불교추진위원회(상임집행위원장 명진)와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종단협은 대북지원기금으로 조성된 2억3천만원 중에서 일부를 의류지원에 사용키로 했으며, 각 종단별 지원은 종단에 일임키로 하되 전달창구는 종단협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조불련은 지난 22일 심상진 서기장 명의로 조계종 태고종 진각종 관음종 총무원장과 불교추진위 앞으로 서한을 보내 월동용품 지원을 요청했다. 조불련은 또 "서로 명분있게 만나 허심탄회하게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긍정적인 회신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해 남북불교인의 만남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종단협은 또 이날 이사회에서 신입회원종단 가입 심사위원단을 5개 회장종단과 4개 이사종단 대표 등 9인 이내로 구성키로 하고 15일 이후 가입신청 공고를 내기로 했다. 이에 앞서 종단협 이사회는 한중일 불교우호교류위원회 경도회의와 불교사회복지총람 발간에 따른 보고를 들었다.

정성운 기자



◇영호스님 ◇동산스님 ◇금오스님 ◇효봉스님 ◇묵담스님 ◇탄허스님 ◇자운스님 ◇월산스님

20세기 고승메달 2차분 출시

20세기를 마감하면서 근세 100년 한국사회와 불교계를 이끌어온 고승 16인이 기념메달로 우리 곁에 다시 왔습니다. 한국조폐공사가 제작, 품질을 보증하는 고승기념메달은 동(銅)에 금도금을 입힌 국내 최대의 크기(지름 8cm)로 사찰 가정 사무실 등에서 늘 가까이 두고 친견할 수 있습니다. 고승기념메달은 20세기 한국불교 근대사의 정리일 뿐만 아니라, 큰스님들의 삶과 사상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불교계에 자성과 함께 희망과 용기를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1차 8분 제작에 이어 이번에 2차 8분을 제작 완료하고 일반에 보급하고 있사오니, 많이 소장하시고 가족과 이웃에게 권하시기 바랍니다.

◇ 소장 스님:
1차: 만공 용성 만해 한암 경봉 청담 고암 성철
2차: 영호 동산 금오 효봉 묵담 탄허 자운 월산
◇ 보급: 낱개 각 5만원·8분 1세트 40만원(500개 한정)
◇ 구입문의: 현대불교신문 (02)737-8881, 722-4162
◇ 온행계좌: 국민은행 006-01-0783-279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농협 053-01-236053(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종도대중과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사부대중과 국민여러분!

1600년, 면면한 역사를 머금은 한국불교의 장자종단 조계종이 지난해 분규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한번 정돈되지 못한 모습을 세상에 내보이게 된 것은 실히 당혹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그 경위와 과정이 어찌 되었든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모습 속에서 불교도로써 깊은 自愧感을 겪었을 사부대중에게 조계종단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小納은 懺悔로써 그 體를 표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한국불교를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들에도 깊은 심려와 우려를 안겨 드린 점에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불교의 自主權과 法統수호를 위하여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사부대중 여러분!

이제 우리종단은 사태초기의 혼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점차적으로 안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숭가쁘게 진행되던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 사부대중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힘과 지혜는 우리 조계종단의 법통과 자주성이 일부의 非法한 무리들이나, 외부의 사법적 농단에도 한 점 흔들릴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로는 종정예하, 그리고 원로회의 大德 큰스님들의 慧命을 받들어 각 교구본사, 중앙종회, 집행부가 중심이 된 "법통수호 대책위원회", 그리고 "범불교 연대회의"를 중심으로한 재가대중은 우리의 자주성과 법통을 심각하게 유린한 금번 사태의 본질을 직시하고, 이에 愛宗의 一心으로 단합하여 사태에 지혜롭게 대응함으로써 불교의 자주역량을 내외에 과시하였습니다. 금번의 사태를 겪으면서 보여준 사부대중의 힘과 지혜는 어떠한 외부적 힘이나, 내부적인 충격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법통과 자주성을 護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소납은 불교의 자주권과 법통을 수호하기 위한 사부대중의 단합된 오늘의 노력은 불교중흥의 값진 자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사부대중이 보여온 힘과 지혜, 단합과 단결은 금번의 사법사태를 正法에 근거하여 올바르게 마무리하고, 이번을 계기로 우리 불교에 대한 보다 깊은 自覺과 省察의 계기로 승화한다면 조계종단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커다란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소위 말하는 "법적 절차의 欠缺"을 아무런 동요나 혼란이 없이 여법하게 마무리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자주역량을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예기치 않게 찾아든 혼란과 어려움이었지만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여 한층 새롭고, 성숙된 모습으로 사부대중과 국민여러분들께 다가갈 수 있으리라 확신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여러분!

필생을 수행과 교학연구, 그리고 대중교화를 위해 정진하는 동안 본인은 한량없는 부처님의 加被를 입어 왔습니다. 부처님으로부터 입은 한량없는 加被에 보답하기 위하여 총무원장이라는 소임을 맡게 된지 9개월, 예기치 않게 찾아온 이번의 사태는 본인에게 깊은 충격과 당혹감을 안겨준 것이 사실입니다. 어찌 본인의 不德함을 뒤돌아 보지 않을 수 있으며, 실로 본인의 願力과 德化가 미치지 못하였음을 嘆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마땅히 산중으로 돌아가 懺悔하고, 또 懺悔하는 것이 수행자의 도리라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기에 처한 종단의 자주성과 법통을 수호하려는 사부대중의 원력과 합성이 하늘에 달하는 것을 보고 소납의 이러한 짧은 생각을 瞥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땅히 종단의 자주성과 법통을 공고히 하려는 사부대중의 결의와 원력이 함께하는 한 소납은 종단의 자존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한다는 것을 새롭게 다짐하였습니다. 더불어 소납에게 어떠한 역경이나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오늘 보여준 사부대중의 결의를 부처님의 言命으로 알고 熱과 誠을 다하여 새로운 미래를 여는 和合과 共議에 의한 종단중흥의 밑거름이 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번의 계기가 우리종단이 처하고 있는 懈怠와 安逸, 貪心과 無秩序에 대한 부처님의 무서운 瞥責일 수 있음을 인식하여 放逸하지 않고 종단의 尊嚴과 權威를 지켜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을 사부대중앞에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과 국민여러분!

옛 선인이 이르기를 "울타리 너머에 뿔이 보이는 것은 그 곳에 소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한국불교도 그 드러난 현상의 이면을 성찰해보면 수많은 시대적 아픔과 역경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때는 이러한 한국불교의 모습이 분규와 분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세인의 질시와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아픔과 역경을 넘어 부처님의 正法을 護持하는 如法한 종단건설과 사회대중을 이익되게 하는 종단건설의 노력을 하루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역경과 어려움을 넘어 열린종단 건설과 光明의 부처님 세상을 열어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 동안 거듭되어온 일련의 사태를 안타깝게 지켜보았을 사부대중과 국민여러분! 우리 조계종단은 이번의 혼란을 계기로 또다시 도약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보여드릴 것입니다. 사부대중과 국민여러분의 따뜻한 눈길과 깊은 애정을 기원하며, 부처님의 加被가 사부대중과 국민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發願합니다.

1999. 10. 29.

소납 고 산 합장

사 설

불교TV 왜 이러는가

불교TV가 허문도사장 강제퇴임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엊그제 열린 이사회가 허사장의 강제해임을 결의하자 허사장은 강력반발하면서 법적인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맞서고 있다. 노조는 몇 달째 파업을 했고 회사는 직장폐쇄라는 초강수로 대응하더니 이번에는 이사회와 사장이 대립을 하다니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회사살리기에 총력을 모아도 부족한 형편에 이런 상황이 연출된다면 불교TV의 장래는 비관적일 수 밖에 없다.

물론 노조나 이에 대응하는 허사장, 그리고 이사회는 각기 나름대로 할 말이 있을 것이다. 노조는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로 몇 달을 기다려 왔는데 회사가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불만일 것이다. 또 허사장은 취임이후 부채상환 연기 등 외곽 다스리기를 끝내고 나름대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퇴임요구가 나오는 것이 섭섭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사회도 할 말이 있을 것이다. 사장으로 선임해 주었으면 일을 잘 해야지 대내외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야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 이사회의 입장이다.

그러나 아무리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회사가 파국을 맞든 말든 자기이익이나 입장만 관철하면 된다는 식은 그동안 불교TV를 걱정하고 후원해온 불자에 대한 배신행위다. 불교TV가 어떻게 세워진 회사인가. 영상문화시대를 맞아 영상포교를 하겠다고 해서 전 불자들이 성금을 모아 설립한 회사다. 불교TV가 개국하자 불자들은 우리도 이제 첨단영상매체를 소유하게 됐다고 기뻐하며 자부심을 갖던 그런 회사다. 그런데 몇 년이 못가 재정적자로 허덕인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불자들의 상심과 걱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이런 관심과 성원속에 있는 불교TV라면 사장과 임직원, 이사회가 모두 나서서 일치단결된 모습으로 재생의 의지를 보여주었어야 했다. 불교TV가 단순히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가 아니라 포교를 위한 매체라면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불교TV가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럽게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어느 순간부터 내부분열이 일어나더니 이제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그렇게 하다가 정말 회사가 문을 닫는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려고 하는가.

오늘의 불교TV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오직 '돈'이다. 우선 당장 급한 운영자금 30여억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들리는 말로는 노조는 노조대로, 허사장은 허사장대로 후원자를 물색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허심탄회하게 이 문제를 놓고 속내를 드러내고 상의를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런 다음, 어떻게 하는 것이 회사를 위해 최선의 선택이 될것인 지를 가려 물러나던지 양보하던지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승적 자세가 아니면 다툼은 끝나지 않는다.

지난 5년동안 축적된 불교TV의 영상물은 한국불교의 소중한 자료들이다. 불교TV는 위성방송과 인터넷시대를 맞는 현대사회에서의 포교매체로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기에 불교TV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회사가 아니다. 새로운 시대 영상포교를 위해 반드시 회생시키지않으면 안 될 회사다. 만약 이러한 비장한 사명감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모두 회사를 떠나는 것이 옳다. 이것이 불교TV를 걱정하는 모든 불자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말기 바란다.

고산·지선스님 출마 공식표명

조계종 총무원장선거…정대·법장스님도 출마 가능성

前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과 前 백양사 주지 지선스님이 15일 실시되는 30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고산스님은 10월29일 총무원1층 불교회관에서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종도 대중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우리 조계종단은 이번의 혼란을 계기로 또다시 도약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드릴 것"이라며 "사부대중과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눈길과 깊은 애정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고산스님


◇지선스님


◇정대스님


◇법장스님

고산스님은 또 "본인의 원력과 덕화가 미치지 못했음을 개탄하며 산중으로 돌아가 참회하는 것이 수행자의 도리라 생각했으나, 위기에 처한 종단의 자주성과 법통을 수호하려는 사부대중의 원력과 합성이 하늘에 달하는 것을 보고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것을 새롭게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문이 출마의 뜻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부대중의 뜻에 따라서 할 생각이다. 법통수호를 위해 위법망구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총무원장 권한대행 원택스님과 사서실장 성조스님이 배석했으며, 3원 부장스님과 종회의원 영담, 종정예경실장 대오, 해인사 주지 보광스님이 회견을 지켜보았다.

지선스님은 29일 "종도들과 국민들은 불교의 새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욕구가 크다. 중진 스님들도 참신하고 유능한 젊은 후보가 나와야 한다는 여론"이라며 출마의 뜻을 밝혔다. 지선스님은 "미국에 며칠간 다녀온 후 지지자들과 협의해 공식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지선스님은 또 "누구든지 나와서 종단 미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자신의 소신을 밝혀야 한다"며 단일후보 추대 움직임에 대해 반대의 뜻을 비쳤다.

전 종회의장 정대스님은 본인의 고사에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출마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의 출마가능성도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거론되고 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10월29일 선본사 갓바위 기도도량에서 총무원 및 정화회의 측간의 유혈충돌이 발생하자 경찰이 병력 4개 중대를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 신도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갓바위서 유혈충돌

선본사·해남사 정화측 일시점거

정화회의측이 총무원 직영사찰인 팔공산 선본사를 기습 접수하고 총무원이 재접수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유혈 충돌 사태가 발생한 데 이어 울산 해남사도 정화회의측이 일시 점거하는 등 종단분규가 주요사찰로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측과 정화개혁회의측이 경산 선본사를 둘러싸고 10월26일 이후 4일째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화회의측이 10월29일 오전 선본사 갓바위(약사여래불) 기도처를 접수하는 과정에 유혈충돌 사태가 빚어졌다. 이날 양측의 충돌로 스님과 신도 등 10여명이 부상, 대구 파티마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29일 현재 선본사는 총무원측이, 갓바위 기도처는 정화회의측이 각각 점거하고 있다.

경찰은 양측이 소유한 각목이나 쇠파이프 40여개를 회수하고 병력 4개 중대를 배치해 폭력사태를 막는 한편 만일의 사태에 대비, 일반 신도와 관광객들의 갓바위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다. 경찰은 또 폭력사태에 가담한 양측 스님과 신도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갓바위는 입시철을 맞아 기도객들로 붐볐으나 경찰이 기도처로 진입하자 참배자들이 급격히 줄었다. 대구에서 온 한 불자는 "신성한 기도처에 경찰들이 왜 배치되느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경산=이윤호 기자

남-북 종교대표단 요르단서 만날듯

25일 WCRP 7차총회

세계종교인평화회의(WCRP) 제7차 총회가 '공공의 삶을 위한 활동-다음 천년의 종교의 역할'을 주제로 25일부터 29일까지 요르단 암만에서 열린다.

이번 총회는 다음 천년의 공동적인 삶을 위한 도전에 나서기 위한 종교간 대화를 통해 인간 발달과 안전에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특히 북한 조선종교인협의회 장재언 위원장 등 북한측 대표단 4명이 참석해 남한 대표단과 비공식 모임을 가질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총회에는 한국불교계 대표로 인곡 태고종 총무원장 스님 등이 참석한다.

김재경 기자

"종교협력은 적대주의 배척서"

로마 범종교회의 폐막

로마교황청이 세계각국의 종교 대표 등 2백여명을 초청해 '세계평화를 위한 종교간 대화와 협력'을 주제로 열린 범종교회의가 10월28일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됐다. 달라이라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등 세계 각지의 종교 대표 20명, 성직자 및 신도대표 2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 각 종교 대표들은 폐막성명에서 "종교간의 협력은 폭력을 초래하는 광신주의, 극단주의, 적대주의를 배척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

"재심청구자에 최대한 관용"

월서 심사위원장 밝혀…심사청구 계속 접수

징계자 특별법 특별심사위원장 월서스님은 10월29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특별심사위 개회에 즈음해 기자회견을 갖고 재심사 청구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하겠다고 밝혔다.

월서스님은 "종단 화합이라는 대전제와 종도들의 여망을 수용해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의 관용을 준비하고 있다"며 "심사청구 마감기일 이후에도 심사청구서를 접수하면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는 의미에서 접수받고 있다"고 말했다.

월서스님은 또 "정화회의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스님 가운데 많은 분들도 결단을 내려주셨다"며 "종단 안정과 화합을 바라는 종도들의 여망에 호응해온 여러 스님들의 결단을 존중하며 응당한 결과로 화답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호계원에 따르면 이날까지 재심사를 청구한 스님은 40여명이며, 이날까지 재심을 청구한 스님들의 징계는 심사가 시작됐으므로 유예됐다.

정성운 기자

구산선문 참선 기행

11월 : 성주산문(성주사지)·무량사·장곡사

11월에는 무염국사(801~888)에 의해 개창된 성주산문의 중심도량으로 현재는 오층석탑과 세 기의 삼층석탑 등만이 외로이 남아 번성했던 옛 대가람의 면모를 대변해주고 있는 성주사지를 찾아갑니다.

인근에 있는 무량사에서는 매월당 김시습(1435~1493)의 영정을 모셔놓은 산신각과 경내 한가운데 듬직하게 앉아 있는 2층 전각인 극락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상대웅전과 하대웅전 등 2개의 대웅전이 있는 장곡사도 참배합니다.

◇출 발 : 11월 7일(일) 오전 7시, 조계사 앞
◇회 비 : 3만5천원(중식 제공)
◇접 수 처 :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
◇입금계좌 :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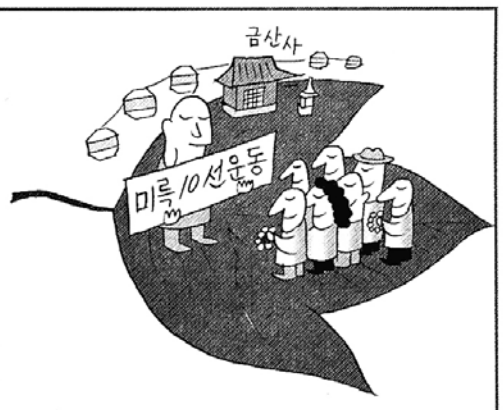
☞구산선문 관련자료 부디피아(www.buddhapia.com)에서 보세요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
협찬 : 일양약품·대한불교제과인회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가을단풍처럼 온누리에

불광 창립 25주년 및 월간 불광 300호 발행기념 대법회

1974년 11월 마하반야바라밀 전법의 횃불을 높이 든 채 감히 우리의 역사와 생활 속에 부처님의 위광(威光)을 전달하는 사명을 자담하고 나선 불광! 현대 한국불교사에 있어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 현대화의 새로운 이정표요, 모범으로써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해온 불광이 창립 25주년을 맞이하면서 창조적인 생활인을 위한 교양지 월간 불광이 300호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동안 음으로 양으로 베풀어주신 사부대중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며, 4반세기 포교불사를 점검하고 새 천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진의 자리매김을 위한 기념 대법회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국내 유수의 불자 음악인들이 출연해 펼치게 될 축하 한마당, 울림이 있는 이 자리에 부디 왕림하시어 기쁨을 함께 나누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무마하반야바라밀!

불광사·불광법회 법주 지정 합장

제1부 · 대법회

제2부 · 축하공연

출연진 : 불광마하보디합창단, 도신 스님, 정율 스님, 박범훈과 중앙국악관현악단, 안숙선, 김영임, 최진숙, 이애주, 아카펠라그룹 인공위성, 김덕수 사물놀이패

일 시 : 불기 2543년 11월 14일(일) 13:00 - 17:00
장 소 : 잠실학생체육관
주 최 : 불광사·불광법회·월간 불광
후 원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금정산 범어사, 재단법인 대각회,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재단법인 보덕학회, 불교방송, 불교텔레비젼, 불교신문, 법보신문, 현대불교, 주간불교, 대한불교, 시대불교

불광 창립 25주년 및 월간 불광 300호 발행 기념사업

· 불광 홈페이지(http://www.bulkwang.org) 서비스 시작
· 월간 불광 내용 목록집(창간호-300호) 발간
· 월간 불광 300호(10월호) 및 창간 25주년 기념호(11월호) 발행
· 월간 불광 창간 25주년 기념 별책부록(신행수기 공모 입선작 및 전국의 수행처 안내) 발간

자세한 문의: 불광사·불광법회 02) 413-6060, 월간 불광 02) 420-3200 불광 홈페이지: http://www.bulkwang.org

'사태' 일단락…선거국면 돌입

서울고법 항소각하 이후 조계종

정화회의 세약화…화합수순 밟아야
문중 경쟁보다 종책우선 선거예상
분규근절 참회·자정운동 움직임도

정화회의측이 낸 총무원장직 부존재확인 항소를 서울고법이 각하한 이후 조계종사태가 빠르게 수습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번 판결로 정화회의의 힘이 약화돼 총무원장선거가 관심의 중심으로 떠오를 것이며, 이에 따라 이번 사태는 새로 뽑히는 총무원장을 중심으로 수습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고법판결 영향

고법 판결로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총무원장 직무대행 효력 논란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법원에 상고해 재판 계류중이므로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이에 따라 직무대행은 유효하다"는 정화회의의 주장은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판부가 "전부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가 예외적으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각하 판결을 내렸으므로, 상고심에서도 정화회의의 승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법조인들의 전망이다.

이번 사태 중재 움직임도 정화회의가 선본사와 해남사를 일시 점거하는 등 사태의 여파를 전국의 사찰로 확산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또 정화회의가 대화를 제의하며 10개항을 제시했으나, 곧바로 선본사를 접수하면서 설득력을 잃었다는 평이다.

●총무원장 선거

법원에 의해 총무원장직 무효판결을 받은 고산스님과 전 백양사 주지 지선스님이 29일 출마를 선언하고 나서 본격적인 선거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일부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이번 조계종사태를 비롯한 고질적인 분규의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치유책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사면, 재가불자의 종단 및 사찰 운영 참여 등이 쟁점이 된다는 것이다. 총무원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의 역할과 권한 조정 등 전반적인 권력구조의 변화를 두고 여러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이번 선거의 특징은 문중간의 경쟁보다는 큰 내홍을 겪은 뒤여서 종단의 안정과 화합, 21세기를 여는 불교의 비전을 제시하는 종책 경쟁이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종회의원 81명(현재는 78명)과 24개 교구선거인단 240명이 뽑는 것이지만, 종책 경쟁을 바라는 불자들의 여론이 투표에 일정정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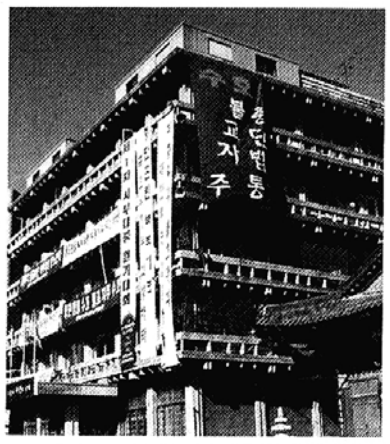
이번 사태를 놓고 지선스님 지지자로 알려진 중진급 종회의원은 "이번 사태는 정화회의에 의해 발단됐지만, 질 재판이 아니었는데 져 종단을 혼란에 빠뜨린 고산 집행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책임론을 제기할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총무원장을 물러나게 하는 법원의 판결로 불교의 자주권을 유린당했으며, 자주권회복은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고산스님을 총무원장으로 재추대하는 것"이라는 말로 고산스님 출마 당위성을 설명하는 이들도 있다.

전 종회의장 정대스님과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의 출마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으나, 본인이 고사하고 있거나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고산-지선스님의 경쟁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된다. 후보는 7일 후보등록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윤곽이 드러난다.

정화회의에 참여했던 스님들의 선거 참여 여부도 관심 사항이다. 참여할 경우 정화회의의 조직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행동일 가능성이 높으며, 출마보다는 특정 후보 지지의 모양을 띨 것이라는 분석이다.

●자정운동 움직임



◇정화회의가 낸 총무원장직 부존재확인 항소심이 각하되며 조계종사태는 수습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총무원 청사 출입문은 열리지 않고 있다.

많은 불자들은 이번 조계종사태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선거에 앞서 조계사의 신행공간 회복, 12일 발생한 폭력사태를 비롯 조계종사태에 대한 참회, 나아가 자정운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지난 해에 이어 또다시 보여준 폭력사태와 고질적인 분규 재연의 근본적인 치유책은 참회와 자정이라는 것이다.

한 재가불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유야무야 넘어가면 조계종은 불자들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며 "참회와 자정운동을 통해 비불교적인 행태가 발 붙이지 못 하도록 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징계자 사면을 둘러싼 찬반논쟁, 사찰재정 공개, 종단 및 사찰 운영에 사부대중 참여 등이 주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밀운스님 제기 '대사면론' 놓고
교계 찬반여론 팽팽

"분규청산 계기"…"또 분란만든다"

밀운스님(봉선사 주지)의 대사면론에 대한 찬반의견이 팽팽하다. 사면론은 총무원장선거와 맞물려 후보들의 공약사항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있어, 이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밀운스님은 10월 25일 타워호텔에서 법장 수덕사 주지, 중원 관음사 주지, 종회의원인 정대 종하, 전 총무원장 초우, 전 범어사 주지 벽파스님 등과 만나 조계종사태 중재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50년대 불교정화 이후 정치적 희생자가 너무 많다. 전반적으로 다 풀어야 한다. 재심사해서 풀어주자는 뜻이다"며 대사면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종회의원과 총무원 소임자 등 스님들은 즉각 찬반의 반응을 보였다. 찬성하는 쪽은 "조계종 50년 분규의 역사를 청산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재심사를 통해 사면해야 하며, 재산관련 징계자의 재산 환수 및 해당 사찰의 종단 등록, 사면하되 일정 기간 동안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하는 쪽의 스님들은 "종단을 어지럽게 했던 사람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 "사면을 하더라도 징계자들의 참회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나아가 "인적 청산을 통해 분규의 씨앗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재가연대 정용정 사무처장은 "물리력에 의한 문제해결 관행의 근절과 비승가적 승려의 축출, 불교정신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사찰재정의 투명화, 사부대중 공의에 의해 운영되는 사찰과 종단이 되도록 제도의 도입과 의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운 기자

불교문화유산이 걱정이다. 위기는 안팎에서 온다. 밖에서 오는 요소로는 타종교의 맹목과 사찰 주변의 환경이다. 남산의 불상들이 붉은 칠을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가야산처럼 골프장을 짓겠다는 억지가 일상사가 되었다. 이런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불교계는 다양한 전문가를 키워야 한다. 불교 고유의 전통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의 교리와 역사도 알아야 하고, 환경에 대한 과학기술 전문가, 행정 법률의 조언자 등 필요한 인력을 적극 키워 나가야 한다.

그보다 심각한 위기는 불교 내부에 있다. 모든 문화유산이 그렇지만 불교의 그것 또한 지속적 자양과 관리가 없으면 쇠퇴하고 소멸하게 되어 있다. 전통을 그저 유지하는 것만도 힘겨운 판이라고 말할지 모르나, 신비주의의 가르침대로 나아가지 않는 길은 곧 물러나는 길이다. 불교에 발분의 창조적 역량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교리나 사상의 경우는 기본경전이 책이나 문자로 남아 있고, 또 이 방면에 그동안 많은 힘을 쏟아 왔기에, 성과를 기대해도 좋겠다. 그렇지만 건물이나 탑 등의 유형적 형태나 단청이나 세공 등의 무형적 기술은 뛰어난 감식안과 오랜 숙련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준비와 계승의 지속적 축적과 그 협력을 통해서만 살아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불교계는 장인(匠人)을 우대하고 그들의 기술을 존중하며, 소멸해가는 것을 안타까워 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분야는 불교의 장식이나 여기(餘技)가 아니라 바로 본질임을 인식하는 일이 중요하다.

세월의 풍파에 할퀴어져 절간은 자꾸 낡아가고 허물어지고 있다. 지금 새로 조영되고 건립되는 전각이나 불탑 등은 차마 보아주지 못할 것들이 많다. 주련이나 현판의 글씨도 속기(俗氣)가 완연하고, 불상과 벽화, 범종이나 탑파도 모양만 겨우 살렸지, 깊은 신심과 경외감을 불러 일으키기에는 부족하다. 거창한 사업을 벌이고, 문화이벤트를 기획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을 소중히 하고 거기에 적극 투자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한다. 그를 위해 우선 불교적 상징물의 전문적 장인을 길러내 우대하여 그들의 창의력과 신심을 불사에 공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아니, 그보다 시급한 것이 불자들이 제 손으로 소중한 유산을 훼손치 못하도록 막는 일이다.

목어 성보 지키자

한형조(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본지논설위원)

총무원 움직임

"대타협 앞서 참회 우선"

○…총무원은 정화회의가 10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대화 제의에 대해 대화에 앞서 참회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총무원은 "저들의(정화회의) 대타협이라는 표현 속에는 지난 해 사태 이후 현재까지 불자들에게는 물론 사회적 세계적으로 끼쳤던 해악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유야무야 끝내자는 말에 다름아니다"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요구한다면 앞서 지난 해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폭력사태에 대한 참회 각성과 오늘과 같은(선본사 접수) 폭력사태를 다시는 재발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총무원은 정화회의의 선본사 접수에 대해 "자신들의 거점을 확보하고 차례로 전국의 유명사찰을 강탈하려는 마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하고 종무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저녁 정화회의측에서 인원을 동원해 총무원을 접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제보에 따라 총무원은 다음 날 새벽까지 비상근무에 들어가는 등 한때 긴장된 분위기였다.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은 5일 개회하는 정기종회를 앞두고 종책질의에 답변과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느라 바쁘게 움직였다.

○…서울고법 민사6부가 정화회의의 총무원장직 부존재확인 항소를 각하한 것과 관련, 총무원은 보도자료와 성명서를 통해 "황도견 직무대행의 권한이 존재하지 않음을 법원이 입증한 것"이라며 "항소가 계류중이기 때문에 본안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직무대행자는 그 권한이 유효하다는 정화회의의 그 동안의 주장이 허구였음이 밝혀진 것"이라고 논평했다.

정화회의 움직임

"사태수습 10대 원칙 제안"

○…정화개혁회의측은 10월26일 관훈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단사태 수습을 위한 10대 원칙을 제안했다. 10대 원칙은 △도견 직무대행 상호인정 △50년대 불교정화이념 계승 △월하스님이 단행한 정화이래의 대사면 복권조치 단행 △쌍방의 징계 원천무효 상호 확인 △영축총림 방장 승인 취소 결의와 총림해제 결의 무효화 △중앙종회와 정화개혁회의의 쌍방 합의하에 자진 해산 △새로운 종단 입법기구와 선거인단 구성을 통해 이번에 한해 현행법 따른 선거 실시 △양측 합의하에 종정 재추대 △종단의 정화와 개혁조치들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특별기구 설립 △향후 정치적인 보복 금지와 허심탄회한 대화 우선 등이다.

○…정화회의는 10월27일 오후 선본사 갓바위 입구 썬빌리지 경향식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무원 직영사찰인 선본사의 금고열쇠와 현금 통장및 인출도장을 보관하고 있다"며 "합법적인 공무수행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화회의는 "총무원측을 업무방해및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하겠다"며 "선본사 종무행정이 정상화 될 때까지 순교하더라도 탈환하겠다"고 말했다. 정화회의는 29일 새벽 갓바위 기도처를 점거했다.

○…정화회의는 28일 오전 법열스님을 비롯해 10여명이 울산 해남사에 들어가 총무스님에게 "법적인 주지이니 해남사를 인수하겠다"고 통보했다. 통도사에 있던 해남사 주지 성본스님이 돌아와 인계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하자 법열스님을 비롯한 정화회의측 스님들은 해남사에서 나와 돌아갔다.

취재1부

■불교TV이사회 허사장 해임결의 배경

5공자금 유입설 악재

허사장 '해임결의 무효확인 소송' 준비

불교TV이사회가 허문도 사장을 퇴진키로 결의한 것은 경영정상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 표면적인 이유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노조와 이사회에서 새 경영자로 섭외하고 있는 2, 3명의 투자자들이 5공인사인 허 사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한 투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비쳤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사회의 허 사장 퇴진 결의 이후 불교TV의 한 관계자는 "5공자금 유입설 등의 의혹 때문에 투자를 기피했던 사람들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나설 것으로 보인다"는 말로 허 사장 퇴임불가론을 뒷받침했다. 실제 이수덕 대표이사 권한대행이 지난 6월 투자하자 곧바로 세무조사를 받았던 적도 있다.

신허스님은 28일 이 권한대행에게 "18일 주주총회 전까지 투자자 물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때까지 비상체제로 회사를 맡아달라고 말해 새 투자자 영입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권한대행도 "월 수신료 8천만원으로 임대료 지불 등 급한 불을 끄는 한편 뉴스 프로그램부터 제작에 들어가겠다"고 밝히는 등 의욕을 보이고 있다.

한편 허 사장이 이사회 결의에 반발하며 해임결의무효 확인소송을 낼 뜻을 밝히고 있어 불교TV 문제가 자칫 법정다툼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송광사 서울분원 **법련사 법회 안내**

귀의 삼보 하옵고, 수행과 포교의 전당인 법련사에서는
새 주지스님을 모시고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불자님들과의 만남을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불자님들의 수희 동참을 바랍니다.

일요 정기법회

불교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 시간이 없는 직장인 및 청·장년층을 위한 일요정기법회를 개설하였습니다. 일요일 온 가족이 함께 동참하여 자신을 반성하고 새롭게 발원하는 것은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자신의 생활이 언제나 정진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불자가 되도록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1. 일시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2. 장소 : 법련사 3층 대웅보전
3. 대상 : 불교에 관심있는 모든 분
4. 법사 : 주지스님 및 초청법사

법련 불교대학

불일경전강좌 (기초반)
1. 내용 : 기초교리, 반야심경, 금강경
2. 일시 : ● 낮 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4시
● 저녁반 :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3. 강사 : 오경스님(법련사 주지)
4. 동참금: 5만원(3개월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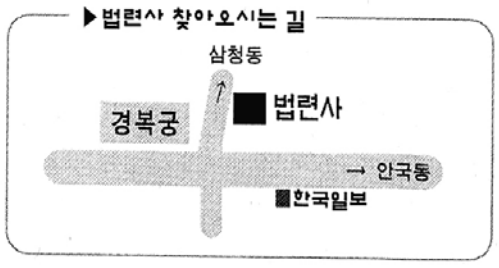
불일교양강좌
-. 선체조
1. 일시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2. 강사 : 백문수화(동국대 사회교육원)
3. 수강료 : 4만원(2개월분)
-. 시민선방
1.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2. 대 상 : 참선에 관심 있는 모든 분
3. 동참금 : 5만원(3개월분)
※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은 철야정진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광사 서울분원 **법련사** 서울 종로구 사간동 121-1 문의전화 : 02)733-5322

서옹 큰스님 초청 특별 대법회

법련사에서는 10월 초하루 기원법회에
서옹 큰스님을 모시고 특별 대법회를 봉행하오니
두루 동참하시어 큰스님 법문을 통하여 부처님의
정법의 향기를 느끼고 삶의 지혜를 배워 가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1999년 11월 8일(음력 10월 초하루) 오전 10시 30분
2. 장소 : 법련사 3층 대웅보전
3. 법사 : 서옹 큰스님

▶법련사 찾아오시는 길


20년간 경찰포교 초석 다져

'경찰의 날' 대통령 표창 받은 자우스님



"경찰포교는 아직도 사각지대입니다. 전 종도의 공감대 형성과 종단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서울경찰청 경승실장 자우스님(금강사 주지). 지난 20년간 경찰포교에 헌신한 공로로 10월25일 제54회 경찰의 날을 맞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79년 서울지방 경찰청 경승법사로 경찰포교에 발을 들여놓은 후 87년에는 전국 경승단 창단 초대 사무총장, 89년에는 경승 제3대 단장으로 전국 경승대회를 주관하는 등 불모지였던 경찰포교를 뿌리 내린 장본인이다.

"79년 9월 처음으로 경승 활동을 승인받아 경찰포교를 시작해 현재는 전국 250개 경찰서에서 600여명의 경승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일심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스님은 경승활동이 숫적으로는 많이 팽창했지만 미약한 재정문제 등으로 여전히 질적인 면에서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전국의 경찰서에서 포교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최소 1200명의 경승이 필요하지만 현재로는 등록인원 600명에 실재 활동인원은 300명 수준에 그쳐, 포교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경승 대부분이 개별 사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어, 월 2~3백만원이 넘는 경비를 종단의 지원없이 경승 스스로 조달하다보니 한계에 부딪치기도 하고, 주지스님이 바뀔 때면 포교공백이 생기기도 한다"고 스님은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스님은 98년부터 직접 사비를 들여 매월 교리와 법문, 신행담 등을 담은 〈경찰법보〉를 발행해 90여곳의 경찰서 경승실을 순회하며 부처님 말씀 전하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자우스님은 "긴장과 격무에 쫓기며 민생치안에 애쓰는 경찰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해 보다 많은 이들이 부처님 품안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며 성실한 경찰로서 활동하도록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성인따라 성인되고 속인따라 속인되니…"

관음종 새종정 혜웅스님 취임



대한불교 관음종 제5세 종정 운공 혜웅스님 추대법회가 10월 26일 서울 장충체육관 대법단에서 사부대중 6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종정추대식은 괘불 및 사리이운, 삼귀의, 반야심경봉독, 약력보고, 총무원장 홍파스님 인사, 종회의장 법륜스님의 고불, 법장 봉정〈사진〉, 꽃다발 증정에 이어 혜웅스님 법어, 축사(인곡 태고종 총무원장, 조성준 국민회의 연등회 상임부회장, 박철언 자민련불자회장, 김순길 문화부 종무실장), 축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혜웅스님은 법어에서 "본래 이 천지간에 하나의 길손이 인연따라 급어졌다 펴졌다 하면서 성인따라 성인되고 속인따라 속인을 이루니 모든 법이 본래부터 제자리에 있느니라. 진실을 찾으면 진실의 본체가 없고 거짓을 찾으면 거짓의 흔적이 없도다. 청천백일에 강산이 빛나느니 참과 거짓이 다르지 않음을 알라. 시작이 없으면서 허공에 가득찼고 종말이 없으면서 허공에 가득찬 도의 자체는 형색이 없으니, 이 마음 이대로가 도의 경지니라"고 설했다.

이날 추대식에는 종단협 회장직무대행 인곡스님, 진각종 성초 통리원장, 일공 원융종 종정, 인왕 여래종 종정, 효성 법륜종 총무원장, 총지종 총지화 통리원장 등 각 종단 대표들과 조성준 국민회의 연등회 상임부회장, 박철언 자민련불자회장, 성낙승 불교방송사장, 김순길 종무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경숙 기자(gslee@buddhapia.com)

"불법으로 인류문제 대안제시"

능인불교연구소 창립한 지광스님



"능인불교연구소는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모든 이의 삶 속에 체화시키고자 하는 작은 노력의 일환으로 태어났습니다."

10월28일 창립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 능인불교연구소 소장 지광스님(능인선원장)은 연구소 설립 의의를 이렇게 밝혔다.

능인불교연구소는 '불교의 명상수련' 등 이번 학술대회 논문을 담은 〈능인불교연구〉 창간호를 학술대회와 동시에 발간했다. 〈관련기사 9면〉

지광스님은 "부처님의 정법을 바탕으로 불교의 국제화 및 세계와 인류를 살리는 불법의 전개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연구소는 불교대학 설립을 위한 전초기지로 불교학자 지원·학술상 제정등을 통한 미래지도자 양성 및 불교연구의 새 장으로 키워나가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또한 매년 불교의 생활화나 참다운 수행정신의 앙양 등 교계현안에 대한 대안 모색등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티벳 내무장관 템파 체링 방한특강

"집착버려야 세계평화 가능"



티벳의 내무성 장관 템파 체링(49), 외무성 장관 트세왕초에 그얄 테통(64), 카르마겔렉 유톡 스님(동아시아 및 일본대표부 대표) 등 티벳정부 대표단이 한국티벳불교친선협회의 초청을 받아 10월24일 방한했다. 티벳정부 대표단은 조계종 총무원, 총지종 총지사, 고양 흥국사, 경주 동국대·위덕대 등을 방문하고 한국과 티벳 불교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27일 출국했다. 다음은 템파체링 내무장관이 서울 역삼동 총지사에서 가진 특강 '평화를 향한 불교도의 메시지'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거나 가지지 않거나 상관없이 행복을 원하고 불행을 멀리 하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악을 멀리하고 자비를 행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생과 내생, 그리고 업을 설명하며 전생을 보면 내생을 알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이 있지만 욕심과 집착이 그 불성을 덮고 있어 무명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집착과 욕심을 없애기 위해 노력을 해야하며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개개인의 욕심과 집착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욕심과 집착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을 부처님께서는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티벳에 불교가 들어온후 티벳인들은 주위의 국가들에게 불법을 홍포하며 평화롭게 살아왔습니다. 중국에게 침공당한후 티벳인구의 20%가 희생당했고 6천여개의 절이 파괴되었지만 달라이라마께서는 중국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 대한 자비심을 버리지 말라고 항상 강조합니다. 티벳인들은 티벳의 독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실로 실천하는데서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경숙 기자

교차로

군승요원 선발시험 실시



정련 조계종 포교원장은 29일 국방부 호국원광사에서 2000년 충원대상 군종요원을 선발하기 위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실시했다.

양지마을 체육대회 열어



진허 양지마을 원장(마곡사 주지)은 10월 22일 연기군민체육관에서 양지마을 가족과 군청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노인의 해' 기념 어르신 잔치



제원 서울 길음종합사회복지관장 스님은 6일 오전 11시 복지관에서 99 세계노인의 해 기념 '길음 어르신 큰 잔치'를 열고 축하 공연 및 만찬, 선물 증정 행사를 갖는다.

8사단 신교대 법당 기공식



화암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스님은 29일 육군 8사단 신병교육대 법당 기공식에 참석해 법문했다.

주민대상 무료 한방진료



진효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7시30분 장애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한방진료를 실시한다. (0443)652-0900

서울 성산동 성림사 개원



광용 서울 성림사 주지는 10월 24일 마포구 성산동 65-3번지에서 울산 불영사선원장 일휴스님이 증명법사로 참석한 가운데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서울 원교사 개원법회



계환 서울 원교사 주지(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는 10월24일 동국대 이사장 녹원스님을 증명법사로 원교사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전북 익산지역 석불답사



이근후 한국석불문화연구회장(이대 교수)은 14일 전북 익산 지역으로 석불답사를 떠난다. 출발 오전 8시 서울 동대문 이대부속병원 앞. (02)760-5171

성파시조문학상 수상



김연동(통영 욕지중 교사, 사진 위)씨와 전연희(부산 부일여중 교사)씨는 10월9일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각각 '욕지도에 부는 바람'과 '깃발'로 제16회 성파시조문학상을 수상했다.



제5회 신행수기 공모

교계의 정평과 권위를 인정받으며 불자들을 실천수행의 장으로 이끌어내온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5회째를 맞았습니다. 가슴에 담아 두어온 감동 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귀한 신행이야기는 많은 불자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현대불교신문 지면에 게재됩니다. 2000년에 발표되는 신행수기 공모에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원고지 30매…마감 12월18일

△주제: 생활속의 불교관련 체험,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
△마감: 1999년 12월 18일
△당선작 발표: 2000년 1월 1일자 현대불교신문
△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02)722-4162
△시상내용
◇ 대상(유마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우수상(본사 사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특별상
· 종단협의회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천태종총무원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관음종총무원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상: 상장, 부상 (순금 행운의 열쇠)
◇ 응모자 전원: 기념품 증정



미륵종 해병대 위문

한국불교 미륵종(총무원장 송정스님)은 10월 24일 포항 해병교육단과 1사단 호국해룡사를 잇달아 방문, 장병 5백여명과 신도 150명이 동참한 가운데 위문법회를 봉행했다. 미륵종은 이날 위문금으로 금일봉과 칠보사 조실 석주스님의 친필 휘호 3점을 전달하고 불자가수인 하윤주, '머래와 다래'의 위문공연을 펼쳤다. 점심공양 후에는 연꽃차 공양이 잔디밭에서 이뤄졌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장애인 부부 새출발

속초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지홍)은 10월23일 복지관 강당에서 뇌성마비 장애인 한쌍의 결혼식을 거행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인 유인달씨(38)와 강은주양(31)으로 이들은 모두 타인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다. 이날 결혼식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무료예식을 제공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한편 이들에게 자활의지를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한명우 기자

지장불교대학 수강생 모집

명심·견성·성불하는 깨달음의 도량! 기적과 신비의 묘법으로 소원성취하는 영험도량! 법연사

도의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불교가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가장 쉽고 빠르게 깨달음과 소원성취의 길로 인도하는
조연 스님의 밝은 이치의 강의를 들으십시오!
법연사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기적은 조연 스님의 큰법력 때문입니다.

불교기초교양대학 교수진 (무순)


서암스님 (조계종 전종정)


홍교스님 (전 범어사 주지)


철웅스님 (성전암)


윤청광 (고승열전 작가)


조 순 (전 국무총리)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조연스님의 큰법력으로 소원성취한 실화수기집!

→ 일곱권 중 몇분만 소개합니다.


■전주 전선옥
혈종양 백혈병 완치


■부산 김두이
10년된 악성류마티스 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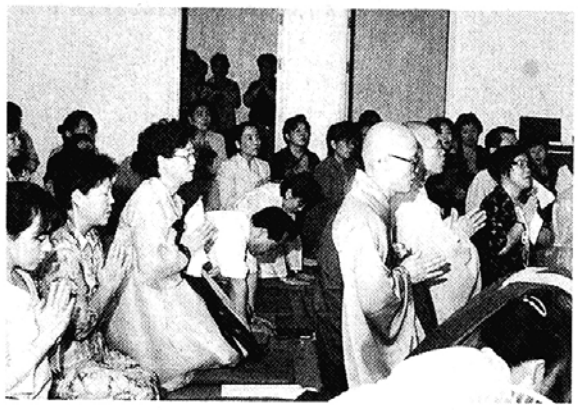

■대구 윤경남
결혼 8년만에 생남소원성취


■서울 이원보
수술날 받은 대장종양 사라져

● 개 강 : 11월 23일(화) 오전 10시~12시(매주 화요일, 6개월과정)
● 장 소 : 서울 영등포구청 뒤 동양 웨딩홀 (2층 크리스탈 홀)
● 접수처 : 법연사 서울법당(접수중) ● 전 화 : (02) 651-8853~4

11월 23일 개강 (서암 조계종 전 종정스님 강의)

탐방 국립서울정신병원 불자회



◇국립서울정신병원불자회는 창립 7년만에 병원내에 법당을 마련, 부처님을 모시고 보살행을 펼 것을 서원했다.

'마음의 병'엔 자비가 영약

92년 간호사 12명 발족 매주 정오법회…신심다져

종교적 망상을 가진 환자들이 다수 찾는 정신병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종교활동이 오래도록 금지돼 왔던 국립서울정신병원에 불자회가 결성된 것은 92년 12월. 남자 간호사 이명국씨를 비롯한 12명의 간호사가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점심시간에 법회를 봉행하기로 하면서 구성됐다. 주위의 관심조차 끌지 못한 작은 시작이었지만 이제는 회원들의 꾸준한 동참 속에 자리를 잡아 지난 9월 이충경 병원장의 도움으로 병원 내에 이동식 불단을 갖춘 법당까지 마련해 타 직장불자회의 부러움을 받고 있다.

국립서울정신병원불자회(회장 양동선, 치과과장)의 활동은 화려하지도 요란하지도 않다. 회원 수도 턱없이 적고, 포교활동보다 신행활동 위주로 운영된다. 하지만 내실을 중요시한다. 전체 회원 수가 기백명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활동인원은 10여 명에 불과한 수많은 타 직장불자회와 달리 3교대 근무로 40여 명의 회원들이 한자리에 하지는 못하지만 법같아가며 매주 정오법회를 열어 병원을 끊임없는 법향으로 가득 메운다. 또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간절한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환자 한사람 한사람과 눈을 맞춰가며 진정한 봉사를 실현해 부처님의 큰 위신력을 보인다.

이같은 불자회의 저력은 매주 월요일 명성여고 이학주 교법사와 함께하는 정오법회에서 비롯된다. 짧은 1시간이지만 예불 후 경전공부에서부터 다비의례, 각단 정근방법, 경전독송방법, 불교사 등에 이르는 공부를 통해 신행으로 회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봄, 가을 실시되는 성지순례법회는 회원들의 불심과 우의를 한층 북돋우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양동선 회장은 "불자회의 활동은 소위 '생각의 병'에 걸린 정신병자들을 부처님 법으로 사색케하고 치유하는 방편일지도 모른다"며 "한층 성숙된 공부와 방법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불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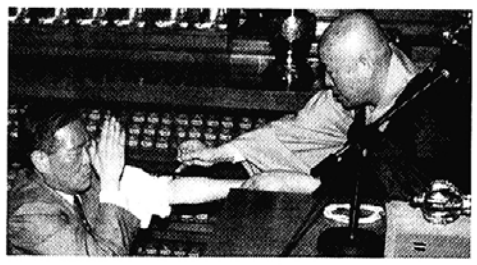
감사원 정년퇴직후 無字들고 유발출가

감사원불자회 고문 신상두씨

'佛心' 13만번 쓴 원력불자 3년후 하산 사회봉사발원

부귀영화의 안락한 삶과 가족의 품을 마다하고 예순이 넘은 나이에 결망하나 달랑 메고 첩첩 산중으로 유발출가(有髮出家)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있어 화제다. 감사원불자회 고문을 맡아 불자회를 물심양면 도와 온 신상두 전 감사위원(61)이 주인공.

신 전 감사위원은 10월23일 서초동 대성사(주지 도문)에서 자신의 수계식을 축복해 주기 위해 모인 40여 명의 사부대중 앞에서 불심 도문스님에게 계와 화두를 받고 3년간의 용맹정진을 발원했다. 바로 전날 감사원을 정년퇴임한 신 전 감사위원은 수계후 10월27일 함안의 모 사찰로 '무(無)'字 화두를 들고 떠났다. 3년동안 백적간두 진일보의 자세로 출가승려와 똑같은 생활을 하며 확철대오를 각오로 화두를 참구하기 위한 것.



◇붉심 도문스님으로부터 수계를 받고 있는 신상두 전 감사위원. 신위원은 '무'자 화두를 안고 3년결사에 들어갔다.

수십년의 승려생활 중에 어느 누구에게도 화두를 준 적이 없다는 도문스님으로부터 '대광(大光)'이라는 법명과 화두까지 받은 신 전 감사위원이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독실한 불자인 부인 윤옥경씨 때문. 백고좌 법회를 다녀와 이것저것 소감을 털어놓는 윤씨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불교에 매료됐고 신행(信行)에 눈을 떠 오히려 부인 윤씨의 교학과 신행 길잡이가 됐다.

지난 10여 년간 매일 새벽 4시30분이면 일어나 목탁을 치면서 염불하고, 참선에 들어 온 신위원은 '불심(佛心)'를 13만번이나 쓰고, 〈금강경〉을 5백번이나 사경하는 등 끊임없이 수행정진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신 전 감사위원은 "새로운 출발을 지켜봐 주시고 거룩한 부처님께 원만성취를 빌어주신 불자들의 마음을 잊지 않고 수행정진에 전력하겠다"며 "모든 불자들이 보살의 삶을 통해 다함께 성불하는 도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위원은 또 "정년퇴직으로 감사원불자회와 몸은 멀어졌지만 마음으로 늘 격려지원하겠다"며 "신심 돈독한 불자회원들의 노력으로 자리매김을 한 감사원불자회가 더 나아가 공무원과 지식인 사회에 생활불교를 뿌리내리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 전 감사위원은 3년 뒤 산를 내려와 변호사 사무실을 개원한 후 법률자문을 통한 신행활동으로 사회에 봉사할 계획이다. 도필선 기자

"한국불교 위상회복 앞장"

자민련불자회 호국법회



자유민주연합불자회(회장 박철언)는 10월26일 중앙당 강당에서 박철언 회장과 현경자 전의원, 김 청련화 보살을 비롯한 불자회원과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 봉원사 주지 인공스님, 종단협 사무국장 법현스님, 생명나눔실천회 후원회원, 봉원사 합창단 등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국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박철언 회장은 "인내와 슬기로 지난 세월의 무능을 극복하고 화합과 용서, 자비를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의 탄생을 맞이하자"며 "한국불교의 위상을 회복하고 재정립하는데 자민련불자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불자들의 성원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은 법어를 통해 "많이 듣고 많이 봐서 공부가 높다하여도 실천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며 "오늘의 법회가 인식과 발상의 전환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

한국불교 언론인회 해인사·백양사서 수련

한국불교언론인회(회장 신광식)는 10월23~24일 백양사와 해인사에서 수련대회를 가졌다.

첫날 백양사(사진)에 도착한 30여명의 회원들은 법당을 참배하고 주지 다정스님, 총무 진공스님과 함께 불교 현안에 대해 담소를 나눴다. 또 일본 체류 중인 서옹 방장스님 고문 위촉패를 다정스님에게 전달했다.



회원들은 또 해인사에 들러 참배하고 유나 원융스님과 선문선답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원융스님은 "각자 화두를 갖고 참선에 임할 때 좀더 가까이 불법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수련회에는 광주전남지회, 대구경북지회, 부산경남지회 등 각 지회 대표단이 현지에서 동참했다.

도필선 기자

우리 모임에선

금융단 불자회 합동법회

전국금융단불교회는 6일 오후4시 조흥은행 본점 신관 22층에서 합동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는 한국은행을 비롯한 9개 은행불자회와 농수협불자회, 증권거래소불자회, 금융결제원불자회, 금융감독원 불자회 등이 참여한다.

천리안 불동 전국모임

천리안불교동호회(대표시샵 이경재)는 10월23~24일 충남 아산시 영인산 자연휴양림에서 2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모임을 가졌다. 이번 모임에서는 회원들 끼리 강의하고 묻는 형식으로 〈반야심경〉과 추사 김정희의 불교에 대한 비판적 견해에 대해 공부하고 서산마애불, 보원사지, 개심사, 영탑사, 윤봉길 의사 생가 등을 답사했다.

철도청 법우회 사찰순례

철도청 내 불교법우회의 유대를 강화하고 친목을 다지기 위한 합동 사찰순례 법회가 10월20일 강원도 삼화사, 관음사에서 봉행됐다.

이번 순례에는 서울 기관차 불교법우회, 청량리 기관차 불교법우회, 서울 전동차 불교법우회, 성북 전동차 불교법우회, 서울 동차 불교법우회, 제천기관차 불교법우회 등 3백여 명이 참여했다.

철도청 불교법우회는 일년에 1번 합동 사찰순례를 비롯한 정기모임을 가질 계획이다.

연등회 영남권스님 초청

국민회의 연등회 한화갑 고문(국민회의 사무총장)은 10월22일 대구 파크호텔에서 대한불교신문 주최, 대구사암연합회 주관으로 조계종을 비롯한 각 종단 영남권 스님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성덕(동화사 주지) 법의(은해사 주지) 법조(고운사 주지) 법타(대구불교방송 사장)스님과 천태종 용암스님, 진각종 현정정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성철스님 열반 6주기 추모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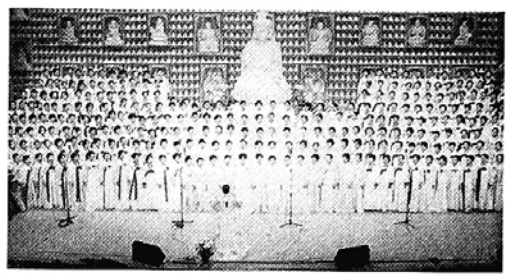
퇴옹당 성철대종사의 열반6주기 추모법회가 10월28일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봉행됐다. 육법공양, 행장소개, 성철스님 육성법문, 추모사, 문도대표 인사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는 해인사 방장 법전스님을 비롯 송광사방장 보성스님 고봉 봉주 운범 송월스님 강석정 합천군수 조병채 합천군 의회의장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해 성철스님을 추모했다.

일승종 총무원장 혜정스님 취임



일승종 제11대 총무원장 혜정스님 취임법회가 10월29일 망우리 삼봉사에서 봉행됐다. 조계종 前종정 서암스님, 원융종 종정, 총화종 총무원장, 일승종 종회의장 혜덕스님을 비롯한 스님과 신도 7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혜정스님은 "각오를 새롭게 해 화합승가의 풍토를 확고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이어 혜정스님은 혜덕 종회의장으로부터 공덕패를 받았다.

천태종 국민화합 기원 찬불가 제전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10월24일 서울 우면동 관문사 옥불전에서 국민 대화합 기원 제2회 찬불가제전을 개최했다. 교육부(부장 도원) 주관으로 거행된 이날 행사에는 총무원장 운덕스님을 비롯 박형철 참의원장 등 종단 간부와 김유혁 천태종 중앙신도회장, 전국 37개 사찰 합창단 등 3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대불련 서울지부 조계사 수계법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서울지부(지부장 이승철)는 10월27일 조계사 법당에서 땅에 떨어진 불교계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종교적 신망을 얻는데 청년들이 앞장선다는 취지로 90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조계종 포교원장 정련스님으로부터 5계를 수지하고 108배 정진했다.

통도사 승가대학 학인 모집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살아 숨쉬는 불지종가 통도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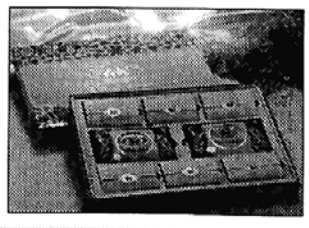
모집학과	치문반 00명 사집반 0명
입학자격	조계종승려로서 해당학과에 적격인 스님
구비서류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주민등록증사본(양면) 2매 3. 승적증명서 또는 수계증 사본 2매 4. 은사스님 추천서 5. 건강진단서
준 비 물	대가사, 오조가사, 발우, 장삼, 법명도장
전형방법	사진 3×4 (대가사 또는 오조착용) 3매 서류접수후 면접
교과과정	내전 - 전통강원의 기본 교과 과목 외전 - 컴퓨터, 서예등 학인의 필요에 따른 특강실시
문 의 처	☎ (0523)383-2363(승가대학) 382-7182(종무소)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본사 **영축총림 통도사 승가대학** 주지 신 허 학장 지 안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항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항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 · 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개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 영 희)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7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방일이야말로 죽음의 좁은 길"

이렇게 들었다 관리소홀

물섞인 연료를 주입하는 바람에 전투기가 추락해 젊은 장교가 목숨을 잃고, 인체에 유해한 공업용 세제가 관장약으로 둔갑해 수술을 앞둔 환자 4명이 생명을 잃는 등 사소한 관리소홀로 인한 참사가 계속되고 있다. 어처구니없게도 공군의 유류저장탱크 곳곳에 관리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할 군인의 정신이 그러할진데 일반인들은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사소한 부주의와 관리소홀로 인해 우리 사회 곳곳에 재앙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인재(人災)를 막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바 책무를 충실히 하는 것밖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다.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소 어떻게 해야하는지 경전 말씀을 통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작은 악을 대단치 않게 알아 재앙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물방울은 작지만 시간이 흐르면 차츰 큰 그릇을 채우고 만다. 〈열반경〉

▨쓸쓸한 길에 우물을 파며, 과수를 심어 서늘한 숲을 이루며, 다리놓고 배 만들어 사람 건네며, 보시를 행하고 계를 닦으며 지혜 있어 곧 탐심 버리는 이는 공덕이 밤낮으로 증장되어 언제나 천계에 태어나리라. 〈승기율〉

▨보살은 보리도를 수행할 때 길을 잃은 중생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며, 길의 와석(瓦石)과 가시덤불을 제거하며, 건너야 할 물이나 험한 곳에 다리를 놓으며, 어두운 곳을 위해 등불을 단다. 〈대집경〉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경우 그 재앙을 자초하는 것 뿐이어서 부모 형제 종족이 그 죄를 대신해 받아주는 것은 아니요, 악을 행하지 않는 경우 그 복을 스스로 받는 것 뿐이어서 부모 형제가 그 기쁨을 대신해 얻는 것도 아니다. 〈출요경〉

▨설사 저 허공을 땅으로 만들고 땅을 허공으로 만들 수 있다해도 이미 뿌려놓은 인연의 씨앗은 썩어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나니 인연이 무르익는 날에는 그 결과를 반드시 받아야 하리. 〈증일아함경〉

▨선정을 얻은 사람은 다시는 마음이 동요하지 않을 것이니, 마치 물을 아끼는 집에서 둑을 잘 쌓아 놓은 것과 같다. 수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여서 자혜의 물을 간직하려는 까닭에 선정을 잘 닦아 그 누실을 막는 것이다. 〈유교경〉

▨만일 한량없는 착한 법을 얻을 수 있다면, 이는 방일하지 않음을 근본으로 하고, 방일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하며, 방일하지 않음을 머리로 하나니 방일하지 않음은 모든 착한 법에서 가장 으뜸이 되느니라. 〈중아함 유경〉

▨부처님께 항상 공양드리고 바른 법 구하기를 즐거워하며 방일하지 않고 따라 배우면, 기쁨과 즐거움은 언제나 더해가리. 만일 그처럼 설법 잘하고 잘 단속해 방일하지 않으면 그로써 악마의 마음대로 되지 않으리. 〈비쉬누경〉

▨비록 백년을 살아도 게으르고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으면 하루동안이나마 부지런하고 마음이 굳센것만 못하느니라. 〈출요경〉

▨한 방울의 물도 계속해서 떨어지면 능히 돌을 뚫을 수가 있다. 〈유교경〉

▨마치 사람이 작은 나무 조각을 잡고 저 큰 바다로 들어간다면 사람과 나무는 함께 빠지리. 게으름을 함께함도 또한 그러하나니 마땅히 게으르고 비열한 방일을 떠나야 한다. 〈잡아함경〉

▨게으름은 때와 같은 것, 때는 게으름에서 생기느니라. 애써 닦음으로써 또한 밝은 지혜로써 자기에게 박힌 화살을 뽑아라. 〈숫타니파타〉

▨정이야말로 죽음이 없는 큰 길, 방일이야말로 죽음의 좁은 길이다. 〈법구경〉

▨국왕이 만일 진정으로 교화하면 여덟가지의 큰 공포가 그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나니 타국의 침범, 국내의 반역, 악귀와 질병, 국토의 기근, 때아닌 풍우, 뒤늦은 풍우, 일월의 박식(薄蝕), 성숙(星宿)의 변괴이다. 〈심지관경〉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이 경을 듣거나 독송하고 향 꽃 음식 의복 보배 등을 가져다 보시 공양하고 찬탄하여 우러러 예배하면 위난을 당할때에 신들의 보호를 받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질병에 걸리지 않으며, 홍수나 화재의 재앙이 근접치 못하고, 도적으로부터 액란을 당하지 않으리라. 또한 총명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지장보살본원경〉

열린마당

한국정토학회 제2회 세미나
21세기 불교신행의 과제

새 천년을 앞두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진단하는 '21세기 불교신행의 과제' 세미나가 한국정토학회(회장 정태혁)의 주최로 10월 28일 부산 동아대학교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불자들의 올바른 신행 활동에 대한 반성과 세기말적 혼란의 시기에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정토신행의 저변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토사상을 통한 불자의 가치관 확립과 실천적 의식전환 등이 신행의 과제로 대두됐으며, 불교음악의 활용을 통한 적극적인 신행활동 전개, 승가의 의무와 실천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날 세미나의 발표내용을 요약한다.

〈편집자주〉

"대비원력 믿는 확고한 가치관을"



강동균〈동아대 교수〉

붓다에 의해서 자각된 자비와 지혜가 바탕이 된 여래의 대비심(大悲心)이 아미타불의 본원이라는 구체적인 모양을 갖추고 표현된 것이 본원사상이다. 정토사상은 이같은 여래의 본원에 근거하고 하고 있다. 인간은 단지 여래의 본원에 의지하기만 하면 구제되는 것이다. 본원이란 중생이 좌절의 밑바탕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순수생명이며 절대가치이다. 진리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는 중생이, 그를 섭취불사(攝取不捨)하겠다는 여래의 본원(=약속)을 믿고 의지할 때에, 거기에 본원의 의의는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며, 정토왕생의 근거도 명시되어지는 것이다.

여래의 대비원력을 믿고 의지하여 환희심을 낼 수 있다면, 그것은 모든 가치기준이 퇴락해 버린 현대의 우리들에게 믿고 신행할 수 있는 확고한 가치관이 된다. 특히 현대에 살면서 여러가지 사회적인 제약을 받는 우리들에게 부처님의 본원을 따라 실천하는 정토신행은 대승불교의 정신을 새롭게 되살리는 적극적인 신행이 아닐 수 없다. 현대사회속에서 모두의 수행방편으로써의 실천하는 정토신행이야 말로 대승불교사상의 정수라 할 것이다.

"스님과 재가불자 역할 구분해야"



태원스님〈중앙승가대 교수〉

21세기는 재가불자뿐 아니라 승가의 신행방향 또한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부처님 당시의 전통을 지키면서 현실에 맞는 수행을 실천해야지만 변화하는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사격인 산중사찰과 선원과 강원, 율원에서는 여법한 안거를 해야하며,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사찰과 도시사찰에서 하나의 경계를 정해 상황에 맞는 안거를 해야한다. 또 현재 대부분 스님이 맡고 있는 사찰의 업무를 스님이 해야 할 일과 재가자가 해도 되는 일을 구분해 승려자신이 출가본연 자세를 잊지않고 수행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현대에 맞는 신행생활로서의 염불의 활성화를 꼽고 싶다. 염불이야말로 부처님의 본원력에 의해 자기를 건전하게 지키고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성불의 길을 향해 실천수행할 수 있는 신행법이며 21세기 현실에 맞는 승가의 수행법이다. 한국불교 승가는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의식을 과감히 전환해 아만과 독선에서 벗어나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위에 열거한 방법들을 실천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때 보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을 것이라고 본다.

"불교음악 전통과 현재 융합해야"



홍윤식〈동국대 교수〉

불교신앙에 있어 의식은 불가결의 요소이며, 특히 정토신앙은 염불의식절차를 통해 한국불교의식전반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불교음악의 구체적 현실과 전승은 정토교의식을 통해 오늘에까지 전해올 수 있었으며, 불교음악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범패는 정토교적 의식을 떠나서는 의미가 없다. 한국의 불교음악과 정토교의식은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이같은 정토신앙을 바탕으로 한 불교의례의 예능화는 불교의 대중적 이해와 신앙심 고조에 크게 기여하는 등 기능적 측면에서 신행을 이끌어 왔으며, 이는 곧 개인적 종교체험으로 이어졌다. 특히 조선후기 불교계는 의식불교를 지향함으로써 정토교적 염불신앙의 중흥을 꾀하기도 했다.

이같은 염불을 포함한 불교음악을 21세기 신행에 있어서도 새롭게 활용해야 한다. 불교음악을 통한 정토신앙의 확산은, 불교음악의 전통을 되살리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며 불자들의 신행생활을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정토신행으로 무소유정신 회복"



선진규〈조계종 전국신도회장〉

새 천년은 지난 세대에 있었던 수많은 절망과 고통을 멀리하고, 새로운 변화의 역사적 흐름에 함께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토신행은 이제부터 그 진가를 발휘할 때다. 염불정토신행이야 말로 새 천년 인류에게 대립적 소유욕을 무소유로 전환시켜 정신적으로 풍요하게 하고 동(東)과 서(西)·남(南)과 북(北)·흑(黑)과 백(白)·색(色)과 공(空)이 둘이 아님을 밝히는 불이문(不二門)에 들게 하여 정토로 귀일(歸一)케 한다. 또 정토신행은 나는 너와 더불어 존재하고, 너와 나는 한 몸뚱이 임을 가르치고 있는 동체대비 대도를 밝혀주는 무량수 무량광(無量壽 無量光)한 자비원력으로 자연파괴로 허물어지고 있는 이 지구와 이 기적 경쟁병에 걸려 함께 몰락하고 있는 우리 인류를 구제할 활로임을 깨닫게 해준다.

인간이 갖고 있는 무한대의 상상력과 끝없는 창의력과 우주를 감싸고도 남음이 있는 광대무변한 포용력과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시간에 대한 위대한 사고력, 그 무한의 능력과 우주적 가능성을 인식케하고, 그 능력과 가능성을 최대로 발휘토록 할수 있는 것이 정토신행의 길이다.

"재가자의 실천적 의식전환 필요"



정철호〈동아대 강사〉

속세를 떠난 부파불교를 재가신자들이 개혁하여 대승의 기틀을 잡았듯이 21세기의 한국불교도 건강한 재가신자들의 올바른 신행에서 그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교단도 나름대로의 개혁을 하고 있지만, 재가신자의 의식전환과 실천모습은 교단 개혁의 시기를 더욱 빨리 당길 것으로 판단된다.

불교의 다양한 수행방법 가운데 염불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대자비의 본원을 믿고 따르는 양신(仰信)의 길로 인도하는 신행방법이다. 염불을 하는 것은 내 자신만의 구제를 위한 것이 아니다. 석가모니가 연기(緣起)를 깨달아 인간 삶의 의미의 밝혔듯이 그러한 각성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하는 것이다. 염불이 나 자신의 기복의 차원을 넘어 상의상관(相依相關)의 넓은 이해의 벽을 넘어설 때 신행의 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다가오는 21세기의 재가신자들은 이같은 철처한 수행을 통해 진실한 자기 모습을 찾아, 유한의 개인은 무한의 법체(法體)에 연결되어 있다는 자각심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인들의 초발심"

목탁소리

김 재 경 〈취재 1부 기자〉

"종도와 학인들이 구종(救宗)의 마음으로 뼈를 깎는 각고의 참회가 있어야만 새시대 새 불교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법주사 주지 혜광스님). "초근목피로 연명하며 정진했던 조사(祖師) 정신은 다 어디로 갔는가. 오늘날의 진정한 선사는 학인들이다. 비구 스님들이 학인들의 초발심을 배워야 할 때다"(법주사 강주 혜남스님).

전국전통강원연합이 10월 26~27일 속리산 법주사에서 거행한 제10회 전국승가학인대회 입제식에서 법주사 주지 혜광스님과 법주사 강주 혜남스님은 오늘날 진정 필요한 승가의 정신은 '학인 시절의 초발심'을 잃지 않는데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학인대회에서 종단의 화합을 발원하며 참회한 학인들의 간절한 마음은 한국불교의 법등이 잦은 비바람에도 꺼지지 않고 오히려 그 빛을 발휘해 온 원천이 되어왔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해인사의 연극 '스나이퍼'와 통도사의 '불보살의 대중공사' 등은 지속적인 종단분규 등 뼈아픈 주제의식을 통해 한국불교의 현재와 미래를 풍자하며 승가의 자기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대회를 지켜보며 눈푸른 학인들의 진지하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이러한 초발심과 수행에 대한 간절한 서원이 꺾이지 않고 오롯이 자라 불법중흥의 초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했다.

10월26일 이후 선본사 갓바위를 둘러싼 총무원과 정화회의측의 충돌을 지켜본 신도들은 "돈 때문에 저렇게 싸운다"며 "불전에 보시금을 넣지 말자"는 말까지 할 정도로 승단에 대한 불신감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소식을 보고 듣는 젊은 학인들의 심정은 어떨까.

그 초발심이 해이해 지거나 행여 회의를 느끼지 않도록 조계종의 사부대중은 초심으로 돌아가자.

장엄도량을 이루는 모든 것
태영산업이 함께 하겠습니다.

◐ 규격간판(도로지주용 간판) 허가 대행. 제작, 설치, A/S
◐ 각종 사찰 불사 및 event 대행

■사찰 이정표
- 스텐레스 재질로 반영구적인 수명
-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 - 가격 저렴
- 녹슬거나 칠이 벗겨지지 않음
- 자체 제작공장 보유 - 신속정확 시공
- 허가 대행 및 A/S 철저

■사찰연혁판
- 스텐레스 재질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방문객에 대한 사찰연혁을 정확히 전달
■전주용 간판 ■게시판 ■현수막
■목간판 ■난간대 공사
■휀스공사(울타리공사)
■각종 event 대행
- 아크릴판, 상패, 불사, 각종행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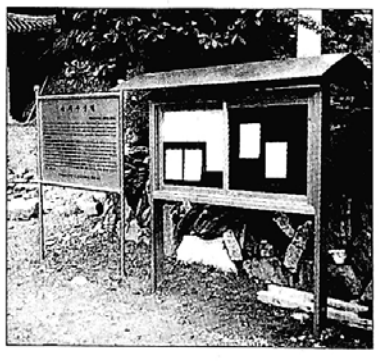
♣ 사찰이정표 건설교통부 지침 규격으로 제작하여 드립니다.



♣ 전주용 간판



♣ 사찰 연혁 게시판



♣ 화재안전 포맥스
사찰화재 방지용 포맥스를 제작하여 본사 작업 사찰은 무료로 드립니다.
- 규격 40cm × 10cm

참배후 촛불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태영산업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335번지
TEL:02-433-9544 FAX:02-433-9543 H.P:019-278-1119
이 태 영 합장

영화 '동승' 재촬영

韓-濠 공동투자 5년만에 제작
108동자 · 108보살 공개모집

해맑은 눈망울과 순수한 천진심을 고스란히 지닌 동승의 모습을 영화에서 만날 수 있다. 제작비 부족과 시나리오 각색 등의 이유로 제작이 중단돼 아쉬움을 남겼던 영화 '동승'(주경중 감독)이 5년만에 다시 제작된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좇아 먼 길을 떠나는 동자승의 얘기를 따뜻한 시선으로 조명한 영화 '동승'은 호주 영화전문제작사인 스펙트럼 필름과 공동투자로 최근 재촬영에 들어갔다.

'동승'은 원래 작가 故 함세덕씨가 쓴 희곡으로 92년 극단 연우무대에서 연극으로 만들어져 많은 호평을 받았었다. 이 영화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어린 동자승 '도념'과 성숙의 과도기에 놓인 '정심'의 세상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엄한 주지스님의 명령으로 속세의 삶들을 경험하기 위해 내려간 두 스님은 술을 먹기도 하고 사창가의 여인에게 유혹되기도 하는 등 속세의 유혹과 힘든 고행과정 사이에서 번민한다. 하지만 갈등이 심화될수록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들어와 결국 구도의 길을 떠난다는 것이 이 영화의 줄거리다.

스펙트럼 필름 코리아 대표인 통도사 극락암 성본스님이 제작을 맡아 주목을 끌고 있는 영화 '동승'은 특히 수려한 자연경관과 사찰을 철저히 자연광에 의해 촬영해 산사의 사계절을 자연 그대로의 신비로움과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겠다는 것이 제작진의 의도다. 또 섬세한 영상을 통해 한국의 색과 정서를 마음껏 보여주겠다는 의욕에 차있다.

불자 연극배우 전무송씨를 비롯해 고정일, 김태진, 오영수 등이 출연하는 이영화는 주연 배우 외에도 영화에 출연할 108명의 동자와 108명의 보살을 공개 모집하고 있어 화제다. 또 제작에 참여할 108명 주주들의 손길도 기다리고 있다.

광주항쟁을 소재로한 영화 '부활의 노래'를 제작했던 주경중감독은 "3년동안 전국의 1백여 사찰을 돌아본 후 안동 봉정사와 순천 선암사를 최적의 촬영 장소로 결정했다"며 "사찰의 수려한 경관을 최대한 살려 연극에서 보여주지 못한 부분을 영상을 통해 아름답게 보여 주겠다"고 말했다.

영화 '동승'은 12월까지 촬영을 마치고 호주에서의 후반 편집 작업을 거쳐 내년 부처님 오신날 개봉할 예정이다. (02)929-1070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좇아 고행을 떠나는 영화 '동승'이 촬영에 들어갔다. 내년 초파일 개봉예정.

인터뷰

티벳 최고탕카화가 상게에시 스님

"탕카는 명상의 산물이죠"



"티벳불교의 탕카(Thanka)는 예배의 대상입니다. 탕카를 보며 '예술품' '문화재' 등을 운운하는 것은 삿된 분별심이죠."

한국의 불화를 직접 보고자 10월18일 방한한 티벳 최고의 탕카화가 상게에시(76 · 겔룩파) 스님은 티벳불교 전문박물관인 화정박물관에서 관람객들에게 탕카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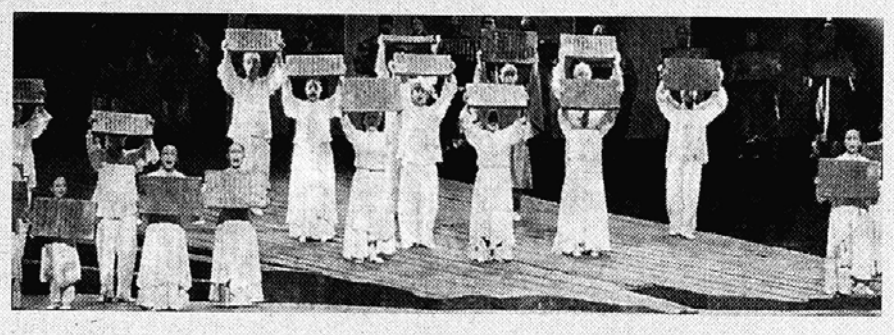
1959년 달라이 라마와 함께 인도 망명을 결행했던 스님은 이듬해 인도 다람살라에 '왕립 티벳전통전수원'을 개원하고 지금까지 수백여명의 탕카 화가를 길러낸 인물.

"탕카는 명상의 산물로 볼 수 있습니다. 명상에 몰입한 고대의 스님들이 친견한 신(神)의 모습을 야크의 가죽에 그린게 탕카의 기원이죠. 이 탕카들이 아시아 불교국가에 전해지면서 또다른 불화(佛畵)들이 생겨났습니다"

'탱화'는 티벳어 '탕카'의 한역 음으로, 탱화가 티벳에서 전해졌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단서이다. 티벳, 일본, 중국등 외국의 학자들은 티벳 화승들로부터 고려에 탱화가 전해졌다는 추정을 하고 있다.

상게에서 스님의 이번 방한은 한국의 불화를 열람하고 티벳의 탕카와 한국의 탱화 사이의 관계를 체득하기 위함이다. 스님은 "18일까지 한국인 제자 기산스님과 함께 한국의 전통사찰에 소장된 불화를 보러 다닐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8~14일 예술의 전당
뮤지컬 '팔만대장경'

불법(佛法)에 의지해 나라를 지키려는 호국 의지와 고려 여성의 강인하고도 깊은 희생 정신이 팔만대장경 조판에 큰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를 대서사시로 꾸민 뮤지컬 '팔만대장경'(김의경작 · 이종훈연출)이 8일부터 14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공연된다. 소프라노 김원정씨를 비롯해 바리톤 여연구 등 50여명의 성악가가 출연하는 이 뮤지컬은 클래식 작곡가 김선하씨가 쓴 곡을 미국 브로드웨이 출신 음악가 조지프 베이커가 편곡해 동서양 음악의 진수를 맛보게 한다. (본지 238호 7면 참조)

극단측은 2000~2003년 일본 아르헨티나 영국 프랑스 미국 등 10여개국 해외공연계획도 세워놓고 있다.(02)762-6194

안산시민 불교예술제 열린다

11일 영산재로 시작 성대한 잔치될듯



◇일운스님



◇지허스님



◇일로스님

불교 종파를 초월한 예술제인 '제4회 안산시민을 위한 불교예술제'가 오는 11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 열린다.

안산불교연합회(회장 지허 · 천수사)가 주최하는 불교예술제는 안산 소재 15개 사찰,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후 7시 일운스님(봉원사 ·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전수교육보조자)의 영산재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이어 국악인 김성녀씨의 사회와 안산시립국악단의 반주로 '염불'(최수정), '방아타령'(안산경기민요합창단), '휘가로의 결혼식 서곡' '홀로피는 연꽃' '산촌'(안산시립합창단) 등의 축하공연이 진행된다. 또 태고종 승가단체인 백진결사(회장 일로스님)의 공연을 비롯 안산불교연합회, 화계사합창단의 합창과 시명스님의 무대도 화려하게 펼쳐진다.

안산불교연합회장 지허스님은 "불교예술제를 통해 경제 침체로 위축된 시민들의 기운을 돋우고 화합을 도모하며, 일반인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심과 평상심을 심어주는 포교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안산시의 인구는 56만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사찰수는 20여개에 불과하다. 또 젊은층이 밀집돼 있어 유독 기독교세가 우세해 이번 예술제가 불교에 대한 관심을 드높일 좋은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안산불교연합회는 이번 예술제 성료를 위해 각 사찰 우바이 · 우바새로 구성된 안산불교후원협의회를 결성하고, 안산시(시장 박성규)에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다. (0345)406-6601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종교예술제의 '종교화합'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대표의장 지덕) 주최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종교예술제'가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민족종교등이 참여한 가운데 2일 예술의전당에서 성료됐다.

미술제 · 음악제 · 영화제 · 학술세미나등 네 부문으로 진행된 이번 예술제에서 불교는 오경환씨의 '천공' 등 회화 25점, 영화 '오세암', 국악인 윤소인씨의 가야금 병창 '연꽃 향기 누리 가득히' 등을 선보였다. 또 도법스님(실상사 주지)이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학술세미나에서 '전통사상과 한국종교' '새 천년 새문화 창조와 종교인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했다. 사진은 10월26일 열린 종교미술제 개막식에서 원택 · 인곡 · 운덕스님 등 불교계 대표들과 박지원문화부장관이 테이프 커팅하는 모습.

문화 단신

강화 선원사터서 탄생불 발굴

강화 선원면 선원사터(사적 제259호)에서 부처님이 탄생하는 모습을 본뜬 '소형 탄생불'이 발굴됐다. 동국대박물관(관장 장충식)은 10월 26일 지도위원회 회의를 갖고 높이 8.2cm, 폭 3.5cm 소형 탄생불, 산스크리트어 무늬를 새긴 막새등을 공개했다. 동국대박물관은 △전형적인 사찰 건물 배치양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금당지로 추정되는 곳이 발굴됐고 △연화문 막새류와 범자문 막새같은 유물의 성격 등을 볼 때 이곳이 선원사터임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곳이 임시궁궐이라는 주장 또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불교문인협 동인지 '녹야원'

대구불교문인협회(회장 백기광)가 동인지 〈녹야촌〉(제3호)을 발간했다. 지난 5월 갑작스레 타계한 수필가 심조섭씨의 문학세계를 집중 조명한 이번호에는 심씨의 유고수필 '파밭 한 골 매면서' '유언'과 함께 강호선의 추모시 '꽃은 피어서 어디로', 김미영의 '그리워하며', 임병기의 '마흔길 가시난 뜻', 김기하의 '경포대 해수욕장의 모래알' 등이 수록됐다. 또 최정석의 '문학의 사명을 생각한다'와 지준모의 '대각국사의 시 문학적 교류와 작품 편린' 등도 소개됐다.

통일서예대전 수상작 발표

민족의 통일과 종교인의 화합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조국평화통일불교협의회 주최 제3회 대한민국통일서예 공모전에서 임경(교사)씨의 문인화 '묵국(墨菊)'이 '국무총리상(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문, 추사체, 한글, 문인화, 전각 등의 분야에서 총 1천338점이 출품된 이번 서예대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묵국'은 역경을 이겨내는 국화의 모습에서 우리 가슴에 응어리진 분단의 아픔을 다스린다는 모티브로 형상화 시켰다. 이외에도 최우수상에 송인도(문화관광부장관상), 유연욱 · 정애영 · 김양숙 · 은희백(통일부장관상), 은성옥 · 이병혁 · 송종관 · 김상숙(행정자치부장관상) 등이 선정됐고, 우수상 17명 특별상 5명 특선 123명 입선 343명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작은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되며, 시상식은 18일 오후 2시. (02)736-4846

삼 · 부 · 농 · 산 · 은 · 유 · 기 · 재 · 배 · 약 · 초 · 만 · 을 · 생 · 산 · 하 · 고 · 있 · 습 · 니 · 다

자연은 거짓이 없습니다!

무병장수를 바라는 마음 황토삼백초에 의지하십시오…



황토삼백초 건초

신묘장구대다라니 150만 독을 지송하고
찾아낸 약초 황토삼백초®…
7년을 정성들여 생산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대신주 위신력은 마른 나무 가지에 싹이나서 열매가 열리게하거늘 하물며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일체 끊고는 이 다라니로 고치지 못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라니와 더불어 유기재배한 약초로 효과가 뛰어 나도록 하였습니다.

삼백초의 놀라운 성분들

황토삼백초에는, '수용성 탄닌', 플라본계 물질, 유효 미네랄, 필수 아미노산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피를 맑게하여 혈행을 돕고 모세혈관을 보호하며, 강력한 이뇨작용으로 체액순환과 해독작용을하고 위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또 장의 연동력으로 숙변등 몸안의 노폐물을 신속히 제거하고 변비를 없애줍니다.



大悟居士(김봉서 원장)

이런분들한테 좋습니다.

- 항상 머리가 개운치 않고 의욕이 없으신 분
-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
- 간이나 당뇨 혹은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
- 속이 편치 않으신 분
- 통변이 시원치 못하신 분
- 피부미용과 여성질환으로 고민하시는 분
- 식수공해가 걱정되시는 분
- 팔다리가 아프신 분

차나 숭늉처럼 드시고 자주 많이 드셔도 좋습니다. 황토삼백초는 믿을 수 있습니다. 손님 접대나 선물용으로 도 좋습니다.

97.11.6 / 99.9.2 'MBC-TV 고향은 지금'
99.9.24 KBS-TV '6시 내고향'
99.7.10 SBS-TV '모닝와이드' 방영

삼부농산 SAM BU Farrm

경남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63
0598-945-0075~7
http://www.teafarm.com

하루에 한번만 켜주시면 경내에(가정에) 온종일
부처님의 경전말씀이 은은하게 울려퍼집니다.

인켈 inkel 이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이 불경대전집CD는 인켈이 세계최초로 개발한 데이터압축기술로 제작되어 일반 CD 30~40장 분량이 한장에 수록되므로 인켈 압축CD플레이에서만 재생됩니다.

▶ 이 한 장에 56가지 경전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총27시간 07분)

1. 천수경(14분 05초) 2. 장엄염불(20분24초)
3. 아미타경(13분38초) 4. 화엄경 약찬게(16분 18초)
5. 반야심경(2분 49초) 6. 고왕경(5분41초)
7. 목탁성(5분 19초) 8. 법성게(2분 49초)
9. 무상게(4분 51초) 10. 관음정진(10분02초)
11. 금강경(33분15초) 12. 반회심곡(13분07초)
13. 천수경(18분24초)… 35. 우리말아미타경(27분51초)
36. 우리말 반야심경(4분00초)… 55. 회심곡(9분06초)
56. 탑돌이(8분05초)까지 불자님이 가장 많이 찾고 접하는 56가지 경전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듣고 싶은 경전번호만 누르면 말씀이 바로 시작됩니다.
예)반야심경 5번 천수경13번
① 번천수경부터 56. 번 탑돌이까지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 보급처 : 법운 홍법회
서울시 관악구 봉천7동 32번지



인켈 압축CD플레이어
GOOD DESIGN 통상산업부선정

· 규격: W×D×H (26×18×65cm)
· 가격: 불경대전집 + 압축CD플레이어 = 280,000원
※스피커는 별매입니다.

인켈에서 세계특허를 획득한 첨단오디오로 일반 CD와 FM방송도 들을 수 있습니다.

♣ 듣고싶은 경전만 반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 56가지 경전을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 경내나 가정에 있는 오디오에 연결하시면 더욱 웅장한 소리로 경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품의 품질 및 A/S는 인켈에서 보증합니다.

구입 문의 080-900-0101 032-343-2267

■주문방법 : 전화 및 팩스 등으로 구매하실 상품의 가격을 확인 후 입금하시면 상품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신용카드 할부가능)
■배달방법 : 입금 확인후 택배/오토바이/고속/직배 등을 이용하여 5일이내 가정까지 배달하여 드립니다. ■입금계좌번호 : 서울은행 51304-6100001 (예금주 이희숙)

제자들의 스승 회고 잔잔한 감동

성준화상 열반 22주기 맞아 '…목우록' 펴내




◇적조암에서 경산스님과 함께 자리한 성준화상(우).

'제대로 된 중노릇' 강조
청정교단 · 승풍 확립 나서
현재 난국 헤쳐나갈 '師表'

"호랑이처럼 무서울 정도로 제자들을 가르칠 때는 엄했지만 속정은 깊었다. 작은 일 한가지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어야 직성이 풀릴 정도로 '중노릇'의 표본을 보이셨다." "말로만 도(道)를 강조하기보다는 일상생활을 통해 실천해 보임으로써 도 닦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 "스님에 대한 느낌은 엄격함이고 수행의 철저함이다. 특히 삼보정재에 대한 스님의 관념은 병적일 정도로 철저했다."

계율, 수행, 승풍확립에 철저했던 스승에 대한 제자들의 회고와 법어를 정리한 유고집이 현 조계종단의 내분속에서 잔잔한 감동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정화육비구'의 선봉장으로 '설악산 호랑이'란 별명을 갖고 있는 성준화상(1932~1977 · 법명 성각, 자호 정호)이 바로 감동의 진원지.

성준화상문도회(대표 무산)는 열반 22주기를 맞아 유고집 〈성준화상목우록〉(불교시대사 刊)을 내놓았다. 선의 요체, 올바른 중노릇, 재가불자의 올바른 신행 등 생전에 제자들과 신도들을 향해 거침없이 일갈한 법문이 수록된 이 유고집은 최근 종단사태와 맞물려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성준화상은 철저한 선사이며, 엄격한 율사이며, 훌륭한 지도자였다고 제자들은 입을 모은다. 스님의 최대 원력은 청정교단 회복과 승풍확립이었다. 평생 '제대로 된 중노릇'을 강조한 스님은 자신을 엄격하게 다룸으로써 제자들을 이끌고자 했다. 출가하면서부터 지계가 청정해야 교단이 바로선다고 굳게 믿었던 스님은 승단의 전통과 계율을 지키는 일에 매우 엄격했다.

대중이 3명밖에 안돼 밥상을 차려놓고 공양을 하려는 순간 출타하고 돌아온 스님이 3명 이상이면 승가를 이루는 것이니 발우를 펴야 한다고 했던 일, 속초까지 교통비가 왕복 90원인데 100원의 청구서를 올렸다고 세번 반려 끝에 결국 차액 10원을 더 물어야 했던 일, 점심값이 없다고 하자 김밥을 싸가지고 가라고 했던 일 등 제자들이 말하는 수행의 본분사에 대한 수많은 일화가 이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성준화상은 수행과 가람수호에도 남다른 원력을 보였다. 입적할 때까지 주지나 종단소임을 맡으면서도 입선(入禪)의 시간을 갖지 않은 적이 없다. 오히려 선방에서 정진하지 않는 것에 비례해 더 철저하게 자신을 다그치는 가행정진을 했다. 또 '신행의 전당이 바로 서야 수행과 포교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신명을 가진 스님은 가람수호에 적극적이었다.

성준화상은 20세기 중반 불거진 대처승 정화운동 당시 '정화육비구'의 선봉장이었다. 선암사 석암스님으로부터 "승단은 청정계율을 생명으로 한다. …수행자들이 갈 곳이 없다면 이 나라 불교는 망하고 만다"라는 소참법문을 듣고 정화의 불길 속으로 뛰어든 스님은 '정법의 수호자'가 되기 위해 육신도 아끼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결에 항의하며 사법사상 초유의 '대법원 할복사건(60년 11월 24일)'을 강행할 정도. 스님의 이러한 의지는 불교운동의 참뜻을 계승하고 청정한 화합의 승단을 이루기 위해 영축회를 창립하면서 직접 쓴 선언문에 잘 나타나 있다.

현재 교계의 내분 상황에서 가장 치열한 화두는 '승풍확립과 화합'일 것이다. 시대적 소용돌이 속에서 청정교단의 회복과 승풍확립을 위해 계행, 수행, 전법, 가람수호 등에 남다른 정열과 의지를 토해낸 성준화상의 행장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이 책은 현 교계 난국을 헤쳐나가는 사표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불자 62명이 말하는 '아! 나의 어머니'

연꽃마을 '어머니와 나' 출간



"딸을 위해 부처님께 천번 만번 7년동안 끊임없이 기도하시던 분, 부지런함과 자립을 강조하시고 실천하신 분, 부처님의 실천으로 더 없는 큰 가르침을 주신 분, 노래하는 아들위해 전국 사찰을 다니시며 연등을 달아주시던 어머니….

법성스님(성라원 이사장) · 민병천총장(서경대) · 서돈각 이사장(대한불교진흥원) · 김홍국씨(가수) 등이 말하는 어머니 모습이다.

〈어머니와 나〉(연꽃마을 刊)는 서돈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을 비롯 62명의 가슴속에 선명히 각인돼 있는 어머니와의 옛 추억과 사무침이 진솔하고 감동적으로 녹아 있다.

이 책을 읽다보면 가슴이 아련해오기도 하고 푸근한 미소를 자아내게 한다.

노인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연꽃마을에서 '노인 모시는 사회 구현'을 위한 대국민 계몽운동을 전개할 목적으로 지난 4년 여동안 연꽃마을 신문에 연재해 온 내용으로 '99 세계 노인의 해에 맞춰 단행본으로 발간했다.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스님은 "이 책을 통해 소외된 모든 어머니에게 따뜻한 손길을 나눌 수 있는 이웃이 되어 '효의 사회화'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길 서원한다"고 출간의의를 밝혔다. 값 7천원.

새로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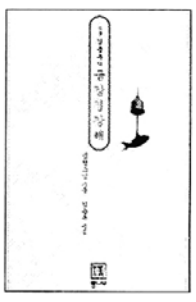
▲당신의 뜻이라면 지옥인들 못 가리오(동봉스님 지음)= 정치의 부패상, 돈과 권력 등 부정을 일삼고 있는 일부 단체나 종단의 비리를 비롯 점차 훼손돼 가고 있는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등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사회문제들을 비판하고 있다. 물론 해결책도 제시한다. 경남 진주 여래원 동봉스님이 쓴 이 책은 자칫 지루하기 쉬운 설법위주의 딱딱한 내용을 구도자의 길에서 환속의 길을 선택한 어느 수행자의 이야기 등 현실 세계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일화들을 접목시켜 부드럽게 풀어간다. 다모아 刊. 값 7천5백원.



▲먹물옷에 감춰진 이야기(정만스님 지음)= 출가수행자들이 먹물옷을 입고 정진하는 것은 다생으로 익혀왔던 오욕의 습을 버리고 내면 혹은 외부로부터의 유혹과 갈등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먹물옷 속에 감추어진 삶이 참되고 진실된 삶이라는 정만스님의 구도에세이. 때론 가랑잎처럼, 때론 굵은 빗줄기 처럼, 마음을 두드리는 이 에세이는 수행자 특유의 향기가 배어난다. '연기와 법리' '먹물옷 속에 감춰진 이야기들' '업과 접신' 3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마음의 상, 보살은 가까운 벗, 인연의 끈, 수행자의 마음 등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와 일상적인 주제들을 감동있게 풀이하고 있다. 우리출판사 刊. 값 7천원.



▲평상심(정희돈 지음)= 평생 후학양성의 길을 걸어온 정희돈 교수(62 · 영남대 자연자원대학)가 들려주는 참된 삶에 관한 소박한 이야기를 담은 산문집. 철없이 놀기만 했던 초등학교 시절, 가정 불화, 훌륭한 농촌지도자가 되겠다고 생각했던 순진함, 함석현 · 유달영 · 간디 · 타고르 그리고 사르트르와 실존주의 등으로 인하여 인생의 또다른 가치가 있음을 발견한 대학시절 등의 추억들이다. 대추를 따면서, 법당을 돌며,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다음에 등 모두 3장으로 구성. 2장 법당 뒤를 돌며 편에는 '평상심' '나의 머리밭에 있는 불경' '불교와 생명' '부처님 거울에 비친 불자교수' 등을 주제로 저자의 돈독한 신심과 소중한 삶의 진리가 녹아 있다. 거리문학제 刊. 값 7천원.



■ 도올 김용옥 박사 '금강경 강해'

체험적 해설로 푼 금강경

대승불교 최고의 경전으로 가장 널리 읽히고 있는 〈금강경〉을 독창적 사상가인 도올 김용옥씨(도올서원 강주)가 새롭게 강론하여 해석했다.

신간 〈도올 김용옥의 금강경 강해〉(통나무 刊)는 저자의 해박한 불교교리와 사상사의 흐름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반야사상의 학자인 에드워드 콘체의 주석을 참고하여 명료하고 통찰력 있는 강해가 펼쳐지고 있다.

이 책의 특징은 가장 완결된 형태의 해인사 〈고려대장경〉 판본의 구마라집본을 저본으로 한 정확한 판본과 치밀한 주석, 그리고 고풍스런 우리말을 사용하여 마음에 와 닿는 체험적 해설을 했다는 점이다.

한편 도올 김용옥박사는 지난 10월 24일 화계사 대웅전에서 국제선원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2천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특별법회에서 '〈반야심경〉과 〈금강경〉을 말한다'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 자리에서 김박사는 "새 천년을 앞두고 우리는 대승정신으로 돌아가야 하며 삶의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는 지금 대승정신의 출발은 반야이며 곧 금강의 지혜이다"고 역설했다. 강연후 신간 〈금강경 강해〉 사인회를 가졌다. 값 9천8백원.

〈최경수 명예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역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 · 편자	출 판 사
1	풍경	원 성	이 레
2	영가천도	우 룡	효 림
3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4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일 타	불교시대사
5	죽음을 준비합시다	현 장	우 리
6	티베트에서 온 행복의 열쇠	주 민 환	정 우 사
7	방편개시	대 성	여시아문
8	달라이라마 예수를 말하다	류 시 화	나무심는사람
9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법	화 암	여 래
10	달라이라마가 설법한…	이 창 호	정 우 사

구입문의:(02)737-0695

화제의 책

선학과 현학 | 김진무 옮김

선학과 현학의 공통점과 다른점



중국 역사에서 위진시대 약 1백여 년간 흥성한 현학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사상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운주사 선학총서 두번 째권인 〈선학과 현학〉(김진무 역)은 선학과 현학이라는 두가지 주제를 사상사적 서술과 비교철학적 방법으로 연구한 결과물이다. 선학과 현학의 원류, 특징, 같은 점과 다른 점 및 상호융섭과 침투 등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값 1만2천원.

화제의 책

선의 향기 | 장회남 옮김

문학적 향취지닌 선문답 100가지



달마스님이 동쪽으로 건너와 우리에게 전해준 깨달음의 불씨는 무엇이였을까. 지혜를 구하는 제자의 물음에 버럭 호통을 지르고만 임제스님의 속내는 무엇일까. 〈선의 향기〉(씨앗을 뿌리는 사람 刊)는 달마이후 1500여 년에 걸쳐 전해온 맑은 문학적 향취를 지닌 선문답 100가지를 쉽고 간결한 풀이와 함께 소개한 책이다. 각 구절의 뜻과 통하는 선문답의 본래 의미를 선사들의 일화나 일례를 통해 풀이하고 있다. 값 7천5백원.

화제의 책

신라보살계 사상사 연구 | 최원식 지음

보살계 사상이 신라에 미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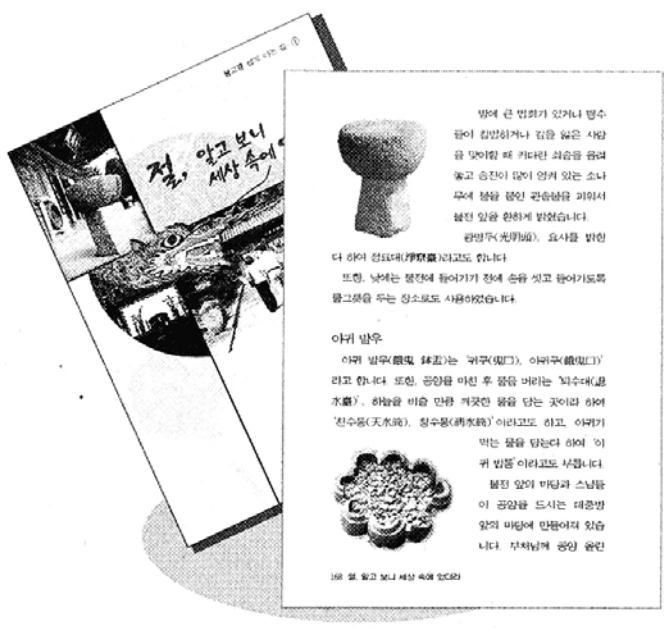


〈신라보살계 사상사 연구〉(민족사 刊)는 신라사회에 보살계가 수용 · 유포된 경위와 신라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조명한 故 최원식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범망보살계에 관한 것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이 책은 보살계 사상이 재가신도 확산, 왕권 합리화 및 선정(善政) 유도, 민중들의 평등의식 고양, 유 · 불간의 대립 또는 갈등 환화 해소 등의 역할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값 1만3천원.

신간

절, 알고 보니 세상 속에 있더라



성재도 글/사진 신국판 220쪽 / 값 5,000원

글쓴이 성재도는 1988년에 부산불교교육원을 개원하여 시민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교문화를 쉽게 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부산불교교육원을 운영하면서 느낀 점, 우리 문화기행의 답사교육을 통하여 절에 갈 때 이 정도만 알고 가면 좋겠다 싶은 내용을 엮었습니다.
절에서 만나는 돌 하나, 건물 하나, 그림 하나에 담긴 뜻을 150여장의 사진과 함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전하고 싶었습니다.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도 알 수 있도록 쉬운 글로 표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귀로 듣고 얻는 것은 눈으로 보고 얻는 것보다 넓지 못하고
눈으로 보고 얻는 것은 마음으로 깨달아 얻는 것보다 깊지 못하다.
-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장 정련스님 추천사 중에서

월간 날마다 좋은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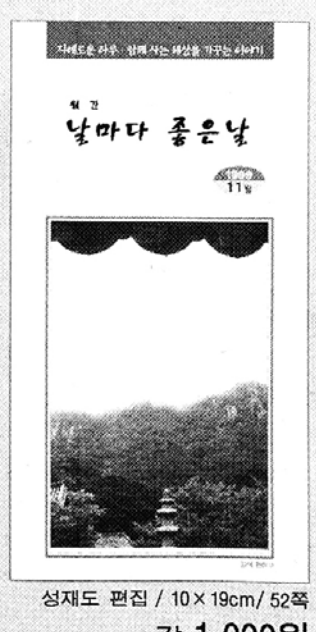
날마다 좋은날은 …

날마다 좋은날은
주머니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날마다 좋은날은
지혜로운 하루·함께 사는 세상을
가꾸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은
함께 살아가는
벗님(도반)들과 더불어
마음에 새기고 싶은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부처님과 옛 스님들께서
남기신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
삶을 가꾸는 이야기들을
쉽게 풀어서 전하는
월간지입니다.



성재도 편집 / 10×19cm/ 52쪽
값 1,000원
(1년 정기구독 : 10,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하여 드립니다.

도서출판 날마다 좋은날 대표전화 : 051-466-4080 전송 : 051-466-4079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2동 43-4번지

■ 교수불자련 '한국불교 정보화의 과제' 학술대회

"전자망이 절이어야 한다" 이동한 교수
"전문가 협의체 구성해야" 조원희 실장
"불교교육 정보인프라 구축" 고진호 교수


◇이동한 교수


◇고진호 교수


◇조원희 실장

기독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불교계 사이트 수에서 알 수 있듯 그등안 관심밖에 밀려나있던 한국불교 정보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제시될 전망이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이준)는 '한국불교 정보화의 과제'를 주제로 6일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기조발제-이동한 교수(충북대): 정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고자 하는 불교의 본질 천명의 바탕위에 정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대는 정보를 절대시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정보무명이며 정보무명을 벗겨주는 작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일이 긴요한 문제다. 전자망을 구성할 때 전자망은 절이어야 한다. 정보화라는 수단을 활용하여 불교를 본궤도에 올려놓는 작업이 바로 '금강기술(金剛技術)'이다. 즉 전자망의 개발, 정보기술의 연구, 사찰이나 조직관리기술, 생명공학기술 등을 불교적 사유로서 대생명계의 질서에 조화될 수 있도록 올바르게 발전 지원하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금강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불교계가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커다란 보시의 하나이다. 한국 불교의 정보화는 금강기술이 그 기반이 돼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보편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불교계는 종교적 교리가 과학적 사실과 모순되지 않도록 새로운 차원에서의 교리 검토 작업을 거쳐 정보화해야 함과 동시에 철저히 현재진행형인 불교의 정보화 작업은 활선일체(活禪一體)를 목표로 해야한다는 것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포교의 정보화-조원희 실장(현대불교 부다피아전략정보실): 정보화의 관점에서 본 포교는 정보를 잘 모아 이를 널리 알리고 방대한 자료를 대중의 필요에 맞게 분별해 해설하는 것이다. 정보화의 대표적 특징인 공동체 형성은 부처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한다. 불교계에서는 한자를 컴퓨터상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 관리를 위한 분류방식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한자문제나 데이터베이스화에 필요한 정보 분류 방식에 대한 논의는 불교계 전체의 관심 분야이며 단결된 대응이 필요한 분야이다. 공생 공용 공식의 부처님 가트침 아래 기존 단체의 연합 성격을 띤 불교 정보화를 위한 전문가 집단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포교를 위해 가상 선원을 꾸며 큰스님의 법문을 듣고 염불을 들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불교 정보화를 위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한자 문제는 현재 사용중인 워드나 유니코드 방식을 통일하든지 보다 효율적인 방법 개발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관심을 요구한다. 불교정보화의 토대마련을 위해 기술적 사항의 협의, 홍보,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불교교육의 정보화-고진호 교수(동국대): 불교교육의 정보화는 불교교육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불교교육의 정보인프라의 구축을 전제로 한다. 불교교육에 있어서도 첨단 미디어의 활용이 정보화에 따른 중요한 과제이다. 불교교육에서 정보매체의 제작과 활용은 교사와 학생 간에 지식을 공유하고 변환하며 창조적으로 생성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불교교육에 있어서 하이퍼 미디어의 사용은 메시지 전달자로서의 교사아 메시지 피전달자로서의 교사/학생이 이분법적 패러다임을 타파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불교교육에서의 하이퍼 미디어는 교사와 학생이 정보 네트워크 속에서 벌어지는 진리의 게임에 공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교사와 학생 상호간의 교호작용(交互作用)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제공할 수 있다. 불교교육에 있어서 하이퍼 미디어의 적용을 위한 과제는 불교교육 정보망 구축을 위한 작업, 매체의 효과성을 고려한 교수설계, 정보공간의 적극적인 활용방법 검토 등이다.

이밖에 허인섭 박사(고려대장경연구소)가 '경전의 정보화'를, 도원스님(천대종 교육부장)이 '불교전체조직의 정보화'를 발표한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아우카나 트러스트

영국불자들의 '생활보시와 禪' 소개
채식요리법 · 불교음악 등 서비스

인터넷 사이트 아우카나 트러스트(The Aukana Trust, 이하 아우카나)를 방문하면 영국의 불자들이 추구하는 '생활 보시와 선(禪)'의 실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아우카나는 30여년간 '부처님의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온 앨런 제임스가 80년에 설립했다. 현재 회원 32만명이 넘는 거대한 불교자선단체로 발돋움한 이 단체는 영국의 웰셔 지역에 선(禪)센터 그리고 비구 사찰과 비구니 사찰 2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아우카나의 ▲수행법과 영국인 불자들의 ▲보시행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아우카나의 수행법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모든 불교적 의식과 문화적 부착물을 배제한 상태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운다는 것이다.

이 단체의 설립자 앨런 제임스는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 대한 방법이 어떤 면에서는 현대 서구사회와 이상적으로 부합하는 것처럼 보았기 때문이다.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필집 〈깨달음〉에서 앨런은 "부처님 당시처럼 불교진리에 대한 헌신적인 태도가 마침내 깨달음의 길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아우카나의 수행법은 기본적으로 계·정·혜 삼학에 근거한 전통 불교 수행인 남방 상좌부불교의 참선을 권장하는 한편 현대사회·문화적 조건들을 수용하는 새로운 소수 계율도 채택,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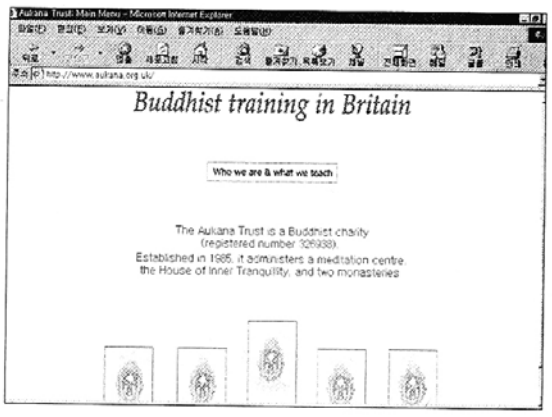
이외에도 아우카나는 전통적인 계율체계만을 고수하고 있는 불교의 다른 종파와는 달리 비구·비구니 스님 모두 동일한 계율항목을 수지하고 있다. 또 불자들이 스님들을 철저하게 옹호하며 극진히 대접하도록 가르치고 있어, 스님들은 사회적 여건에서 오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집중된 마음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한다. 아우카나의 스님들은 하루 5시간 동안의 좌선, 정원가꾸기, 요리, 강연과 같은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영국불교계의 사회단체, 경전전산, 불교계 뉴스, 사찰소개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영국인 불자들 사이에 유행하는 불교도서·불교음악 등을 읽고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도 개설됐다. 특히 '불교도서' 서비스에서는 총 12권의 내용을 요약한 텍스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데, 다운로딩(가져오기) 서비스도 제공한다. 불교도서 가운데 아우카나에서 매월 발행하는 〈아우카나〉에서는 영국의 불교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각 불교종파의 불교사상에 대한 간략한 자료를 얻을 수도 있다.

또 채식주의자를 위해 냉국수를 비롯해 9가지 채식에 관련된 요리법을 세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으며,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티벳·일본·중국불교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http://www.aukana.org.uk/



"수많은 민족시련 미륵신앙으로 극복"

미륵사상연구협 학술대회

미륵사상이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한국사회에 끼친 영향을 집중 조명한 제2회 미륵사상학술대회가 10월26일 미륵사상연구협의회(사무총장 김창배) 주최로 열렸다.

기조발표를 맡은 윤이흠 교수(서울대)는 '미륵사상이 한국문화사에 지닌 의미'에서 "한국의 종교사와 관계된 미래대망 사상은 미륵, 개벽, 종말론이다"며 "한국역사에 나타나는 미륵은 고전·수구·자칭·토속·개벽미륵의 다섯가지 유형"이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미래불인 미륵이 한국의 학문적 연구나 종교적 실천에 있어서는 과거불인 수구미륵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민족이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민족종교지도자들은 미륵의 이름으로 후천개벽의 주인공이 한민족이라는 확신을 심어줌으로써 당면한 역사적 시련을 극복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한국미륵사상의 흐름과 그 전망'을 발표한 이경우 원장(한국새종교연구원)은 "미륵상생의 도솔천이나 미륵하생의 용화세계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그 정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미륵사상은 공동의 선(善)으로 썩어가고 죽어가는 인간과 사회를 살려 인간정토 사회정토를 구현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홍범초 교수(공주대)가 '한국의 미륵신앙으로 본 유토피아 건설'을, 황선명 교수(명지전문대)가 '민중문화로서의 미륵신앙'을, 신수현 연구위원(미륵사상연구협의회)이 '한민족의 정체성과 미륵사상'을 발표했다.

"선불교 정신으로 현대인 주체성 회복"

능인불교연구소 창립기념 학술세미나
신규탁 교수 '선과 정토신행' 발표

능인불교연구소(소장 지광스님)는 10월28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립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신규탁 교수(연세대)는 '선과 정토신행'에서 자력신앙과 타력신앙으로 대조되면서도 선정쌍수(禪淨雙修)의 구호에서처럼 한 곳에 결합되어 온 이 두가지 불교 신행의 이념적 실제적 관계를 규명했다. 특히 간화선의 경우 당나라 선불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선수행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후 사가들에 의해 마치 당나라 선사들도 그렇게 수행했듯이 알려진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당나라의 선사들은 선불교의 깨달음이 고정돼 있지 않고 개인의 주체적 노력에 의해 깨달아지는 것이기에 부처님을 비롯한 남의 체험을 자꾸 들여다 볼 필요없다고 설법했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현대와 같은 주체성 상실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은 이러한 당나라 선사들의 말처럼 주체적 노력으로 깨달으려는 선불교 정신에 있다고 강조했다. 선과 정토사상에 대해서도 현대적인 시각으로 선과 정토를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육조선사도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했다. 육조대사는 정토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어록에 나오는 선문답은 결코 동문서답이 아니라는 주장도 곁들였다. 어학의 문제는 문헌적인 연구와 중국어를 연구하는 학자들과의 공동연구를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는 신 교수는 선어록의 논법이 진여연기론에 입각한 불성사상과 돈오사상에 입각한 주체사상이라는 가설도 세워 눈길을 끌었다.

'불교 신행의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심재룡 교수(서울대)는 '불교의 명상수련'을 통한 간화선의 문제 위빠사나에 대한 관심 단학수련 등 불교 밖의 명상수련법 등을 비교분석했다. 정승석 교수(동국대)는 '무아윤회의 논리와 의의'에서 불교에서의 윤회와 근래에 고조돼온 전생 환생에 대한 관심을 검토했다.

강지연 기자

'사명사상의 재발견' 세미나

사명당기념사업회(회장 박권희)는 5일 '사명사상의 재발견'을 주제로 제3차 학술회의를 밀양대학교에서 개최한다. 전기호 교수(경희대)의 기조연설로 시작될 이번 학술대회에는 일본에서 3명, 중국에서 1명의 학자가 참가한다. 국내에서는 조영건 교수(경남대)가 '임란의 경제사적 배경과 사명당의 의승병', 장동표 교수(밀양대)가 '표충서원의 운명과 성격', 강동균 교수(동아대)가 '사명대사의 불교사상' 이외에도 조영록 교수(동국대), 김진경 교수(경희대) 등 모두 14명의 학자가 논문을 발표한다.

사명당기념사업회는 97년 '사명당의 생애와 사상의 조명'을, 98년에는 '임란 당시의 한중일 삼국관계'를 집중 분석한 심포지움을 개최한 바 있다.

학술단신

종교학회 추계학술발표

한국종교학회(회장 금장태)는 6일 오전9시30분 성균관대 종합강의동에서 '21세기를 향한 종교와 종교학'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발표는 '변호학, 종교학, 종교철학:21세기를 맞으면서 종교학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한다'(황필호)와 '불교학 연구의 문화배경에 대한 성찰'(이민용)이다. 불교분과(위원장 해주스님)에서는 '한국불교의 신앙행태의 변화 연구'(김응철), '서구의 불교수용'(이동휘)을 발표한다. 이밖에 한국종교분과에서 '한국수련전통의 역사와 변천'(윤이흠), '찰나적 환상과 영겁의 종속'(김진명), 인도종교분과에서 '우파니샤드와 아함경의 생천도와 해탈'(안승준), '인도에서의 밀교와 중세사회사'(이광수) 등 19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49재 및 각종 불사의 법보시용으로 가장 좋은 책





생활속의 기도법
일타 큰스님 著
불교계 최대의 베스트셀러 !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 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4×6판 / 3,500원



불자의 기본예절
일타 큰스님 著
바른 수행을 위한 불자 예절의 길잡이 !
불가(佛家)의 독특한 예절에 담긴 깊은 상징성과 깨달음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불교예절의 근본이 되는 마음가짐과 말씨, 걸음걸이와 앉음새, 합장법, 절하는 법, 법당에서의 예법, 법문 듣는 법, 세수·목욕·입측법 등 절집안의 생활예절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합니다.
4×6판 / 3,500원

영가천도
우룡큰스님 著
"스님, 영가는 어떻게 천도합니까 ?"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지세, 염불천도, 독경·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4×6판 / 3,500원

관음신앙·관음기도법
김현준 著
지혜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는 불교신앙의 필독서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관음기도법, 관음관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풀이되어 있는 이 책은 관음의 가피와 기도성취를 원하는 모든 불자들에게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4×6판 / 3,500원

육바라밀 수행법
김현준 著
행복하고 평온한 삶을 이루는 지름길
좋은 세상을 여는 보시·해탈의 주춧돌인 계율·행복의 묘약인 인욕·향상된 삶을 보장하는 정진·평화로움을 되찾는 선정·지혜의 완성 반야바라밀! 이 여섯 가지 바라밀의 정신을 깨달아 실천하면 누구나 행복과 성불을 보장받게 됩니다. 행복의 길을 찾고자 하는 불자들을 위해 이 한 권의 책을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4×6판 / 3,5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587-6612 · 팩스 : 586-9078

삼승 모두 깨달아 일승에 들라

법 화 경 (下)

경전 속의 禪 사상 39

대상에 집착 않는 실상수행 본보기
불도 이루는 길 '연꽃열매'에 비유

글쓴이



이 기 운
〈동국대 강사〉

법화삼매(addharma pu ar ka sam dhi)란 〈법화경〉의 대의인 삼승을 모아 모두 일불승에 들어가는 여래의 지견을 체득하는 선정삼매이다.

〈법화경〉은 모든 중생이 속히 불도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설하는데, 이 법은 스스로 깨달아 체득하는 것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도에 나아가는 차제행이 아닌 속히 불도를 이루는 돈각의 법이라 한다. 따라서 법화 보살은 불차제행을 닦아 번뇌를 끊지 않고 보리를 이룬다는 것이다. 법화의 일승법은 여래장이며 대승법이기 때문에 일체 중생이 부처와 다르지 않고 여래장을 지니어 반드시 안락을 이룰 것이므로 가르침을 따라 행하면 차제행으로 이승의 길을 가지 않고 번뇌를 끊지 않고서 그대로 삼매와 각종 다라니를 얻어 불도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를 비유하여 연꽃이 한꺼번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법화삼매를 행하면 많은 결과가 한꺼번에 갖추어 진다고 한다.

삼매(sam dhi)는 등지(等持)라고 하는데 마음을 평정하게 유지하는 것. '심일경성(心一境性)' 혹은 '심일단성(心一端性)'이라고 하여,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정신력을 말한다. 또 다라니(dh rani)는 총지(總持)라고 번역되며 삼매를 닦아 오랫동안 익히면 이루어지는데 제법실상의 지혜와 함께 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삼매와 다라니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승불교에서 삼매와 다라니는 정신통일하는 지(amatha)와 관(vipa yan)이 선(dhy na)과 관련되어 보살의 보편적인 실천덕목으로 되어 있다.

〈법화경〉에서 법화삼매의 선정을 설한 곳으로는 방편품 일불승의 비유인 화택삼거(火宅三車)중 대력백우거와 안락행품의 선정수행을 들 수 있다. 화택삼거란 〈법화경〉 일곱 가지 비유중 첫 번째 나오는 비유이다. 어느 장자가 불타는 집에서 놀이에 빠져 있는 아들들을 구하기 위해 이들이 가장 좋아하던 사슴의 수레, 양의 수레, 소가 끄는 수레를 각각 주겠다고 하여 일단 불타는 집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크고 힘이 센 소가 끄는 수레를 아들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다. 이 비유에서 수레는 여래의 법체를 비유하며 수레를 장식한 장엄구들은 일불승에 들기 위한 수행을 나타낸다. 여기서 수레에 깔아 놓은 고운 대자리나 붉은 베개등은 온갖 관(觀)을 닦아 선정이 이루어지면 삼매에 들고(煉) 삼매와 그 력으로 정관이 바르게 성숙하며(熏) 자재한 선정에 들어감(修)을 가리킨다. 또 안락행품에서는 신 구 의 서원(身口意誓願)안락행을 설하여 보살이 행할 바 선정의 수행을 밝히고 있다. 곧 "인욕의 경지에 머물러 부드럽고 온화하며 착하고 순하며 조급하고 성질내지 않고 마음에 공포가 없으며 대상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온갖 사물의 여실상을 관하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는다"라고 실상정관에 드는 보살이 수행하는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 외에도 상불경보살 약왕보살 관세음보살 보현보살 등도 보살행과 교화행을 펴고 법화의 법을 들은 다음 법화삼매와 다라니를 얻어 일불승에 드는 〈법화경〉 선정삼매의 모습을 설하고 있다.

불교의 실천체계는 계 정 혜(戒定慧)를 중심으로 되어 있다. 계로써 신 구 의(身口意) 삼업을 다스려 조절하며, 이렇게 계를 청정히 한 바탕에서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켜 선정을 계발하며, 선정삼매가 청정해지면 지혜가 청정해져서 지혜로써 번뇌를 끊고 보리를 성취하는 수행이다.

〈법화경〉 법화삼매 역시 계근(戒根)이 청정해지므로 여러 상서를 선정속에서 보아 법의 희열을 느끼고, 정근(定根)이 청정해져서 깊은 선정이 생겨 삼매에 들며, 혜근(慧根)이 청정해지므로써 법화삼매로 이끄는 보현보살 및 시방불을 삼매속에 뵙고 마침내 불지견을 얻어 보살정위에 들어간다. 따라서 법화삼매를 증득하므로써 〈법화경〉의 구경인 회삼귀일(會三歸一)의 법화실상을 증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과 학 산 책

보존(boson)입자



지금까지 우리는 힘을 가상입자의 작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모든 입자는 그 입자의 스핀 수에 따라 보즈 입자 혹은 페르미 입자로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입자나, 힘의 역할을 하는 가상입자가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입자나 힘의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알았다. 이 입자나 힘은 다름 아닌 같은 장(場)의 다른 표현이다. 우리는 서로 대립되는 듯이 보이는 성질이 더 근본적인 수준에서 통합되는 것을 물리학의 성공적인 이론인 양자장이론에서 확인하고 있다. 결국 달라 보이는 것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그 밑에 드러나지 않는 더 근본적인 통일성을 바라보는 불교적 수행을 하라고, 그리고 고정된 것은 없다는 것을, 물질을 이루는 근본에 대한 탐구를 하고 있는 양자장 이론이 알려주고 있다.

전통적으로 보존(boson)은 힘이라고 불리고 페르미 입자는 입자라고 불리지만 양자장 이론에 의해 우리는 이미 어떤 양자장, 보존 혹은 페르미 입자도 입자나 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보존이냐 페르미 입자이냐에 따라 통계적 특성이 서로 다른데 이는 스핀에 의해 결정된다. 보존은 같은 양자 상태를 점유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동조된 집합적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페르미 입자는 같은 양자 상태를 점유할 수 없는데 이는 다양성의 원인이 된다. 즉, 복잡한 원자 안의 모든 전자들이 가장 작고 안정된 궤도로 떨어지지 않고 더 큰고 복잡한 바깥 궤도를 점유하는 것은 전자가 페르미 입자이기 때문이다. 전자가 같은 상태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안쪽 궤도에서 바깥쪽 궤도를 채워나간다. 이로 인해 화학원소들이 수많은 다양성을 갖게 된다. 보존과 페미온은 각자 창조세계에서 통합하고 다양화하는 역할을 한다. 페르미 입자의 성격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화학시간을 통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기에 상대적으로 덜 다루어진 보존의 성격에 대해 알아본다.

고전적인 입자의 개념에서, 입자 1과 입자 2를 두 개의 주머니가, 주머니 나에 넣으면 [(1,2), (0)], [(1), (2)], [(2), (1)], [(0), (1,2)] 의 네 가지 경우를 얻게 된다. 여기서 [] 안에 첫 번째 ()는 주머니 가를 두 번째 ()는 주머니 나를 의미하고 각각의 ()안에 들어있는 숫자는 입자 번호이며 0은 그 주머니에 입자가 없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같은 주머니에서 두 개의 입자를 발견할 확률은 첫 번째 경우와 네 번째 경우가 되며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전체 네 가지 경우 중 두 가지 경우이므로 50%이다.

같이 모이는 성질 강한 '보즈'
레이저 · 초전도 현상 일으켜
자연계 유유상종 법칙 흡사

그러나 보즈 입자들은 서로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살펴본 확률 계산은 수정되어야만 한다. 즉, 입자 1과 입자2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전체 가능한 경우의 수는 세 가지가 되고 가능한 경우는 [(1,1), (0)], [(1), (1)], [(0), (1,1)] 가 된다. 그러므로 이 경우 같은 주머니에서 두 개의 입자를 발견할 확률은 첫 번째 경우와 세 번째 경우가 되며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전체 세 가지 경우 중 두 가지 경우가 되므로 66%이다.

기본 입자들이 같은 주머니에 있을려고 하는 경향이 50%인 고전적인 입자의 경우 보다 16%나 증가했다. 이를 같은 날개 깃을 가진 새들이 함께 모이는 유유상종하는 보존의 성향이라고 말한다. 이와 반대로 페르미 입자는 실제로 같은 상태를 점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결론적으로, 같은 보존 입자들은 같은 양자 상태를 점유하려는 통계적 경향을 보인다. 이 같은 유유상종의 통계적 경향은 레이저 빛, 초유동성, 초전도와 같은 집합적인 동조 현상을 야기한다. 레이저를 예로 들면, 레이저 빛은 일련의 흥분된 원자가 빛을 방출할 때 일어난다. 전자기장의 보즈 성격 때문에 광자들은 퍼지지 않고 한 방향으로만 날카로운 지향성을 가지고 방출된다.

조원희 〈본사 전략정보실장〉

태국 나나삼판노 스님이 쓰는

중생이 우주라지만 (20)

부처님의 자유 (2)

자유는 방종이 아니다

쾌락 방임하면 결국 자제력 잃어
생사 윤회 해탈이 진정한 참자유

법은 현대 세계가 기대하는 어떤 자유도 완벽하게 충분히 제공하겠다고 제안하고 있으므로, 자유의 지평을 더 늘리려는 인간의 열망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 간에 근본적인 합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점의 일치성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이 처음으로 법을 만나게 되면 출발점에서부터 곤혹감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자기네가 친숙해 있는 사고 방식과 상충되기 때문에, 지적으로는 모순으로 보이고, 정적으로는 장애물로 느껴지는 어떤 특수 양상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다름아니라, 법이 자유로 가는 길이며, '자유의 맛'으로 넘쳐나는 가르침이라고 들었는데, 막상 법을 따르려고 들면 자유는 커녕, 자유와는 정반대인 규율, 억제, 극기 따위의 생활상의 규제만 잔뜩 요구한다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봉착하고 있는 이 어처구니없는 논란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정말 자유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유를 줄여야 하는 것인가? 자유라는 목표가, 자유를 정면 거부하게 될 위험성을 안고 있는 방법들에 의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일견 역설처럼 보여지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두 가지 종류의 자유 즉 방종으로서의 자유와 정신적 자율로서의 자유를 분간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현대인들은 대체로 자유를 '방종'과 동일시한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유란 충동, 열정, 번덕을 마음껏 방해받지 않고 좇아다녀도 괜찮다는 '허가증'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 그는 믿는다. 자유롭기 위해서는 하고 싶은대로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고, 무슨 말이든 다 할 수 있고, 무슨 생각이든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이러한 허가증에 첨부되는 어떤 규제도 그에게는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밖에는 보여지지 않으며, 따라서 행위, 말, 생각의 절제를, 규율과 극기를 요하는 이 실용적인 섭생법이 그에게는 일종의 구속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는 결코 방종의 유(類)가 아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자유는 정신적인 자유로써, 번뇌가 가시면 곧바로 생겨나며, 무심결에 또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버릇이 없어지는 데서 그 면목을 볼 수 있고, 생사의 윤회에서 최종적으로 해탈함으로써 절정을 이루는 바 마음의 내면적 자율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정신적 수련 과정을 밟아보지 못한 보통 심리 상태의 범부들은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게 되면 그 반응으로 잠재해 있던 갈구의 성향이 튀어 나오게 된다. 즉 유쾌한 느낌을 자극해 준 그 대상을 소유하여 즐기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는 것이다. 또 범부가 고통스러운 느낌을 경험하게 되면 잠재해 있던 혐오 성향이 작용하게 되니, 고통의 원인에 대한 반감인 것이다.

그런 성향을 의식 속에 남겨둔 채 반복해서 그들에게 양보하고 인정해 주고 또 계속 애착을 지니면 그것들은 점점 자라나게 된다. 마침내는 자제력을 완전히 앗아 가기에 이르는 것이다. 그쯤 되면 누구든 간에, 그가 설사 앞에서 우리가 상정했던 남자처럼 온 지구의 제왕이라 해도, 내면에서는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자기 속의 번뇌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노예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법당낙성 3주년 기념식 및 종단 등록기념법회 (및 나한전 봉불식)

모시는 글

귀의 삼보하옵고

본사 회주스님이신 **혜인 큰스님**께서 이땅에 부처님의 성전을 건립코자 원력을 세우시고 불사를 시작한지 10여년이 넘는 동안 국내외의 신심깊은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기도원력에 힘입어 지난 96년 9월 동양 최대의 법당낙성 회향법회를 가진 뒤 만 3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큰스님께서는 불자 여러분의 온갖 정성으로 이룩한 성전을 종단에 헌납코자 98년 5월경 조계종단에 등록신청을 출원하였으나 종단사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외적 요인 등으로 인해 1년여가 넘도록 종단 등록을 못하다가 종단사태가 정리된 최근에야 종단등록 신청이 수리되어 지난 5월 종단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에 **법당낙성 3주년 기념식 및 나한전 봉불식과 어린이를 위한 공연행사**를 봉행 하오니 전국의 불자 여러분께서는 모두 동참하시어 제주 약천사에서 성불인연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나무 마하 반야바라밀

불기 2543년 10월 일

일 정

10월 22일 오후 6시

6:00 저녁예불
7~11시 법문
①철웅 큰스님
②혜국 큰스님
보살계수계: 혜인큰스님

11시 영가천도재
〈오전〉 4:00 새벽예불
6:00 아침공양
8~9시 나한전 봉불식

· 낙성 3주년 기념식 ·
10월 23일 오전 9시

기타공연

· 동국실내 국악단 연주
· 조경자씨 판소리(심청가 눈뜨는 대목)
· 김하정씨 한량무, 승무
· 약천사 어린이 사물놀이 공연
· 약천사 탐라다도회 육법공양
· 박경숙씨 "신칼대신 무"

불사 동참안내

· 영가보살계 1위 - 오천원
· 보살계수계 - 일만원
· 영가등첩수 - 일만원

송금방법

31-01-058513(제주은행)
예금주 : 약천사

대한불교 조계종 **약천사** 회주 慧印 주지 性空 합장 · 전화 064)738-5000 · 팩스 738-5022

■협력업체 : 협력업체를 이용하시면 값싸고 편하게 제주에 오실 수가 있습니다.
- 서울 선재여행사 02-582-6647~8 · 반야여행사 02-730-0020
- 부산 우진항공여행사 051-635-6333
- 대구 무궁화관광 053-423-5501~5
- 제주 대자연교통(교통편 문의처) 080-996-9999, 011-699-3348

댄스그룹 "신화"가 약천사에 옵니다.

어린이를 위한 초청공연

10월 24일 댄스그룹 '신화'
10시 30분 ▸ 공연
무료 ▸ 신화 소장품 선물 추첨
▸ 선물추첨(CD, TAPE) 100명
▸ 기념촬영(추첨)
▸ 참석자 브로마이드 증정(30,000명)

10월 31일 개그맨 강호동
11월 7일 개그맨 김경식
11월 14일 개그맨 박수림

★ 시간 - 매주 일요일 10시 30분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완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인터넷 컨텐츠판 보기실은 http://news.buddhapia.com



◇강원별 장기자랑을 보며 활짝 웃는 학인들. 앞에 본사별 팻말로 구분했지만 하나된 마음에는 너와 내가 따로 있으랴.



◇법고경연장에서 박수를 치며 응원격려하는 사미·사미니승. 티없이 해맑은 웃음에서 승가의 내일을 본다.



◇고려시대 지방화된 불상형식을 연구하는데 중요자료가 되는 파주 용미리 석불입상.

마애불을 찾아서

용미리 석불입상

머리위에 돌갓 얹힌 토속석불
고려시대 지역적 불상 연구자료

거대한 천연 암벽에 우람하게 새겨져 있는 2구의 마애불상들은 머리위에 돌갓을 얹혀놓아 토속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고려시대 석불입상이다. 전체적으로 과량감이 느껴지는 불상 중 왼쪽의 둥근 갓을 쓴 원립불은 자연적인 미소가 깃든 네모진 얼굴과 삼도가 없는 원통형의 목, 당당한 어깨를 나타내고 있으며 두손은 가슴앞에서 연화를 쥐고 있다. 양 어깨에 걸친 통견의는 양쪽으로 단계적인 새로무늬를 간결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가운데는 V자 모양을 선각하고 있는데 아래 끝쪽은 의외로 부드러우며 가슴에 보이는 띠 매듭은 장식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오른쪽의 네모난 갓을 쓴 방립불은 함장을 하고 있는 수인만 다를 뿐 세부적인 조각수법은 왼쪽의 원립불과 거의 같다. 이 불상들은 고려 선종과 원신공주의 왕자인 한산후의 탄생과 관계있는 설화가 있고 옆에 명문까지 새겨져 있어 고려시대 지방화된 불상양식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사례로 높이 평가된다.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 소재하며 보물 제 93호.

글·사진=불자포교사진연합회 제공 (011-337-7312)

'승가의 미래' 짊어진 학인들

전통강원연합 10회 전국승가학인대회

450여 학인 동참…지혜 화합 참회의 장
참된 출가 서원…행사 통해 일체감 확인

10월 26~27일 법주사서 열려

"저희 학인들이 법성의 지혜를 더욱 밝혀가게 하시옵고 진여의 위덕이 넘치게 하사 강원에서 배우고 익히는 삼장(三藏)의 금구 성언들을 한날 글자에 치우치지 않고 스스로 근기에 맞게 수행하여 모든 대중으로 회향할 수 있는 눈 푸른 승가학인으로 일심케 하옵소서."(제10회 전국승가학인대회 발원문)

불교의 희망은 아직 꺼지지 않고 있었다. 푸르른 새싹이 굳은 땅을 뚫고 솟아나듯 불교의 미래는 오히려 중중무진의 화엄세계를 기약하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전국전통강원연합(의장 덕암)이 10월 26~27일 조계종 제5교구 본사인 속리산 법주사에서 거행한 제10회 전국승가학인대회는 또다시 불거진 조계종 분규의 와중에서 오히려 더욱 청정한 승가의 미래를 확인해 본 뜻깊은 자리였다.

전국 15곳의 사미·사미니 강원(운문사는 방학관계로 불참)에서 모인 450여명의 학인들은 이 자리에서 청년 학인의 푸른 승가상에서 우러나오는 힘을 바탕으로 수행자 본연의 자세를 정립하고, 각종 문화·학술 및 체육 행사를 통해 학인 상호간의 일체감 형성과 친선을 통한 화합을 과시했다.

입제 첫째 날인 26일 오후 1시부터 거행됐다. 법주사 강원의 상락 학인이 "육화(六和)의 정신을 이어받아 화합된 승단으로 이 시대의 어두운 중생들의 길잡이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발원문을 낭독해 종단의 화합을 기원하는 학인들의 간절한 마음을 나타냈다. 이어 전강련 의장 덕암 학인의 개회사에 이은 법주사 주지 혜광스님의 환영사, 교육원장 일면스님의 치사(교육국장 견진스님 대독), 법주사 승가대 강주 혜남스님의 축사 역시 학인들이 종단의 어려움 속에서도 수행에 매진해 승가의 화합을 구현하고 대중의 사표가 되어 부처님의 구세원력(救世願力)의 실천자로서 불국토 건설의 사명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살법회 다양한 문화·체육행사로 꾸며진 학인대회가 장계합장하고 참회하는 포살법회를 포함한 것도 의미있는 일이었다. 불자들과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자괴감에 빠뜨린 종단의 분규를 학인들이 대신 참회하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보살계의 가르침에 따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흙탕물에 더럽혀 지지 않는 연꽃처럼' 참된 출가의 길로 매진하겠다'는 서원을 발한 것이다.

학술·문화행사 1년동안 강원에서 배운 지혜와 수행력을 겨루는 학인대회는 차분한 학술행사로 부터 시작됐다. 여수 석천사 주지 진옥스님의 '사회 복지 제도'에 대한 특강을 통해 미래 불교는 사회복지와 NGO(비정부기구)를 통한 대승보살도의 실현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확인했다.

문화행사는 포살법회를 비롯 법고경연, 역경대회, 서도대회, 꽃꽂이, 창불, 장기자랑 등으로 진행됐다.

법고경연(송광사 우승)은 각 강원에서 2인 1조로 5분간 법고를 치며 동작과 소리를 겨루고, 역경대회(종학사 우승)는 각 강원에서 치문·사집·사교 1명씩으로 구성해 주어진 시간내에 경을 번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꽃꽂이 전시는 종학사 봉녕사 청암사 삼선 포교원등 사미니 강원에서 각 3명이 출전, 주어진 주제로 꽃꽂이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창불은 선시 염불 발원문 출가시 기도문 등에 나름의 '멋'를 넣어 부르는 소리 경연이 되었다.

문화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법고경연과 장기자랑이었다. 법고경연 때에는 관광객들도 구경꾼으로 참여해 흥겨운 가락에 박수갈채를 보내주었으며, 장기자랑 시간에는 수준높은 연극과 노래자랑이 이어졌다. 특히 해인사의 연극 '스나이퍼'와 통도사의 '불보살의 대중공사' 등은 깊은 주제 의식과 탄탄한 구성이 돋보였다.

연극 '스나이퍼'는 중생을 지배하고 있는 무명제국에 저항하는 강원해병대와 선방공수대, 극락장로대의 활약상을 통해 탐진치에 사로잡힌 현대문명의 비극을 희화화했으며, '불보살의 대중공사'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미륵보살 제석천 등을 출연시켜 한국불교의 현실을 풍자하면서 미래 불교의 희망은 강원 학인들에게 있음을 암시하는 수준높은 연극이었다.

체육대회 법주사 잔디구장에서 펼쳐진 체육행사는 줄다리기를 비롯 사미 강원의 축구(해인사 우승) 족구 릴레이 경기와 사미니 강원의 피구 배구 발야구 탁구 등의 종목을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했다. 사미 학인들의 축구경기는 다이나믹한 함은 물론 정교한 패스 능력을 갖춰 소문대로 상당한 실력임을 보여 주었으며, 사미니 학인들은 발야구 등을 즐기며 모처럼 학창 시절의 발랄함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올해로 10번째를 맞은 승가 학인대회의 종합우승은 통도사와 청암사가 차지했다. 그러나 강원학인들의 지혜와 재주를 겨루는 이 대회의 진정한 목적은 안으로 자신을 수련하면서 완전한 인격체로서 수행자 본연의 자세를 정립하고 불법중흥의 초석이 될 것을 서원하는 눈푸른 학인들의 생동감 넘치는 대중공사였다. 행사를 주관한 전강련 의장 덕암(법주사강원) 학인은 "오늘 모인 학인들이 자금의 초발심의 자세로 수행과 포교에 매진한다면 한국불교의 미래는 밝다고 확신한다"면서 "전통 강원의 유구한 힘이 불교 종주국으로서의 한국불교의 위상제고와 중생구제의 발원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보은=글 김재경 기자·사진 고영배 기자



◇선서일여(禪書一如). 서도경연대회에서 서도삼매에 빠진 학인들.



◇법고경연장에서 법고를 두드리며 법고춤을 추는 학인. 신명난 괄놀림이 무명속에 잠자는 불성을 일깨우는 듯 하다.



◇전통 강원의 최강팀인 해인사(상의 흰옷)팀과 범어사팀과의 축구경기. 해인사가 최종 우승했다.



◇한국불교의 희망은 전통 강원에 있다고 결론을 내린 통도사 강원의 연극 '불보살의 대중공사'.

강원 내전중심 의무교육기관…16곳 학인 1천여명

강원(승가대학)은 조계종의 기본교육기관으로서 모든 사미·사미니는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기관이다. 현재 강원에서 수학하고 있는 학인은 해인사 송광사 등 사미 강원 11곳에 358명, 운문사 동화사 등 사미니 강원 5곳에 620명 등 약 1천여명에 이른다. 이는 중앙승가대(280명) 동국대(160명) 기초선원(150명)을 포함한 전체 기본교육기관 재학 학인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불교의 전통적 수행방법에 입각해 체계적인 승가교육으로 자리 잡아 온 강원은 계·정·혜(戒定慧) 3학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도제(徒弟)양성에 입각한 사자상승(師資相承)의 전통을 이어받아 내전을 중심으로 한 경학 연마와 수십 연마를 통해 참수행인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치문반 사집반 사교반 대교반 등 4년 과정으로 구분되는 교과과정은 △1년차에 〈치문〉〈수심결〉〈사십이장경〉등 교재를 통한 기초교리 및 습의, 자비관 확립 △2년차에 〈서장〉〈도서〉〈선요〉〈절요〉 등 사집과목을 통한 참선에 대한 이해 및 실참(수식관 등)수행 △3년차에 〈능엄경〉〈금강경〉〈원각경〉〈기신론〉 등 대승경전을 통한 인격 구현 △4년차는 〈화엄경〉을 위주로 한 대승보살행의 함양과 승려로서의 대중교화 자질 배양을 중점 교육목표로 정하고 있다. 각 강원별로 불교(문화)사, 외국어, 서예, 꽃꽂이, 컴퓨터 등 다양한 교양과목도 개설하고 있어 전인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행운을 간직하는 달마도의 대가
매헌(梅軒) 윤종우 선생 작품
신비의 달마도를 행운의 순금 (99.9%)카드에-
▶앞면(달마도 전신)

◀뒷면(반야심경)

한국 G &C는 수능시험을 대비하여 신비의 달마도 순금카드를 직접 공급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달마는 福을 대표하는 인물로 재당을 상징하며 TV 방영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신비스러운 기(氣)를 발산하여 수맥 및 전자파를 차단하는 등 건강과 함께 부와 명예를 불러 주는 힘이 있다고 한다. 이에 착안하여 (주)한국 지앤씨에서 신비의 기를 지닌 "달마도" 등을 행운의 "순금카드"위에 새겨서 상품화(실용신안등록 No2496호) 했다. 지갑 소지용 및 선물용으로 최적인 순금(99.9%)카드는 앞면에 달마도, 뒷면에 반야심경을 새겨 비닐압착코팅함으로서 벗어지거나 구김없이 지갑에 소지하기 쉽게 했다.
달마도 순금카드는 개인소지용으로 사업가, 수험생, 운전자, 종교인 등 선물용으로 최적상품이며 가격은 대형(5×7.5cm) 20,000원과 소형(3×5cm) 15,000원 등 크기는 두가지가 있고 대소셋트 구매시 35,000원을 특별보급가격인 30% 할인된 28,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순금판 열쇠고리는 순금판 상반신달마도 열쇠고리 1개 1만원, 3개 셋트에 2만원에 판매한다. 다량 주문시에는 가격할인은 물론 앞, 뒷면에 천하는 사진, 그림, 글씨본, 부적, 명함 등 어떠한 물산이나 색상도 크기에 관계없이 원본 그대로 제작 가능하다.
또한 최초 출시품으로 매헌 윤종우 선생님의 전신 또는 상반신을 순금(99.9%)판위에 새겨 고급형 표구액자로 최초로 한국 지앤씨에서 출시하였다.
고급 표구액자는 액자크기(27cm×33cm), 순금판크기(11×16cm) 판매가격 150,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순금카드등 구매하신 분에 한해서 특별가격인 20% 할인하여 120,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매헌 윤종우선생님의 친필원본 작품도 한정판 매한다.
본 제품은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여 제작하였으므로 더욱더 간직함에 달마의 힘이 된다. 전화주문 접수후 전국 어느곳이나 3일내 우편배달 가능함.(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 제조판매원 : 한국 지.앤.씨 (24시간 공유팩 접수가능)
⊙ 구입문의 본사 : 02)922-4804~5
◆전국판매영업점 모집 (전문 딜러shop 운영가능)
업체 판촉물로 최적상품(보험사, 자동차대리점, 고급음식점, 특수명함, 종교단체 등 다수)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수심결(修心訣) ⑮

則頓門適者 依自性門 任運亡功
즉돈문개자 의자성문 임운망공
漸門劣機 趣隨相門 對治勞功
점문열기 취수상문 대치노공
二門之機 頓漸不同 優劣皎然
이문지기 돈점부동 우열교연
云何先悟後修門中 竝釋二種耶
운하선오후수문중 병석이종야
請爲通會 令絶疑情
청위통회 영절의정

즉 돈문의 사람은 자기 성품에 따라 걸림이 없으니 노력할 것이 없고, 점문의 열등한 근기는 상을 따라서 대상에 따라 다스려야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돈문과 점문의 두 문은 서로 근기가 다르고 우열이 분명한데,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방법 가운데서 어떻게 두 가지를 아울러 말씀하십니까. 다시 잘 설명하여 의심을 풀어주십시오."

答所釋皎然 汝自生疑 隨言生解
답소석교연 여자성의 수언생해
轉生疑惑 得意忘言 不勞致詰
전생의혹 득의망언 불로치힐

로 닦아서 불도를 이루는 사람이다. 그리고 상을 따르는 방법으로 선정과 지혜를 닦는 자는 깨치기 전의 점문의 열등한 근기로서 대상을 따라 다스리는 공력으로 인해 마음마다 의혹을 끊고 고요함을 취해서 수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두 문의 수행은 돈(頓)과 점(漸)이 다르니 혼동해서는 안된다.

然悟後修門中 兼論隨相門中對治者
연오후수문중 겸론수상문중대치자
非全取漸機所行也 取其方便
비전취점기소행야 취기방편
假道托宿而已 何故於此頓門
가도탁숙이이 하고어차돈문
亦有機勝者 亦有機劣者 不可一例
역유기승자 역유기열자 불가일예
判其行李也 若煩惱淡薄 身心輕安
판기행리야 약번뇌담박 신심경안
於善離善 於惡離惡 不動
어선이선 어악이악 부동
八風 寂然三受者 依自性定慧 任運雙修
팔풍 적연삼수자 의자성정혜 임운쌍수
天眞無作 動靜常禪 成就自然之理
천진무작 동정상선 성취자연지리

말을 따라 알려하면 의혹 생기고

뜻 얻고 말 잊으면 힐문 필요없다

若就兩門 各判所行 則修自性定
약취양문 각판소행 즉수자성정
慧者 此是頓門 用無功之 功旋運雙寂
혜자 차시돈문 용무공지 공병운쌍적
自修自性 自成佛道者也
자수자성 자성불도자야
修隨相門定慧者 此是未悟前漸門
수수상문정혜자 차시미오전점문
劣機 用對治之功 心心爲惑
열기 용대치지공 심심단혹
取靜爲行者 而此二門所行 頓漸各異
취정위행자 이차이문소행 돈점각이
不可參亂也
불가참란야

답하다. "해석은 분명한데 그대가 스스로 의심을 내는구나. 말을 따라 알려고 하면 다시 의혹이 생기고 뜻을 얻고 말을 잊으면 힐문할 필요가 없다. 만약 그 두 문에서 각기 수행할 바를 판단한다면, 자기 성품의 선정과 지혜를 닦는 자는 이 돈문의 노력없는 노력으로 두 가지 고요함, 즉 돈문의 고요함과 수상문의 고요함을 아울러 운용(運用)하여 자기 성품을 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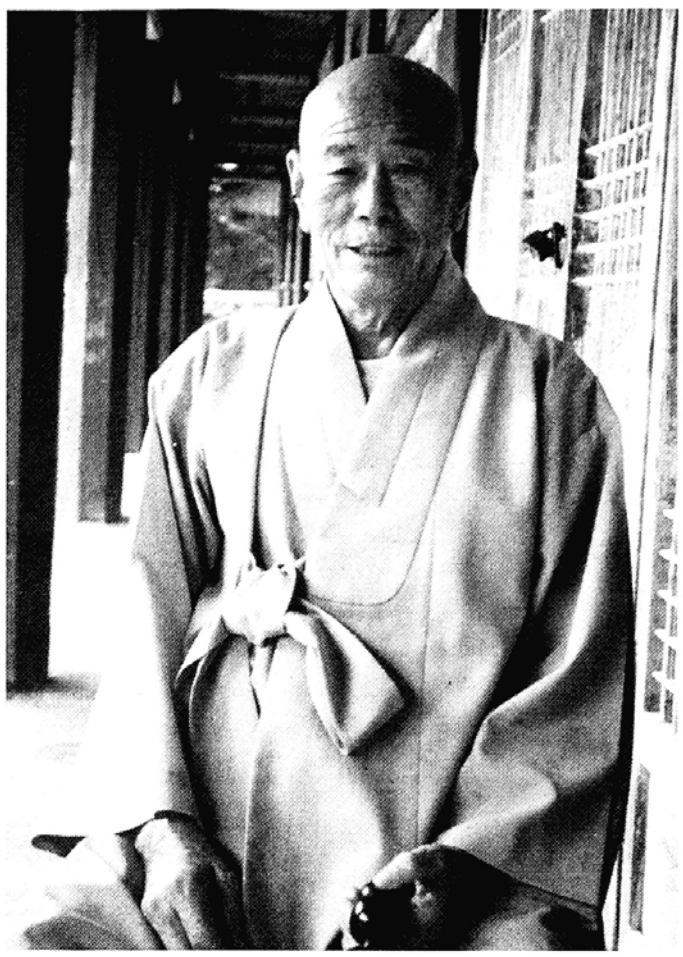
그러나 깨달은 뒤에 닦는 문에서 겸해서 상(相)을 따라 다스리는 법을 말한 것은 점문(漸門)의 근기가 닦는 것을 전적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그 방편을 취해서 길을 빌리고 숙소를 의탁한 것뿐이다. 왜냐하면 이 돈문에도 역시 근기가 뛰어난 사람과 열등한 사람이 있으므로 한 가지 예로, 가는 길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번뇌가 엷고 몸과 마음이 편안하여 선악에 대해서도 무심하고, 여덟 가지 번뇌에도 동요하지 않고, 세 가지 느낌에도 고요한 이는 자기 성품의 선정과 지혜에 의지하여 자유롭게 겸해서 닦아나가되 천진하여 조작됨이 없다. 움직이거나 고요하거나 항상 선정에 있으므로 자연의 이치를 성취한 것인데 왜 상을 따라 다스리는 방법을 빌리겠는가. 병이 없으면 약을 구하지 않는다.

김원각 (시인 · 역경위원)

큰스님 수행한담

"마음이 부처이니

정원스님 〈해인사 한주〉



악 · 1920년 황해도 몽금포 生
· 62년 출가, 해인사서 고암스님 계사로 사미계
력 · 66년 해인사서 고암스님 계사로 구족계
· 75~76년 심원사 주지
· 76~80년 건봉사주지
· 80~현재 해인사 우화당 주석

지금 북한이 워낙 먹고살기 어려워 탈북자가 대단히 늘고 있다고 들었는데 참으로 가슴아픈 일입니다. 압록강물을 건너 중국쪽으로 넘어가다 물에 빠져죽고 총에 맞아 죽는 숫자만도 부지기수 일텐데 생각만 해도 몸서리쳐지는 현실입니다. 나도 속가 고향이 황해도 몽금포라 북한이거든, 밤에 고깃배로 월남했기 때문에 그때의 가슴앓이는 이해하고도 남아요. 8.15해방이 됐지만, 일본놈에서 빨갱이로 교체된 것이지 세상이 기대되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때가 헐기 넘치는 20대 초인데다, 공과를 졸업했지만 워낙 체격이 '짤랑짤랑'해 형과 함께 고기잡이 배로 위장하고는 인천쪽으로 야반도주했습니다. 형님은 나를 의지하고 나는 형님을 의지했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목숨을 건 사투였습니다. 그렇게 결단력있고 용기있는 사람이 생을 스스로 여는 것입니다.

그래도 스님된 복에 상좌들 덕으로 지난 해에는 금강산도 다녀왔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여행때 단골 코스이기도 하고 당시 젊은이들이 친구들과 어울려 바람쐬러 다니는 곳이 금강산이었는데 50년 반세기만에 다시 찾은 그곳은 참으로 많이도 변했습니다. 10년에 한번씩 변한다쳐도 다섯 번은 더 변했을 것이겠고, 무엇보다 내 자신이 많이 변해있었을 것입니다. 그나마 북한땅으로 고향을 그릴 수 있는 곳이 개방되어서 다행이예요. 출가한 나야 덜하지만, 실향민들은 두고온 고향산하를 더듬을 수 있는 실자락을 잡은 마음일 것입니다.

수행은 '어름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여러 생 살면서도 그나마 순수한 인연이 더 남아 있는 사람이 종교에 귀의하게 되는 것이지요. 무던함도 있어야 하며, 끈기도 강해야 해요. 쉽게 손바닥 뒤집듯이 요동치는 마음에 따라 약삽하게 계산에 밝고 실리지향적인 사람은 종교 인연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세간의 삶과 출세간의 삶이 분명 다르지 않으나, 세속생활은 어름해서는 안될 거예요. 하지만, 종교 울타리에서는 어름한 사람의 특성이 요구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보시정신을 봅시다. 절에다 교회에다 재물을 바치거든요. 또 내가 써도 아까울 그 귀한 돈을 남에게 그냥 주기도 한다 말입니다. 세속의 사람이 볼 때 우선 아깝다는 생각, 심지어 어리석다는 마음까지도 내는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눈앞에 집착해 있으면 종교적인 신념이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름한 자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불혹의 나이에 입산했으니 대표적인 늦깎이지요. 사회생활도 정보를 다루는 공직을 오래 하다가 출가인연이 닿아서인지 다른 스님들과는 다소 다른 경로를 걷게 되더군요.

월남해서 체격이 튓받침하고 눈빛이 좋아 경무대 2기생으로 선발되었고, 이승만박사를 바로 곁에서 모셨습니다. 지금도 나는 운전을 직접하고 다닙니다. 타고난 체격에다 부처님 공부까지 더하니 심신이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거지요. 4.19로 자유당 정권이 망하고는 공직자로서 운명을 함께 하게됐습니다. 공직을 털고 나오자 발붙일 곳이 없었어요. 근 1년여 동안 탄광업등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확장시켜 나가면서 경험도 컸습니다. 먹고 생활하기에는 불편함이 없었지만, 집에 후사가 들지 않았습니다. 당시 보살(부인)은 독실한 불자로 인천 보각사에서 살다시피 했고, 나도 보살을 따라 절에 가기도 하고 시주도 많이 했지요. 그러던 62년 보살은 결혼반지를 빼주면서 결연한 어조로 "출가하라"고 요구하는

"다겁에 선근 심었기때문에 금생에 불교귀의한 것이니 반드시 삼독제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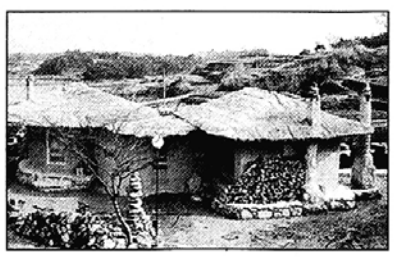
것이었습니다. 전국의 절은 거의 다 참배했고 생활했다는 보각사 공양주 보살도 함께 거들면서 출가를 권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나도 마음이 동하는 것입니다. 보각사 스님의 안내로 무작정 상주 남장사주지 월호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은 "중노릇 할 사람이 아니다"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공직물이 덜빠진 내 눈빛을 보시고는 경고를 하신 것일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떠나지 않고 자비문중에서 받아달라며 1주일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남장사에 49재가 들어온 것입니다. 재준비로 할 일이 워낙 많자 주지스님은 공무원이었으니 〈석문의범〉을 보고 시방번을 써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밤새워 쓸 량이지만, 몇시간 안돼 다 써놓고 새벽예불 직후 보여드리자 대만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장사에서 살게됐습니다. 뒷산에서 혼자서 천수경부터 외기 시작했고 목탁치는 연습을 했습니다. 얼마 안돼 사무 행정능력이 뛰어나다는 소문이 본사 직지사에 알려졌고 본사 사무장소임을 보게됐는데, 주지를 사셨다는 고암스님을 두번 뵐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고암스님께 계를 받아야 겠다싶어 무작정 직지사를 떠나 해인사 용탑으로 스님을 찾아 갔습니다. 처음에는 나가라고 하시던 스님께서는 돌연 무슨 생각이신지 내일 아침 계를 설하겠다시면서 준비하라고 이르시는 것입니다. 당시 나를 포함해 6명의 스님이 함께 계를 받았습니다. 그후 김용사 건봉사 심원사 관음사 북장사 등에서 두루 주지소임을 맡아 보았습니다. 속가때 공직생활 경험을 살려 지역 기관과 유지들과 유대를 맺어 포교는 물론이고 불사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실제 건봉사에서는 5년동안 주지로 살면서 도의원도 했을 정도니까요. 절대 명예나 권력의 자리로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역주민들이 불교는 다른 종교가 아닌 우리 생활 정서에 깊숙이 함께 하는 세계라는 것을 인식시켰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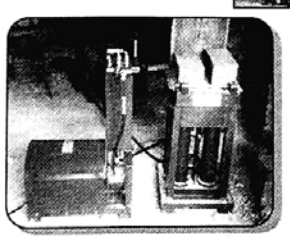
인연이 묘해서 깊이 참선정진 할 기회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ㅣ.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생산량 1일 600~1,000장
■누구나 사용가능
■벽돌기본규격 : 30×14×14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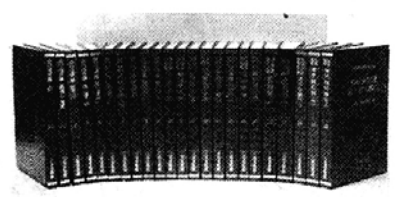
11월 한달 세일~!! 50대 한정 ···▶ ●가격● 삼백만원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사주추명학
아부태산 전집 23권

운명학의 금자탑
아부태산 전집 드디어 번역 출간되다!!
우리말로 쉽게 풀이하여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다.
운명을 알 때 재난과 불행은 있을 수 없다.
나는 새 흐르는 물 말없는 바위와도
대화할 수 있는 지혜 행복의 샘이 여기에 있다
○사주추명학 12권
○사주추명학 육임신과 7권
○사주추명학 적천수한해 3권
○사주추명학 천문자미운명학 1권



※낱권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권당 15,000원, 전집은 330,000원
삼원문화사 문의전화 TEL. (02)333-4005, 323-3493 FAX. (02)323-3494

완전 초보에서 60일에 영어회화가 술술해진다??

AMT AUTO MEMORY TAPE 영어문장 자동 암기 TAPE 2-3년의 시간과 노력을 60일만에

방법만 달리하면 최단 시간내 가능!!

삼보에 귀의하옵고
코리아헤럴드 A.M.T (AUTO MEMORY TAPE)는 영어의 기본요소인 형태(FORM), 의미(MEANING), 사용(USE) 중 한국인이 가장 취약한 사용(USE)면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된 특수 기능성 TAPE입니다.

국내 최초로 개발된
영어문장 자동 암기 TAPE

"A.M.T"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

A.M.T. PORGRAM은 한국어 구조에 익숙한 우리의 중추대뇌신경을 영어 발성구조로 변화시켜 줍니다. 영어식의 생각의 틀 형성 및 발성구조가 영어식으로 바뀌게 하는 PORGRAM입니다.

AMT는 50년 전통의 영자신문 코리아 헤럴드가 최초로 검정 감수한 영어회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MAP(Master and pay Later) 마켓팅은 지금까지의 방법에서 영어학습 실패의 두려움으로 인해 망설이는 분께 학습을 마친 후 그 대금을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영어문장 자동암기 TAPE학습 및 프로그램 문의
051-861-7705 척척영어 코리아 헤럴드

큰스님 수행한담

철석같이 믿으세요”

“역대조사 마음을 말했고 수행도 마음닦는 것이며 업 짓는 것도 마음때문이죠”



◇1971년 해인사 용탑선원에서 은사 고암스님을 모시고 기념촬영한 정원스님(사진 뒷줄).

가 적었어요. 벼르고 별러 김용사 주지를 마치고는 은사스님 밑에서 공부하려고 해인사 용탑에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은사스님은 다시 해인사 총무 소임을 보라는 것입니다. 어떡합니까. 스님말씀에 따라야지요. 지금도 참선정진은 열심히 하라고 하고, 상좌들에게도 “선방가라 도통하라” 잔소리처럼 강조합니다. 나는 상좌들 가르칠 때 무섭게 괩니다. 아주 문 닫아놓고 공부하라고 가르치는 거지요.

다. 부처님께서 밤에 샛별을 보시고 깨달음을 이루셨을 때 “일체의 중생이 여래의 덕상을 갖추고 있건만 단지 망상과 집착으로 인해 증득하지 못할 뿐이구나”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직 이 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삼세 제불과 역대 조사는 모두 이 마음을 말했고, 우리의 수행도 이 마음을 닦는 것이며, 중생이 업을 짓는 것도 이 마음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놓아 버리지 않고 어리석

자기마음 항복받아 미망 벗어 나세요
집착·탐욕 버리는 길은 무주상 보시

쫓어서 하지 않으면, 더구나 출가사문이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지 않으면, 그 과보를 어찌합니까. 그저 중노릇 잘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신도들한테 자발적으로 스스로 발심해서 시주하는 것만 받습니다. 또 맹목적인 시주는 받지 않아요. 시주 받아도 적어도 내나름대로 3%정도는 시주자에게 선물로 되돌려 주겠다는 원칙으로 삽니다. 신도들 복짓게 하는 것도 좋지만, 괜스레 부담주고 폐끼치는 일은 결코 정법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사회도 살기 어려운데, 무리하게 느끼면서 시주하는 것은 차라리 하지 않음만 못하거든요.

마음이 곧 부처입니다. 이를 확고부동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사람마다 본래 갖추고 있고 사물마다 없지 않은 것으로, 모든 경전에서 이 마음을 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밤에 샛별을 보시고 깨달음을 이루셨을 때 “일체의 중생이 여래의 덕상을 갖추고 있건만 단지 망상과 집착으로 인해 증득하지 못할 뿐이구나”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직 이 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삼세 제불과 역대 조사는 모두 이 마음을 말했고, 우리의 수행도 이 마음을 닦는 것이며, 중생이 업을 짓는 것도 이 마음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놓아 버리지 않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며, 먹기를 좋아하고 게으르게 지내는 식으로 살면 천도법계에서 저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기의 성품이 본래 부처이니 허망하게 구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탐내고 성내는 습기를 제거해 버리면, 본래 성품이 청정하여 인연따라 자재한 것을 스스로 보게 됩니다.

참된 부처님의 제자는 뜻을 세우고 철석같은 마음으로 위의를 배우고 규범을 잘 따라야 합니다. 남이 자기를 모자른다고 지적할 것을 걱정하지 말고, 죽은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다겁에 선근을 심었기 때문에 금생에 비로소 불교에 귀의한 것이니 노력하여 도를 구하고, 명리의 장에 들어서도 안되고 견고심이 오래오래 변치않아야 합니다.

우리 조계종에서 소의경전으로 의지하고 있는 경전은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에서 가르치는 요점은 두가지입니다. 첫째 발심한 사람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하며, 둘째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발심한 사람은 보시를 많이 해야 하고 또한 보시를 하는데 있어서도 색성향미 촉법에 집착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음에 대해서는 중생을 제도함에 있어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네가지 상(相)이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보기 위해서는 즉 모든 볼자들이 말하는 견성성불하기 위해서는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심하고서 성불하기 위해서는 상에 집착함이 없이 보시해야 하고, 또한 상에 집착함이 없이 중생을 제도해야 하고, 그리하여 상이 상이 아님을 보게 되면, 즉 상이 없으면 곧 성불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불교는 궁극적인 목표가 부처님을 만나고 성불하는 것인데 포교하는 것을 통해서도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 점에 대해 별개라고 생각하는 불자도 있습니다. 마치 포교는 특별히 이에 원력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성불하려는 사람은 포교할 여가가 없다는 이론을 지닌 것이지요. 자기의 갈 길이 더 바쁘기 때문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에서 하는가 하는 데에 그 답이 있습니다. 포교한다는 상이 없이 포교할 때 결국에는 성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불의 가장 빠른 길이 무엇이냐 하면 참선이라고 하는 것이지 참선만이 성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불교의 전통에서 볼 때 출가한 스님들은 참선을 주로 하고 있으니 재가자들도 참선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사를 끝내고 벗어나는 일에는 들어가는 문이 아주 많습니다. 선종 강경 지계 염불 등 근기따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갖가지 법문이 모두 한 마음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법에 통하면 만법에 통하지만, 한 법에 통하지 못하면 일체에 통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캄캄한 것입니다. 즉 불자가 되어 바른 믿음으로 출발하였으면, 벗어나는 법을 구하여 힘써 나를 잊고 경계에 끄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자가 자기 마음을 항복받지 못하면, 한 생각 잘못하는 털끝만큼의 차이로도 하늘과 땅으로 벌어집니다.

인간은 누구나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란 것이 상대적이고 유한함에서 비롯된 모순의 연속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없고, 그토록 괴로운 삶이니 더 이상 살고 싶지않다고 해서 살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덜 고생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구요. 종교 철학 등 각 방면에서 행복추구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그 근본적인 해결법 즉 무한한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생사해탈 깨달음을 얻어 윤회에 떨어지지 않게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발심한 사람이 가져야할 마음가짐 가운데 보시를 강조했는데 특히 집착함이 없는 보시 즉 무주상 보시를 제일로 꼽습니다. 또 포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만 그 말씀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을 보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보시는 법보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보시는 부처님께서 보이신 중생에 대한 연민과 자비심을 본받아 실천하려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과 욕심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탐욕을 버리는 가장 좋은 길은 지혜의 눈을 뜨는 것이며, 행동으로 나의 것을 남에게 베풀어 주는 마음입니다.

정리=위영란 기자
(yryui@buddhapia.com)

나의 수행일기



이은정 〈前 보문고 교장〉

〈상〉

법당에 들어 가보면 부처님 뒤편에 후불탱화가 모셔져 있다. 이 탱화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후불로 모신 경우라면 빠지지 않고 그려지는 두 제자가 있다. 마하가섭과 아난존자다. 내가 처음 만난 스님은 꼭 마하가섭 존자와 같은 하얀 눈썹을 지니셨다. 스님은 사중 식구들에게는 물론 절 밖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분이셨다. 그러나 내가 스님을 처음 친견했을 때는 왜 그 스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지 알지 못했다.

하루는 스님이 나에게 목욕물을 데우라고 하셨다. 산중이었지만 큰 가마솥 목욕탕이 마련되어 있었다. 목욕물이 데워졌다고 말씀드리자 황송하게도 목욕을 함께 하자는 것이었다. 내가

하루는 마당을 쓸고 있을 때였다. 내 딴에는 지금껏 마당 쓸던 습관으로 최선을 다해서 쓸었는데 스님은 빗자루를 달라고 하셨다. 구석구석 티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잔 모래알까지 쓸어 내시며 아무 말이 없으셨다. 그 뒤부터는 마당쓰는 습관이 달라졌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주리반특이 마당을 쓸라고 하면 빗자루 드는 것 잊어버리고, 빗자루 들면 마당 쓰는 것 잊어버리는 정도의 바보였다. 하지만 부처님의 자비로 청소하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그 얼마 뒤에 책을 보고 알게 됐다.

한 해 가을 스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토굴도 마다하시고 거처도 모르는 더 깊은 산중으로 떠나시고 안 계실 때였다. 새벽 예불시간 법당에 가보니

젊은시절 노스님 시봉하며 공부
마음의 때 닦는법 배운 값진 경험



먼저 등을 밀어 드렸더니 나중엔 내 등을 직접 밀어 주시면서 말씀하셨다.

“목욕을 오래 안 했구나 때가 많아. 나이도 어린데 웬 때가 이리 많나…. 몸이 약하구나 어디 아팠나. 왜 이리 야위었나. 좋은 약을 많이 먹여야 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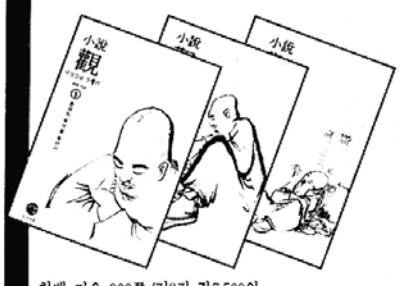
“나는 열하고 한살에 중이 되었다. 명이 짧다고 부모를 떠나 이 산중에 처음 왔지. 내 성질이 참 급하고 독해서 부처님 밑에서 안 살았으면 사람도 죽였을 거야. 다행히 부처님 밑에서 살다보니 살인을 면한 것일 게야. 참는 게 제일이야. 내 몸을 토막내도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야돼. 나는 그저 기도만하고 살았지. 내가 간도에서 수월스님을 시봉하고 살았는데 그 분도 오직 기도뿐이셨지. 묵묵부답이시라 염불이외에는 말씀이 없으셨어. 그러나 내 기도가 부족했던지 아니면 북간도의 추위를 이기지 못했던지 냉병에 걸려 죽을 지경이었어. 그 때 수월스님이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하시더군. 그래서 이 산중에 다시 와 토굴을 짓고 기도정진하며 살고 있는 거야….” 스님과의 목욕은 깊은 산중에서 둘이서만 한달에 세네 번씩 정기적으로 치러지는 법회였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더구나 법당 안에 등이 꺼져 있었다. 순간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법당 안으로 들어가 더듬거리며 탁자 앞에 있던 성냥으로 불을 켜 촛불을 밝혔다. 아니다 다를까 칠성단 앞에 모셔 놓았던 불상이 없어진 것이었다. 그 부처님은 그 절에서는 제일 오래된 나무로 조성된 고불이었다. 큰방에 모셨다가 도난의 염려가 있다고 법당에 식언장치를 다시 하고 모신 것이 오래지 않은 불상이었다. ‘예불을 하고 알려야 하나 아니면 예불을 하지 말고 알려야 하나….’ 항상 모시던 대로 정성을 다해 예불을 했다. 마음은 오히려 나도 모르게 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 때부터 주위에 알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행방은 묘연했다. 사람을 놓아 동네 마을 사람들을 올라오게 하고 이웃 사찰에도 알려 대책을 강구해 보기로 했다. 그런데 절에서 함께 공부하던 한 청년이 헐레벌떡 달려와서 부처님을 찾았다고 했다. 법당 뒤 담장위에 부처님이 계시다는 것이었다.

〈계속〉

불교의 계율을 깬 파계승인가
모든것을 다 얻은 득도승인가!



한백 지음 300쪽/전3권 값7,500원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구선스님 수행기

- 구선, 그는 누구인가 ?
- 그가 18세 때 밝혀낸 가야산 해인사 장경각 1000년의 비밀을 공개한다.
- 행자의 신분으로 10년간 전국을 만행하며 깨달음을 얻기위해 고승을 찾아다니며 일구어 내는 선문답
- 전생의 인과에 의해 이어지는 사창가 여인과의 사랑과 이별
- 혹독한 자기 연민과 자기 혐오 속에서 몸부림치며 한 걸음 한 걸음 자기를 완성시켜 나가는 한 승려의 처절한 수행기
- 삶과 죽음의 경계를 자유자재로 드나들며 밝혀낸 우주 창조의 비밀과 윤회의 순환고리
- 최초로 공개되는 영혼의 생성과정과 2000년대에 대한 비전들
- 고행을 하는 한 승려의 시작과 완성의 과정이 이처럼 잘 묘사된 책은 없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핵심이 이 책에 담겨 있다.



소설 觀

봉성기획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73-14 3F 전화 354-6204,5 팩스 354-6292

서기 2000년,
시대의 흐름이 바뀐다.

무엇이 시대를 움직여 가는가? 「관, 존재 그 완성으로 가는 길」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영혼은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생명의 의식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관, 존재 그 완성으로 가는 길」
당신이 갖고 있는 마음에 대한 의문의
해답은 이책에 모두 제시되어 있다.
사상 초유의 마음 닦는 길을
제시해 놓은 책.

구선스님 지음
460쪽/ 값15,000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觀

병든 지구 '모성'이 살린다

2000년을 여는 불교 지상포럼

10

문화 여성주의

우리 사회에는 활동적인 여성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들의 활동을 '치맛바람'으로 비웃는 경향이 있다. 최근까지도 〈우리말 큰사전〉〈엣센스〉 등 대부분의 국어사전들이 치맛바람을 '여자들의 극성스러운 사회 활동' '설치는 여인의 서슬' 등으로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의미로 해석했다.

그러나 90년대에 이르러 '모성의 사회화'가 적극 대두되면서 치맛바람을 '여성의 세력' 또는 '사회 활동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국어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기획취재팀
정성운 차장
한명우 기자
김재경 기자
오종욱 기자

■ 문화 여성주의

77년 가을 이화여대에 국내 처음으로 여성학 강좌가 개설된 이후 20여년동안 우리 사회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변모했다. 여기에는 20세기의 가장 성공한 이데올로기로 꼽히는 여성주의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최근 여성학계는 관습이 낳아온 남성우월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문화여성주의'를 주장해 주목 받고 있다. 문화여성주의란 여성적인 것, 즉 여성의 경험과 인식 그리고 감성이 인류 전체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말한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을 달리보고 여성 권리 찾기 일변도였던 과거의 여성주의에서 많이 벗어난 셈이다.

이수자(성신여대 강사·여성학)씨는 "문화여성주의는 모성을 바탕으로 육구충족에 치중하는 자본주의, 과학주의, 소비주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한다.

■ 젠더(Gender)의 인식

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20세기의 여성들은 대부분 권위적이고 편협한 남성중심의 가정과 사회 질서에 충돌해 왔다. 여성학자들은 '치맛바람'이라는 말도 이 질서의 부산물로 보고 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나라는 여성의 활동을 편견과 이중적인 잣대로 재단하려는 속성이 강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신도시에서의 교육환경 개선노력과 아파트 공사장에서의 암벽발파공사 반대를 남성들이 주도했더라면 '바지바람'이란 이름으로 비아냥거릴 수 없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여성 영화인들이 98년 흥행작 '처녀들의 저녁식사'를 최고의 영화 2위, 최악의 영화 2위로 각각 선정한 것도 남성중심주의에 대한 일종의 비판이다. 그들은 기존 여성 접근에서 벗어난 이 영화가 생각거리를 제공해주었지만, 여성들이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남성 감독의 시선이 못마땅했던 것이다.

사실 우리 나라에서 여성의 자리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조차 부족함계 현실이다. 우리 사회의 낙태 실상을 통해 공감은 남성 선호사상을 파헤쳐 큰 반향을 일으켰던 논문 '초음파기술이 여성들의 임신경험에 미치는 영향'(97년)에서 여성학자 서정애씨는 "우리 사회에서 아들을 못낳는다는 것은 여자 스스로 지식과 돈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행위"라며 "선별 임신기술이 발전하면 한국의 성비는 169:1(남성:여성)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98년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여성권한척도(GEM)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지위는 아프리카의 말리(72), 아시아의 방글라데시(80)의 뒤를 이어 세계 102개국 가운데 83위. 우리 나라의 뿌리깊은 여성차별 실태의 한 단면이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시작된 여성에 대한 편견은 순종을 미덕으로 가르치는 학교로, 승진 기회에 인색한 직장으로, 대가없는 헌신을 요구하는 가정으로 확산되어 왔다.

우리 나라에서 아줌마를 가장 천덕꾸러기 계층으로 꼽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남성중심적 사회의 통념으로 아줌마의 정의는 바로 성적 긴장과 유혹을 상실한 나이든 여자이다. 그러다 보니 아줌마들은 수다, 무례, 탐욕, 억척, 무식, 극성의 대명사처럼 경멸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학계는 여성을 생물학적 성별인 섹스(Sex)가 아닌 젠더(Gender)로써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젠더란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성별을 뜻한다. 사회문화적으로 본 아줌마는 결코 천덕꾸러기가 아니다. 한의사 고광순씨는 "출산을 통해 생명존중사상을 갖는 여성은 사회를 살리는 원초적 힘이 된다"고 말한다. 시인 김지하씨는 "모성을 바탕으로 생명사상을 실천하는 아줌마야 말로 한국사회를 개혁시킬 주역"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구로구에 뿌리 내리고 있는 아줌마 조직 '새날 여성회'는 그 가능성을 보여준 예이다. 93년 12월 이 지역 주부들이 만든 지역여성자치조직인 여성회는 아줌마 인형극단 표주박은 물론 무의탁노인, 소년소녀가장 돕기, 재활용운동 등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또 4년전 시작한 구시의회 방청단 활동도 새날여성회 아줌마들을 어느새 지역 정치의 무서운 감시단으로 만들었다.



성차별 폐지운동 90년대에는 성 차별적인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법으로 개정하려는 여성계 움직임이 거셌다. 사진은 '가족법 개정 여성대회'.

남성우월 소비주의 틀깨는 새 가치관
모성애는 생명사상 실천하는 자비
불교계 여성인력 양성·공동체운동 나서야

낳고 기르고 지키는 '모성'이 하나가 돼, '내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를 길러내고 더 나아가 환경운동 공동육아조합운동 등 협동운동 아나바다운동 등을 전개해 지역 공동체를 가꾸고 있는 것이다.

조옥라(이화여대·여성학) 교수는 "여성들의 다양한 목소리는 사회적 갈등과 경쟁을 '조화'로 이끌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 여성성, 21세기 원융사상

여성성의 인식은 불교계 여성불자들 사이에서도 일고 있다. 올 올1월 발간된 〈여성불교〉지에 따르면 여성불자 415명을 상대한 설문조사에서 '당신이 성불할 수 있는냐'는 질문에 63%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아니다'라고 답변한 여성은 5%에 불과했다.

여성불자들이 '여성은 내세에 남성으로 태어난 뒤 성불할 수 있다'는 수동적 교리 해석에서 탈피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목소리가 실제로 교계에서 받아들여질지에 대해 많은 여성불자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게 현실이다. 우리 나라의 여성불자는 가부장제 사회구조와 남성중심적 종교라는 두 겹의 굴레에 짓눌려, 19세기식 공양간에서만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실에서 생명을 창조하고 기르는 여성성이야 말로 유사 이래 남성중심사회가 만들어낸 지구와 인류의 폐해를 치유할 수 있는 원융적 가치관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여성학자와 운동가들의 말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미래학자들도 지식정보사회로 요약되는 21세기에는 좁게는 가정과 직장에서 넓게는 정치·경제·사회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창조될 것이며, 특히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여성의 위상은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는게 일관된 지적이기도 하다.

21세기는 상업적 자본주의로 발생한 환경오염 빈부격차 공동체파괴 등의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주제로 부상하는 시기로 예측되는 만큼 생산성주의를 벗어난 원융적 삶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즉, 생명·양육·조화로 설명되는 여성성은 21세기 사회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잡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세기말에 이르러 여성주의가 생태학·카오스이론 등과 더불어 밀레니엄 담론으로 꼽히는 데는 이같은 배경이 깔려 있다.

따라서 대한불교 조계종이 올 년말 종단 차원의 불교여성활동단체인 '불교여성교육개발원'(가칭, 이하 개발원)을 설치하고, '맹신적 기복신앙 극복' '여성차별 극복' '여성인력 양성'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은 시대적 요구를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개발원과 같은 불교계의 여성단체에 의해 깨친 여성불자들이 생명과 보살핌이 넘쳐 흐르는 공동체사회를 만드는 여성운동의 행렬에 적극 동참하고, 빈곤과 폭력의 악순환 등 우리 사회의 비관적인 현상과 맞서는 것도 불교계의 몫으로 남아 있다.

◇세계 여성해방운동 주요 연표

연 도	활동내용
1848년	세계 최초 여성권리회의가 미 세네카 폴즈에서 열림
1918년	영국 여성참정권 획득
1920년	미국 여성참정권 획득
1923년	전국여성당 헌법수정안(남녀평등권)을 의회에 제출
1929년	버지니아 울프 〈자기만의 방〉 출판
1949년	시몬 드 보부아르 〈제2의 성〉 출판
1950년	미국의 여성취업률 30%-(미혼자 50%, 기혼자 25%)
1963년	베티 프리던 〈여성의 신비〉 출판, 1970년까지 5백만부 판매
1964년	미국 시민권리법안 채정. 인종·성·종교·출신국 때문에 고용주나 고용기관, 조합이 고용차별을 할 수 없다는 내용. EEOC(고용평등기회위원회) 설립
1968년	미국 '뉴욕급진여성' 단체가 애틀랜틱시에서 열린 미스아메리카 반대시위
1969년	미국 '보스턴 여성건강 책 연합'이 〈우리 몸, 우리 자신:여성에 의한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책〉 출판. 1997년까지 4백만부가 팔림
1973년	미국 대법원이 임신중절권 합법화
1973년	미국 군대는 여군제도를 폐지시키고 통합시킴
1978년	미국의 경우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대학에 더 많이 입학함
1978년	포르노그래피 반대 여성모임 결성. '밤을 되찾자'는 대규모시위가 열림
1988년	바버라 헤리스 신부, 최초의 성공회 여성주교로 서품
1995년	제4차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BBS 불교방송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존폐의 위기에서 안정을 확보하였습니다.
- IMF 환란으로 지난해 광고수입이 감소하여 (70%) 개국 8년만에 최악의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 成樂承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80억원의 적자를 탈피하고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 불자님들의 정성어린 후원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BBS 불교방송은 공중파 방송언론사로서의 새로운 위상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 생동감 넘치는 신선한 뉴스 프로,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다양한 교양 프로,
- 어려운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고 편안하고 독특한 포교 방송으로 청취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2,000만 불자 모두가 불교방송을 청취하시면 매월 20억원의 광고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정성어린 후원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불교방송 서울 본사 : FM 101.9MHz
부산지방국 : FM 89.9MHz 광주지방국 : FM 89.7MHz
대구지방국 : FM 94.5MHz 청주지방국 : FM 96.7MHz

BBS 불교방송
◆후원회 ARS : (02)700-0108
㉾ 121-050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대표전화 : 02-705-5114)

⊙ 후원회 : (02)705-5560-1 ⊙ 방송참여 : (02)705-5555~8
⊙ 후원회 지로번호 : 8003478 ⊙ F A X : (02)705-5229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지극히 관하면 악한 마음도 녹아요

공부를 잘하고 싶습니다

문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중학교 2학년에 다니는 학생인데요, 공부를 잘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정신 집중도 잘 되지 않고 노력한만큼 성적도 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나무는 흙에 가려서 자기 뿌리를 못 보지? 그렇다고 뿌리가 없는 게 아니라 다만 흙에 가려서 뿌리를 보지 못할 뿐이야. 그렇듯이 사람도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자기의 영혼의 근본 뿌리가 있어. 그 뿌리를 주인공(主人空)이라고 이름해. 그 주인공만이 너의 마음을 모두 이끌어 줄 수가 있다구. 네 몸속에 많은 생명들이 있고, 많은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식들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 그러니깐 그 마음에서 의식들이 나오는 거를 그 네뿌리가 이끌어 줄 수가 있는 거니까"주인공, 너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고, 공부 잘하게 할 수 있고, 너의 심부름을 정직하고 진실되게 잘하게 할 수 있잖아"하고 거기다가 맡기고 진짜로 그렇게 믿어. 주인공은 너의 영원한 친구야. 그러니 공부가 되느니 안 되느니 따지지 말고 진실하게 너의 뿌리를 믿고, 모든 것을 그 친구에게 일임하는 거야. 너와 네 주인공이 둘이 아니니까 너는 다만 열심히 심부름을 할 뿐이야! 마치 나무 이파리가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공급이 될까 안 될까 걱정하지 않고 다만 태양을 향해 열심히 손을 뻗치듯이 말이야. 꼭 그렇게 해요.

진정한 참회가 안 됩니다

문 안녕하십니까? 문득 생각나 인사 올립니다. 빈 항아리처럼 깊어진 10월의 하늘을 무심히 쳐다보니 아파하는 얼굴들이 하늘 저편에 숨어 있다가 불쑥불쑥 달려나와 겨울도 오기 전에 이 가슴 떨게 합니다. 참회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이 왜 한마음이 되지 않고 위선이 되고 과시가 되어 이기에 물들고 욕심에 빠져들어 거짓 참회가 되어 버리고 거짓 기도가 되어 버리는지... 참회하면서 진정한 참회를 하지 못함은 왜일까요? 너무나 찌들어버린 죄의 습성 때문입니까? 아니면 순간 만끽하는 죄의 마음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기 때문인지요?

답 여러분이 업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업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건 없어지지 않고 소멸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생각을 그냥 하고 사느냐 한생각을 하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 몸에서 모든 생명들이 다 더불어 같이 해주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알면 한생각이 되는 거고 그걸 모르면 그냥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 과거로부터 그 수많은 세월을 걸어오면서 습이 많아진 그 자체를 어떻게 단번에 소멸을 시킵니까. 참회만 한다 하면 그 다음에, 참회한 것이 또 없어지고 또 다른 거를 저지르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내 이 몸은 시자일 뿐이고, 심부름꾼일 뿐이다. 그러니 나의 원동력인 근본 나를 움죽거리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는 거기다가 모든 거를 맡겨라 하는 겁니다. 죄를 졌든지 안 졌든지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거기다가 맡기라는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살아오면서 습관과 업장이 너무 진하게 많기 때문에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얘기죠. 모든 걸 관하고 놓는다면 그거는 소멸이 되니깐요. 소멸이 되니깐 이루어지는 겁니다. 소멸이 안되면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한생각을 잘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생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부처라고 할 것도 없구요. 그대로 법신이고 그대로 보현이고 그대로 부처님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부처고 생각하면 법신이고 몸을 움죽거렸다 하면은 화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생에 빨리 깨우쳐서 다 소멸시키자는 뜻에서 저는 그 마음에다 모든 걸 놓으라고 가르쳐드리는 겁니다.

화두는 어떻게 드는 건지요

문 귀의 삼보하옵고, 저는 올해 스물다섯된 대학생입니다. 몇 해전에 잘 아는 형을 통해 불교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불교를 알게 된 지 얼마되지는 않았지만, 그 동안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려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애를 써 왔습니다. 불교라는 것을 조금 맛보고 나서, 제대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루도 놓지 않고 생활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조급해하고 긴장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게 불교를 알게 해주었던 그 형이 지나가는 말로 '이 뭣고만 꾸준히 해 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건 다름아닌 화두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나서 전 생각날 때마다 의식적으로 '이 뭣고' 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멋대로 공부를 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화두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 콩씨를 심었더니 콩은 화해서 없어지고 콩싹으로 화했다는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 모두들 과거의 콩씨를 자기 안에 놔두고 꼭 다른 데서만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콩씨가 싹이 돼버렸는데 어디 가서 콩씨를 찾느냐구요. 싹에서 콩이 또 달리는 법인데 어디서 콩을 찾아요? 그거는 백년이 가도 못찾아요. 자기가 싹으로 돼 있고 그 콩이 화해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콩싹이 화한 거를 알고 무조건 그냥 콩씨를 둘 아니게 먹어치워라 이 소리에요. 자기한테 불어있는 거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을 했죠. 수박을 들고 이게 뭐꼬? 이게 뭐꼬? 하면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다가 자기 젊은 세월이 다 갔다는 얘기요. 나는 그러지 말고 못났든 잘났든 그냥, 죽으면 죽고 살면 살지 뭐 그렇게 겁이 나서 못 잘라 먹어보느냐는 겁니다. 그냥 먹어치워라 이겁니다. 그냥! 먹어보면은 그 속에 씨도 있는 걸 알게 되고, 수박 속 맛이 어떤 건지도 알게 되고 그럴 거 아니냐 이겁니다. 내가 맛을 보고, 그 씨가 있어서 내가 영원하다는 거를 알게 되고, 그 씨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 종자로 인해서 수만 수천이 벌어진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뭐꼬? 하고 겉으로 백네날을 가지고 굴려도 그것은 알 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그대로 화두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응아! 하면 벌써 이것이 화두라. 그래서 화두를 어느 큰스님께서 주신다 해도 그거를 이름으로 받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라, 이름으로 받는다면 만날 들고 돌아다녀야 하고 마음으로 받는다면 그대로 둘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 내면처와 또 화두를 주신 분의 내면처가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둘을 한데 합쳐도 그냥 하나의 주인공이요. 만불을 갖다가 하나로 넣어도 그것은 일불일 뿐이라는 얘깁니다.



그림 · 최주현

믿고 놓을때 구정물도 맑은물로 바뀌죠

불교를 왜 믿어야 합니까

문 기독교인들은 천당을 가기 위하여 기독교를 믿는다 하는데 그 천당은 불교의 삼천대천세계중에 어느 급에 속하는 겁니까? 또 불교를 왜 믿어야 하는지 여러 사람이 공감할 수 있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수많은 종교 중에 왜 불교를 믿어야 하며, 불교를 믿는 목표를 사후세계에 두어야 하는지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 부처님이 여기 계신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대신 잠을 자줄 수도 없고, 대신 먹어줄 수도 없고, 대신 똥눠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스승님의 모습을 볼 때 세가지를 보라 했습니다. 뜻과 말과 행, 그 세 가지를 봐서,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따르라고 했지 믿으라고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기를 믿는 거고, 또 자기 자신만이 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참자기가 있는 것도 자기 자신만이 아는 것이죠. 수억겁을 거치면서 그렇게 진화를 시켰고 형성시켜서 정자 난자를 빌어서 이 인생이 태어난 겁니다. 자기 영혼과 더불어 정자 난자가 없다면은 태어날 수가 없죠. 자기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자기를 그렇게 수없는 광년을 거치면서 형성시켜 온 겁니다. 자기 근본은 완성된 자기입니다. 완성된 자기 보배입니다. 어떠한 문제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진 자기의 보배인 것입니다. 자기의 보배인 까닭에 보디가드도 될 수 있는 것이구요.

어떤 학생이 이러더군요. 길을 지나가는데 젊은이들이 몇 명 다가와서 자기를 발길로 차고 돈을 뺏으려고 그러는데 '아이구! 주인공, 너만이 이거 막아줄 수 있잖아' 하고 그냥 아주 애가 타서 그러니까 걔네들이 와서 팔을 잡더니 "돈 얼마 있어?" 그래서 돈 천원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야! 이놈아, 너 혼자나 먹고 떨어져라" 이러구선 그냥 가더랍니다. 이런 일이 모두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로부터 쭉 내려오면서 자기 모습을 형성시켜온 자기가 둘이 아닌 까닭에 그것은 능히 그렇게 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갖추어 가지고 계십니다.

불교는 진리인 것이지 어느 한군데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마음 공부라는 것도 별도로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컴퓨터로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인간마다 다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에서 구정물이 나올 듯 하면은 다시 거기다가 되입력을 해서, '구정물이 나오게 하는 것도 너니까 구정물이 안 나오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맑은 물이 나오게 하는 것도 너다' 하고 되입력을 한다면, 되놓는다면, 믿고 놓는다면, 앞서의 구정물의 입력이 없어지면서 바로 맑은 물의 입력이 현실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라는 거는 용무를, 즉 공법을 실행하는 원동력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미신을 믿고 허황되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도 "나의 모습을 믿지 말라, 나를 따르되 믿는 거는 너를 믿고 너를 먼저 찾아야 한다. 너를 발견하라, 너부터 알아야 우주가 하나로 돌아가는 섭리도 알게 되고 이 세상만사도 공해서 돌아가고 그대로 여여한 것을 알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지금 기독교나 가톨릭교나 어느 종교를 막론해 놓고 외국에 가서 봐도 전부 타의에서 구하고 있어요. 전부 타의에서 구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러죠. 불교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기독교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너 먼저 발견하라고 했고, 밥 한 그릇을 가지면 이 세상 만물만생을 다 먹이고도 그 밥 한 그릇은 되남는다고 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빵 하나로 다 먹이고도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을 모른다면 계란에 눈이 없는 것과 같아서 병아리를 부화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타인을 믿는다면 마구니와 같느니라. 각자 나를 믿어야 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

☞ 16면으로 계속

범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황토방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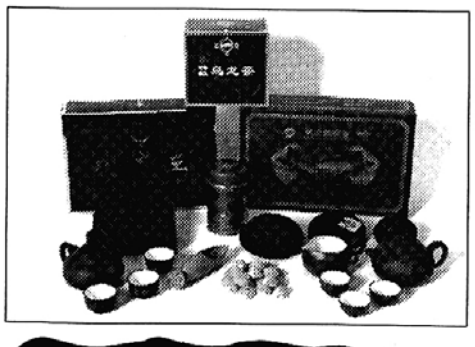


· 피라밋 이글루형 황토방 규격
표준형 : 49m²

◐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를 접목시킨 새로운 형태의 황토방
◐ 황토방을 순수 황토만을 사용한 이글루형으로 시공함으로써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내부공간
◐ 전통방식의 구들시공으로 황토의 장점을 최대화
◐ 정신 및 신체건강을 위한 최적의 황토방
※ 황토주택시공 및 황토 흙벽돌 판매

대륙건축 황토방 사업부
대표 이 성 우
경기도 용인시 마평동 530-3
TEL : 0335-336-6563
FAX : 0335-338-8923
H.P : 011-9680-5055

최고의 명차!
최고 명품의 다관!
스님의 사찰에서 직접 만나 보실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나전화주시면 언제든지 찾아뵙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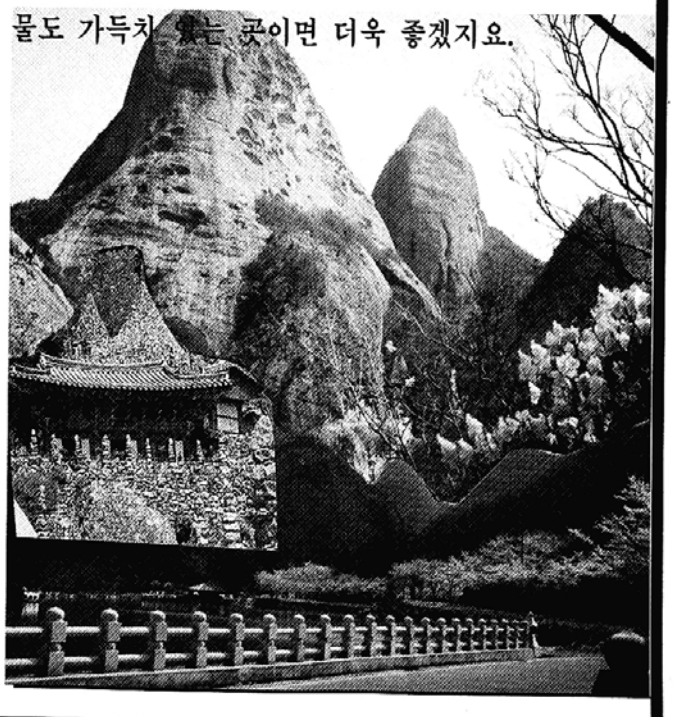
-보이차, 철관음
-오룡차(우렁차)외
-다관(명품 다량 보유)

차의 이름은 같아도 맛의 가치는 분명 다릅니다. 스님께서 직접 확인하신후 선택하십시오.

남방무역 TEL: (02) 3401-9307
H. P: 011-474-1345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탑사 —탑영제 방생—



· 관광과 방생을 한 곳에서 ·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탑사
전화(0655)433-2900, 0303
(0655)432-0652, 0072

■약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40분 M 마이산
광주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살림살이가 공부이고 불교입니다

☞ 15면에서 계속

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각자 나를 믿어야지 타인을 믿는다면 도깨비 장난같고 마구니의 소굴과 같느니라" 라고 하셨건만 알아듣는 사람이 그렇게 알아듣지 않고 '나를 믿지 않고 타인을 믿는다면' 하니까 예수님의 모습으로만 그냥 한데 모인 거죠.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길이 막히죠. 길이 뚫릴 수가 있나요. 과거·현재·미래 삼세가 같이 돌아가야 하는데 그냥 길이 막히죠. 중간에 가서.

그러니 여러분이 살아가는 생활 자체가 바로 교재인 줄을 알고 그렇게 살아나가게 하는 그 근본을 잊지 않고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의 어느 때라도 좋으니 조용히 자신을 한 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오.

'놓는 것' 잘 되지 않습니다

문 큰스님의 한마음 요전을 읽고 이제 불교에 첫발을 내딛는 초심자입니다. 제가 한마음 요전을 읽다보니 스님께서는 주인공에 관하라, 놓아라 하셨는데 제가 우매해서 그런지 그 뜻이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주인공에 믿고 놓으려고 해도 잘되질 않습니다. 큰스님께서는 바쁘신데 이런 하찮은 질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항상 얘기하기를 모든 건 내면의 용광로에다 맡겨놔라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또 거푸거푸 말을 하지만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현실에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나온 것이니까 제자리에다 돌려놓으면은 바로 과거에 입력된 게 없어집니다. 과거에 입력된 그 자체가 팔자 운명 그대로 나온다면 십중팔구 큰 문제들이 될 겁니다. 그것뿐만은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마음 장난이다. 살아온 관습에 의해서 모든 마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생활 자체를 모두 그 마음의 용광로에다 되돌려 놓는다면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생산이 돼서 나가는 거는 정한 이치입니다. 인과로 인한 유전성이라든가 업보라든가 세균성, 영계성 그것이 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이니까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은 거기에다 되돌려 놔야만이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앞서의 입력된 게 다 해결되기 때문에 현실에 생각하는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모두가, 어디서 잘못됐느냐 어디서 잘못됐느냐 하고들 야단들이지만은 그것은 바로 한 군데서, 즉 말하자면 가던 길에서 엎어졌기 때문에 허공을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그것은 일어설 수가 없다. 단지 엎어진 그 자리에서만이 그 땅을 짚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이 일어난 그 자리에다 돌려놓아라 하는 것은 수많은 세월을 거쳐오면서 굳어진 그 생각의 뭉치, 습의 덩어리, 업의 무게를 뭉텅뭉텅 녹여나갈 수 있는 그 한 군데서만이 나에게 닥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손목이 가늘고 아픕니다

문 저는 48세의 주부입니다. 10여년 동안 식당을 거의 혼자 운영하다시피 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의 손목이며 발목이 가늡니다. 그래서 힘에 겨운 것도 있지만 약4개월전 자궁안 물혹 수술 하기 전부터 양손목 손가락 마디마디가 주기적으로 아팠습니다. 제때에 병원에 가지않고 얼마정도 지나서 한의원에 가서 진단받고 침을 맞았습니다. 한의원에서 권하는 대로 치료를 받는 것이 옳은지요? 주인공 근본자리에서 함께 하고 있다고 믿지만 염려가 됩니다. 제가 유일한 수입원이며 아이들을 뒷바라지 하고 있습니다.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답 진정으로 믿던 소금장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소금을 이고 다니면서 팔던 사람이었는데, 남편이 미쳐서 그냥 막 바깥으로 뛰어 나가고, 또 자기는 그 무거운 소금을 이고 다니다 보니깐 자궁암이 걸려서 그렇게 애쓰고 그러는데도 집도 없이 사글세로 살면서 자식들은 사남매를 키워야 하는 아주 급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니던 사람이 어떻게 정성을 드린 줄 아십니까? 소금을 이고 장사 나가기 전에 제일 먼저 절에 와서 소금 한 공기 먼저 떠 놓고, 시간이 없는데도 매일 매일 떠 놓고 갔습니다. 그러다 저를 만나게 되면 "스님, 스님! 저 이 자궁암 좀 낫게 해 주시고 당장 애들하고 살기가 힘이 드니, 정신없는 남편도 낫게 해 주시고, 이렇게 엉치가 아파도 지금 끌고 갑니다. 하혈을 합니다." 이러면서…, 세상에 얼굴은 백짓장 같은데 장사를 하느라고 울면서 그렇게 갈 때 나는요, 마음이 섬짓하구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그 마음이 아프던 것이 그만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자궁암도 저절로 낫게 되고 남편도 차츰차츰 나아서 10년동안이나 못 하던 철공일 하던 거를 그냥 하게 됐고, 또 그 보살은 소금을 팔던 걸 놓고 김밥을 해서 어느 회사에 납품하게 됐습니다. 사람을 몇 두고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부자가 돼서요, 큰 집에 살고 아들들을 다 대학에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잘되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잘되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잘된 겁니다.

오고 감이 없는 그 뼈저리고 눈물어린 그 마음이 바로 자기를 살리는 겁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가련한 자기 그 의식이, 과거로부터 자기를 끌고 다니던 그 불성 자체 그 마음을 믿고, 자기 과거에 살던 의식 주인공을, 현재의식이 믿는 것이지요. 주인공이라 칭한 것은 고정됨이 없이 찰나로 돌아가면서, 우주의 근본과 인간의 마음의 근본이 거기에 직결돼 있으니까 모든 걸 종합해서 주인공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 주인공에다 모든 걸 맡겨 놓고 그렇게 사신다면은 틀림없이 그 자리에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보면 기쁜 일도 있을 것이고, 슬픈 일도 있을 것이고, 안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된다 하면은, '당신밖에는 즐겁게 해줄 수 없어' 하고선 믿고 놓고, 좋게 됐다는 생각이 들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가 자기한테 감사하게 놓고, 필요에 따라서 '당신밖에 병을 낫게 할 수 없어' 그러고 '당신밖에 우리 가정을 이끌어갈 수 없어' 하고 거기 놓을 때에 바로 직결돼서 모든 것이 돌아갑니다.



그림 · 최주현

'질량'이 무슨 뜻인지요

문 큰스님 법문에 "한마음 속에서 질량이 나오면 헤아릴수 없이 광대무변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주 질량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질량이 무엇인지요? 그 뜻을 알고 싶습니다

답 물질과학이 아무리 발전이 됐다 할지라도 이것은 마음으로써 엮어진 거지 그냥 공중에서 '과학이 이런 거다' 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모두 나온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어떠한 물건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걸 굴려야 된다 이 겁니다. 자기가 만들어 봤으면 자기가 굴려야지, 왜 그 물질의 굴림을 받아야만 되느냐는 얘깁니다. "생사(生死)가 둘이 아니다" 하는 것도, 에너지 핵과 질량이 둘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게 둘이겠습니까, 어디? 그렇게 표현해 보면 알고도 남음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생사가 둘이 아니다' 하는 뜻을 우리 몸으로서 실감을 하고 체험해봐야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말들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생활이 그대로 과학이고 우리 한생각, 나를 낳기 이전 그 본성이 에너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량은 우리가 마음을, 많은 마음을 내고 고정됨이 없이 행을 하는 그러한 쪽으로 비유해도 됩니다. 그런데 생사는 둘이 아니다고 그랬죠. 영원한 생명의 본성과 마음 내는 이 자체가 어떻게 둘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낼 수 있고 고정되지 않게 수많은 마음을 낼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이 둘이 아닌 까닭에 우린 몸도 있고 몸을 움죽거리기도 하고 상대성 원리도 돌아가고 이렇게 무진한 법이 우리들 살아 나가는데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전자에 경에 다른 방편으로 말을 했다하더라도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명주를 실크라 한다고 해서 그걸 부정하시겠습니까? 이름이 달라졌을 뿐이지 명주라는 근본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요즘 사람이 그 이름을 모를 때는 실크라고 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실크라고 불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편이 달라지는 거 같지만 그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달라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시대가 바뀌고 인간의 머리도 바뀌고 자꾸자꾸 계발이 되어가니 우리가 앞장서서 나갈 수 있는 거는 마음, 이 마음을 깨닫지 않고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옳고 그름 판단하는 기준

문 주인공 자리에서 생각이 나올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요.

답 여러분이 처음에는 주인공에 놓는 공부를, 무조건 믿고 놓고 물러서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프든지 어떠한 일이 생겼어도 거기서밖에는 해결 못한다고 거기다 맡겨놓고 가는 겁니다. 한발짝도 우리가 그냥 떼가는 게 없어요. 생각 하나도 그냥 하는 게 없어요.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그 의식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다 무엇이든지 믿고 놓고 맡겨서 할 수 있도록 해야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옳을까 저것이 옳을까를 생각하는 것은 자기 주인공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했으면 좋겠고, 저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리저리 저울질을 해서 머리로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놓아나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발견이 됐다 하더라도 돌이 아닌 도리를 알기 위해서도 또 거기다가 맡겨 놓되, 해서 좋을 일은 하고, 해서 나쁠 일은 하지 마라 이거야, 좋지 않을 일은. '아하! 그러면 왜 그런 것이 일어나나, 나의 사람 됨됨이를 만들기 위해서 테스트 해 보는 것이로구나' 하고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참 싱긋이 웃을 정도가 돼야죠. 그런데 거기에 속아서 그냥 듣고는 남이 호박 따란다고 호박 따고, 호박잎 따란다고 호박잎 따고, 도둑질 하란다고 도둑질 하고, 나가란다고 나가고, 들어오란다고 들어오고 이게 무슨 야단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끌어 주는 스승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기가 걸어보지 않고 자기가 가보지 않은 길은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이 공부하는 사람은 바로 이끌어 주는 길잡이가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이 진실하게 하신다면 나도 거기에 따라 주는 겁니다. 뭐 망보는 놈은 도둑놈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말을 이렇게 해드리는 나나 다 도둑놈이 되듯이, 그렇게 말을 해주었으니까 여러분이 전부 잘못되면 안되니까 나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이 마음공부는 잘못될 리가 없어요. 왜? 자기 마음에다 맡기기 때문에 잘못될 리가 없어요. 잘못돼서 횡설수설 하는 거를 거기서 나오는구나 하고 맡겨 놓으면 그 병자들이 다 나아요. 본인들이 그렇게 못해서 더디지, 그냥 잠깐 그랬던 사람은 금방 그냥 괜찮아지죠. 그러니 제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났다고 날뛰고 아무리 권세가 좋고 돈이 많고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극치적으로 들어가서 본다면 새 발의 피죠, 아무것도 아녜요.

마음의 문 활짝 열려면…

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걸림이 없으려면 어떤 수행 방법으로 해야 합니까?

답 물질만 알지 말고 되는 것만 알지 말고 전자에 살던 것으로 인해서 업식으로 뭉쳐진 인과, 유전, 업보가 뭉쳐가지고 지금 현실에 이렇게 솔솔 풀려나와서 여러분을 괴롭히는데 그 마음 하나 방생한다면, 방생을 받는다면 정말이지 그 업이 다 녹아져서 세세생생에 걸림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터질 겁니다.

영가와 교류하는 사람있는데…

문 스님, 안녕하십니까? 도반 중 어떤 사람은 영가들이 자주 보이고 영가와 대화도 나누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공부를 아주 잘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가가 들어 몹시 괴로워하던 중 선원과 연결이 되어 마음공부를 하고 이젠 괜찮다고 합니다. 과연 영가를 보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것인지, 아직 선원에서 마음공부를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영가가 들어와 괴롭히는 경우는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은 영가들과 계속 그렇게 교류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영가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는데 그런 공부가 왠지 저는 진짜 마음공부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의 도움 말씀 청하옵니다.

답 공부를 하다보면, 공부라는 게 무슨 벌다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와서 이 세상에 사는 게 공부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생명이 이 세상에 나오면 불(佛)이요, 나와서 세상 돌아가는 걸 배우는 것이 바로 교(敎)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별다른 게 아니죠. 우리들의 살림살이를 빼놓고 불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렵게 믿지 마시고 간편하게, 내가 움죽거리는 것이 다 공부니까요, 참선이구요, 마음을 가라앉히면, 잔잔하게 가라앉히면 그냥 좌선이 되고요, 우리가 일을 하다가 생각을 하면 행선이 되구요, 모두가 그대로 참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하다보면은 안으로 들여서 바깥으로 내서 믿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여서 믿고 거기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맡기고, 잘됐으면 감사하구나! 하고, 또 잘 안됐으면 안된 것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놓고, 이렇게 굴려가다보면은 말이 자꾸 하고 싶어질 때가 옵니다. 여기서 감응이 되고 좀 지나고 보면 말이 자꾸 하고 싶을 때가 와요. 그 말이 하고 싶을 때에 어떠한 말을 해야 하느냐? 남이 물어보면 관하는 도리만 얘기해주고 자기가 이만큼 배웠다고 내세우지를 말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이 옳은 거라고 내세우지 말며, 안됐다고 내세우지 말라 이겁니다. 안됐다 됐다, 이게 옳다 그르다, 또 나는 공부를 하다보니까 이만큼 갔다 이런 말을 안해도 자기가 말하는 거 보면 자기가 내세운 게 되거든요. 이거는 지금 자기를 없는 도리를 배우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만약에 그러다가 바깥으로 끄달리고 자기를 내세우고 잘됐다, 못됐다 이런다면은 공부는 광입니다. 제자리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자꾸 끄달리면서 가다보면은, 그만 자기는 빈 집이 되고, 자기 선장은 간 곳이 없고, 바깥으로 끄달리게 되죠. 그렇게하면 영계성으로 인해 구차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무슨 호흡을 한다고 하면서 바깥으로 끄달리고, 몸으로 끄달리다 보니까, 몸도 바깥이거든요. 물질계거든요. 그렇게 바깥으로 끄달리다 보니까 영계가 들려서 야단인 사람도 있고, 상기가 돼서 귀로 들려서 야단인 사람도 있고, 몸이 떨려서 야단인 사람도 있고, 몸을 부지를 못하고 그냥 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가정이 파괴가 되고, 자식들은 이리저리 떨어지게 되는 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복으로 믿으면서 바깥으로 자꾸 끄달리고 무슨 부처님, 무슨 부처님을 부르면서 바깥으로 끄달리는 사람들이 특히 영계성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다보면 이집 저집, 떠다니면서 기웃거리는 그런 영령들이 들어서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영령이 들어서는지도 모르고 그게 자기 몸에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면은 그냥 아주 정신이 혼란스러운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자기 혼자 그렇게 되는 것도 뭐한데 가정이 다 문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나쁘다 좋다, 맡다 곱다 또는 잘한다 못한다를 염두에 두고서 항상 꼬집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저런 거 그냥 차라리 죽어서 없어지면은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말이 모두 업이 돼서, 말을 하면 구업(口業)이 되고, 마음으로 지으면 의업(意業)이 돼서 입력이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한층 더 이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게하면 안되죠. 왜냐하면은 바깥에서 닥치는 거 미운 거 고운 거를 맡다 곱다 하질 말고 안에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이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의식에서 그러는 거니까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 맡기고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행동해줘라 이런 말을 항상 하죠. 그래야만이 모든 업이 녹아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고 그러더니 자꾸 관하고, 부드럽게 말해주고, 부드러운 행동 해주니까 어느 날부터 그냥 술을 먹는 게 없어지고 그렇게 가정이 화목하게 돌아가더라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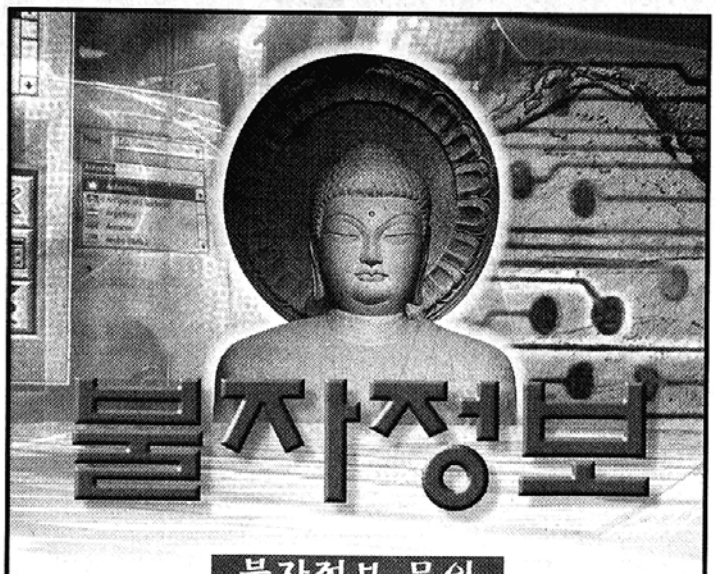
그 마음이 그렇게 밉고, 그냥 악하게 말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점점 더 악은 모아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 여러분께서 극히 조심을 해야 하고, 남을 미워하거나, 또 자식들도 그렇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악한 마음이 녹아지기를 지극하게 관한다면 그거는 틀림없이 송두리째 없어지는 겁니다. 길고 짧고 더디고 좀 빠르고는 있을지언정 꼭 없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녹음기에 녹음을 했더니 자동녹음이 됐는데, 자동으로 또 거기다 입력을 하면 그 앞서 입력이 없어진다고 항상 말해드렸죠. 그러니까 잘라도 아니 되고, 끊어도 아니 됩니다. 업을 끊으려고 해봤자 칼로 물베기죠. 그게 안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해서 없애는 도리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소홀히 들지 마십시오. 첫째에 이 공부하는 데에 도로아미타불을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잘됐다, 못됐다 또는 옳다, 그르다 이런 말을 남한테 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제일 문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아무리 속이 상해도 내 안으로 놓고 부드럽게 얘기해주고 부드럽게 행동을 해야만이 그 업식이 녹고, 그 수없는 광년을 거치면서 나온 업식이 다 녹아야 하늘에서 인정을 받고 해인(海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열쇠를 얻는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부해가면서 습을 떼어가면서 모든 거를 같이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이 모습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이 모습을 가지고 살려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철 사는 기간 동안에, 그거를 다 다스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요다음에 또 나와서 또 고생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극히 조심하셔서 우리가 요다음 생에 또 나와서 고생한다는 것도 그렇지만은, 지금 현실에서도 자기 위로는 부모와 아래로는 자식들과도 연관성이 염주가 항상 같이 꿰어 있듯이 그렇게 연관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생각 일어난 자리에 되놓아야 문제해결
밖으로 끄달리고 자기세우면 공부 못해

협찬 한마음선원 신도회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 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6)849-3858
012)1166-3858

건강과 행운의 목걸이
▶잠을 통 못 주무시는 분
▶이유없이 몸 아프신 분
▶종일 온몸이 나른하신 분
▶정신집중이 필요하신 분
▶노약자, 사업이 부진하신 분
▶기타 운세의 호전을 원하시는 분
02)734-2118
011)239-6817

암, 중환자의 희소식
중의학 박사가 연구 개발한 정공단으로 암
간경화 고혈압 당뇨등 각종 성인병 및 어떤
병이든지 치료될 수 있습니다.
※음식처방: 체질과 증상따른 정공단과 보양제 처방
※신진대사 촉진처방: 호흡, 음파, 기, 운동등 처방
※정신처방: 정신과 육체가 하나되게 한다.
암환자는 수술이기전 10일만 치료에 보세요.
※비용: 치료비는 없으며 월 생활비 50만원
02)355-5523 원장 정공 합장

비구니 스님만 보세요
◆몸이 아파서 대중에 못가는 스님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가는 스님
◆병원에서도 완쾌치 못하는 스님
◆걸망을 풀고 편히 쉴곳이 없는 스님
◆무료침식제공
◆자유정진 및 기도환영 해제비 지급
서울시 은평구 불광1동 산42
약사사 02)384-5060

강좌

사주 작명 관상 풍수 부적
남 녀 비구 비구니 **철학원생** 모집
◆인생의
첫번째 인연은 전생에 있고
두번째 인연은 사주에 있다.
세번째 인연은 이름에 있고
네번째 인연은 궁합에 있다.
오복은 이것을 잘 분석하는
진정한 도인을 만남에 있다.
02)999-4804/02)999-5551 **달마**
02)921-4804/02)928-5551 **스님**
051)418-4804
군달마사포교원

사주 명리학 강의
초보에서 완성까지(스님직강)
(사주, 택일, 궁합 작명등)
스님 佛者 환영
인천 032-528-4117
H.P 011-9020-9303

최면-견성지도 수련테프 판매!!
1.생물 = 생명(?+기록물)+물질(육체)
(1).?; 자유자율성, 不生不滅, 능동, 無形, 무게부피無, 무념·무주처
(2).기록물(업); 경향(습관)성, 有生不滅, 有形, 무게부피無, 유념·유주처
(3).물질(육체); 법칙성, 부자유, 수동타율, 生滅, 有形, 무게부피有
2.견성; 생래아 볼 수 없는 ?을?이 본다.
3.깨달음; ?가 나타나는 확신이 서는 경지
4.성불; 하루종일 자신의 의지로 맑고 청정한 본연의 ?의 상태를 유지하는 대원경지
박민수 참선 고속원 (062)251-2733
http://min soo zen.pe.kr 017)609-9068

사주 명리학 배우실 분
◐개강 : 11월 4일부터 주3회
(월수금) 4개월간
◐강의: 기초부터 간명 실습까지
책임완성
◐수강료 : 월 15만원
(수료후 재청강은 무료)
◐장소: 마포구 망원동 474-15
02)323-4050/4480
선주포교원

구인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정 토 사
0338)
771-8209/8210

기도하며 생활하실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김천 금봉사
0547)
430-0049

공재
주부사원 모집
보령제약(주)
고졸이상
35세~55세
10시~17시 근무
02)766-0057
02)3675-0397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50~60대 노부부도 환영
평생을 절에서 보내실분 환영
수세식 화장실, 욕실완비
02)3159-8886/3158-6977
대 덕 사

수양원

◆청학사 수양원◆
■수양 · 기도 · 공부 · 참선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月 숙식비 : 30만원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불교용품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공고

탈종공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귀하
◇승적번호 : 0175-841
◇성명: 이 춘 배 ◇법명: 허 명
본인은 귀종단의 종지와 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1999. 10. 28.

기타

건강에의 신비! 춘천玉山家(옥)
고혈압 당뇨, 간경화, 폐암, 관절염,
두통, 정력부족 기타 성인병환자들이 이
옥을 활용하고 효과를 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대체의학적 **자연치유!** 건강상태에 따라 옥제품과 사용방법을 권장해 드립니다.
(주)대일광업 서울중앙판매소 玉山家 (02)777-0105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심한 피로 · 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 · 변비개선
◆손발냉증 · 피부 고와져
◆감기에 강한 체질로
▶가격: 분말(230g) : ₩39,000
환 (250g) : ₩45,000
동양물산(주) 02)832-0742

사찰을 찾습니다
동양철학과 침술을
20년동안 연구한
비구승입니다.
사찰운영을 맡기실
사찰은
연락 바랍니다.
011)876-9108

전통불교 의식 연구원
02)
511-0108

왕성한 기와 영험을 간직한 달마
작가:거산 박성열(상반신달마도 :크기|34.5×35)

삼각산
황룡사
02)
372-
7016

사찰안내

사찰 안내
◆위치: 충북 ◇법당: 35평(칠포집)
◇부지: 400평 ◇요사: 40평
◇가액 : 2억 3천만원
◇강능고찰터 1천평(4천만원)
◆위치: 서울 ◇법당: 15평
◇부지: 만평 ◇요사: 25평
◇가액 : 15억
02)723-4082 광진불사

사 찰 안 내
◆위치 : 서울(전철역)서 10분거리
◆부지 : 5,000평
◆건물 : 대웅전, 관음전, 산신각, 종무소, 미륵불, 종각, 진신사리탑
◆창건: 500년전 / 가액: 13억 8천만원
◆특징: 고찰로서 천연약수 및 편리한 교통환경을 구비하였고 남골당 및 영탑공원의 요지로 태종대왕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원하였던 유서깊은 도량임.
해동불사 이 처사
연락처 : 02)389-7880 / 019)390-6110

사 찰 안 내
◆위치 : 충남 보령시
주산면 창암리
◆대지: 750평 건물 30평 정남향
◆감나무가 15년생 30주 이상됨
◆가액 : 답사후 절충
0459)951-5775
011)455-4114

포교원 안내
◆위치 : 충남 천안시 성정동
◆건물 : 1층
◆요사채 : 21평, 주방 : 10평,
법당 : 21평(2층)
◆특징 : 지장보살 칠불
◆모든시설 완벽함
◆가액 : 전세 6천만원
◆시설비 : 답사후 결정
0417)577-1469

사찰 안내
◆위치 : 대구시 달서구 두류1동
성당시장 사거리
◆가액 : 보증금 2,000만원(월 30만)
시설비 1,000만원
◆시설: 관음보살(동불), 인등(400), 본존, 신중, 칠성, 지장, 나반 및 산신탱화예불종등 의식용품 일체
◆법당(30평) 요사(26평) 전화, 팩스, 대형냉장고등
사정상 급매(스님 직접 상담)
02)493-7603 / 011)271-7603

사 찰 안 내
◇위치 : 충남
◇법당 : 30평
◇요사 : 60평
◇부지 : 1,400평
◇가액 : 1억 5천(급매)
●전국 포교당 및 사찰 다량보유
양도 · 운영 하실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급) 안내
◆위치 : 충남 금산 금산읍
◆대지 75평, 법당 10평,
요사채17평, 욕실, 화장실
◆가격: 전화상담 요망
◆특징: 천연암반수, 산세수려
0412)751-0771

토굴 암자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 임법당, 방5칸, 산신각(小),
지하수, 약수,
◆ 가액 : 2천만원
011)588-7880

포교원 안내
◆위치 : 부천시 송내동
◆평수 : 3층 - 24평
◆가격 : 보증금 500만원(월40만원)
◆기타 : 법당 보일러설치, 주방시설,
시설비 약간, 주택단지, 역학적합,
전철역 10분거리
032)654-5859

사찰 (급) 안내
◆ 위치 : 부산
◆ 부지 : 300평
◆ 법당, 산신각, 용왕당
◆ 요사 : 방 9개
◆ 바다가 보이며 민가에서
300m 산속에 위치
◆ 가액 : 2억 6천만원
051)257-1080

사찰 안내
◆위치 : 경남 밀양 단장 미촌리
만월암
◆대지 103평, 건평 21평, 등기필
신축건물, 슬라브, 시설완비
◆가격: 3,800만원 월세가능
0542)372-5040
011)9589-4183

사찰 안내
◆위치 :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대지 : 32평(실사용 75평)
◆건물 : 법당 1동 (20평)
요사 2동 (각 10평)
◆가격 : 9500만원
051)207-0136
016)546-8380

사찰 안내
◆위치 : 경북 고령군 고령읍
저전동(낫질) 442번지
◆대지 150평, 법당 18평,
요사채 - 방 7개
◆가액 : 5천만원
0543)955-5683
011)819-0279

포교원 안내
◆위치 : 대전도청앞
삼성생명 빌딩옆
◆최신시설 완비, 3층 50평
◆가액 : 전세 3천(월세가능)
시설비 답사후 절충
011)209-1016
042)221-1071~3
042)253-1016

사찰 안내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대동사
◆터 - 국유지(북한산 국립공원내 위치)
◆실평수 : 대웅전 12평, 칠성각12평,
요사(방3) 18평 · 요사(방2) 9평,
산신각2평, 종각1동, 창고1동, 우물 有
◆가액 : 상담후 결정요망
02)2267-7791/02)2279-2658
02)385-2231

사찰 (급)안내
◆ 위 치: 경기 이천 소재(장호원)
99년 행정수도권 서울 근린지역
◆대지 437평, 법당 27평(사무실포함)
법전 요사 15평(거실1 방3),요사 43평
◆가액 : 4억6천이나 급매로
절충하여 정함 ◆교환가
◆특징 : 1.취락시가지 확정
2개 대학과 약45만평 전자공단의 요충지
2.신고속도 건설중 서울50분대
3. 녹지푸른 청정도량(고시원운영)
0431)223-0377/017)430-9051

포교당 안내
◆위치 : 부산진역
수전동 사거리 대로변
◆평수 : 3층 건물 22평
시장상가 밀집지역
◆가액 : 보증금 3백(월 25만원)
시설비 있음
011)563-4454

사찰 안내
◆위치: 대구시 수성구 파동 445-1
◆부지 60평, 법당 13평
◆산신각 · 용왕당 · 방6칸
시유휴부지 사용 可
◆가액: 1억 8천만원(절충可)
053)768-5788

토굴 안내
◆위치: 안양시내 산밑
◆평수: 대지 45평, 건평 25평
◆사정상 공시지가 가격으로 양도함
◆가액: 1억 8천만원(절충可)
◆방 2개, 거실, 욕실, 최신시설
완비(포교당으로도 적합)
◆가액: 1억 2천(스님직접)
0371)763-1514/011)271-0669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 사찰 부지 2천평
◆ 산새수려 계곡접
◆ 가액 : 5천만원
011)588-7880

토굴 암자
◆위 치 : 예천군내
◆평당 9만원, 180평
0563)338-8886
018)522-8886
정담스님

포교원 안내
◆위치 : 상계동
(전철역서 5분거리)
◆1층 - 22평, 2층 - 약 20평
◆가액 : 1억 5천만원
(상담후 절충가능)
011)753-3822
02)591-7710

천탑 천불 조성하는데 같이 투자하여
창건주로 동참하실 분을 찾습니다.
◆위치 :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내리 계곡앞
태백산 청정수행도량 **천탑사**
◆6만도량내에 사찰부지 1,800평 · 기와단층, · 요사채 50평 · 임시법당 외 방10칸 · 천탑조성하고 있는 중
◆도량경치는 아주 좋음
◆가격은 인수하실 분이 답사한 후 결정함
0373)378-4777

사찰(급)안내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평수: 법당 60평, 요사채 50평
대지 140평, 전 60평, 건물 1동
◆가액 : 답사후 결정
◆특징 : 소금강 입구 구라미
온천뒤 온천구역
0391)661-3369
019)248-9636

토굴 전세 안내
◆위치 : 경남 함양군 지리산 부근
◆임법당 및 황토방, 산세 좋음
◆가액 : 전세 1,500만원
매매 5,000만원
◆조건 좋음
0597)962-3528
011)842-3525

사찰 안내
◆위치 : 경남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 중산리 입구
◆대지 : 303평 야전임 160평
◆건평 : 법당 15평, 요사채 33평(방5개)
◆계곡 전망 좋음. 식수풍부
주차시설완비
◆가액: 1억 5천 5백만원
(사정상 급매)
0596)973-5201
011)570-3342

사찰 안내
◆위 치 : 부산
◆부 지 : 200평
◆법 당 : 30평
◆요 사 : 60평
◆백년고찰임
◆가 액 : 7억
한국불사 018)273-9390
02)561-7791

사찰 안내
◆위 치 : 충북 진천
◆부 지 : 400평
◆법 당 : 20평
◆요 사 : 25평
◆가 액 : 7천 5백만원
◆산새좋음
한국불사 018)273-9390
02)561-7791

사찰 안내
◆위 치 : 충북
◆부 지 : 5,500평
◆법 당 : 30평(목조)
◆요 사 : 30평
◆가 액 : 4억 5천만원
◆산새좋음
한국불사 018)273-9390
02)561-7791

사찰 안내
◆위 치 : 울산광역시
◆부 지 : 천평
◆법 당 : 30평
◆요 사 : 90평
◆산새 좋음
◆가 액 : 7억
018)273-9390

사찰 안내
◆위치 : 서울시내
◆부지: 500평
◆법당 20평, 요사채 30평
◆산속기도도량임
◆가액: 4억 3천만원
018)273-9390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방 2, 주방 1, 법당,
옥상 사용가능
◆ 삼존불, 후불탱화,
신장 · 산신탱화
◆ 시설 완벽
053)942-0700

사찰 안내
◆위치 : 경남 함양군 서상면 부근
◆대지 450평, 건평80평
◆황토방1, 방1, 거실1, 창고1
◆조경 · 주차시설완비 · 계곡흐름
◆가액 : 9500만원 (절충가능)
011)9601-4228
0596)973-5201

불자 세상보기

생활정보

경로연금 대상 늘린다

(생활) 정부는 내년부터 71만5천명의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1인당 월 3만~5만원의 경로연금을 확대 지급하고 의료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 노인 연령도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결식노인 급식지원을 확대, 내년에 국고 77억원을 지원받아 월 200만명의 노인에게 급식을 실시키로 했다.

학교건물 금연구역 포함

(생활) 보건복지부는 초·중·고교 및 대학의 학교 건물과 목욕탕 건물을 금연구역 지정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건강증진법 개정 시행규칙을 이달 말에 공포,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흡연구역 이외의 교무실, 강의실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섬·산간서도 무료인터넷

(통신) 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5일 울릉도·홍도·거문도·노화도·대청도 등 섬지역과 강화도 정선·철원 등 산간지역 전국 101개 우체국에 위성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플라자'를 설치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고민 인터넷 상담

(상담) 한국청소년상담원은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국내 최초로 청소년상담 종합정보망 '유코넷'(YouCoNet)(www.ycuconet.or.kr)을 지난 1일 개통했다. 상담서비스는 학업·진로·성격·가정문제 등에 대해 컴슬러따라가기, 게시판 상담, E메일 상담, 채팅 상담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제공된다.

하루 1시간운동 유방암 예방

(건강) 하루 1시간 이상 운동하는 여성은 유방암 위험을 20% 정도 줄일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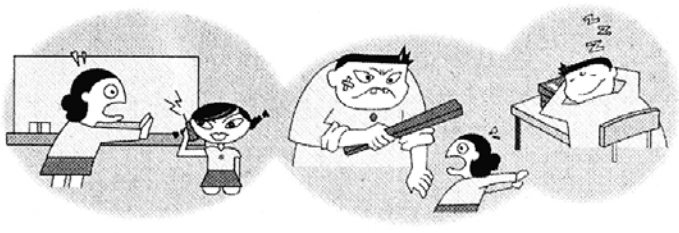
이같은 사실은 미국 브리검부인병원의 비벌리 로크힐 박사가 14년에 걸쳐 12만1천7백명의 미국 여성(30~55세)을 대상으로 운동습관과 유방암 발생률을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수험생 위한 기차여행

(여행) 철도청은 수능시험 뒷바라지를 한 학부모의 피로해소 기차여행 상품을 개발해 수능시험이 끝난 뒤인 19일 1박2일 코스로 운행한다. 오전 8시10분 서울역을 출발해 화엄사, 지리산 노고단을 관광하며, 둘째날에는 우리나라 3대 기도처중 한곳인 남해 금산 보리암과 상주해수욕장을 거친다. 비용은 4인1실 기준으로 10만7500원. (02)392-7788 (042)481-3287

교실붕괴 이대로 좋은가

수업중 자고 떠들고…교사·학생 '서로 딴생각'
"제자는 배움사랑하고 스승은 善道로 인도"
획일적사고 강요 교육방식 대폭 개선돼야



그림·최정근

한 학생이 교과서를 발기발기 찢고 있다. 놀라서 "너 이게 무슨 짓이니?" 라고 물으니 표정 하나 안 바꾸고 "제 취미예요"라고 한다. 학교들이 이처럼 손 쓸 겨를도 없이 무너져가고 있다. 학교라고 말하기에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같은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출석을 부르고 자는 아이 깨우게 하고, 이어폰 빼게 하고, 휴대폰 끄게 하고, 교과서 꺼내게 하고, 수업중 못떠들게 하고, 자는 학생 또 깨우고…. 이건 수업이 아니라 전투예요."

최근 전교조 주최로 열린 '학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표된 교사들의 체험담이다.

이런 모습은 학교에서 이미 일상화 돼 있다. 붕괴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미처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다. 중학교에서는 그래도 덜하지만 그등학교 교실은 배움터의 기능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다. 교사의 지시와 질책을 제대로 따르는 학생도 별로 없다.

지난달 26일 서울고 강당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300여명이 '교실모습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를 놓고 머리를 맞댔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수행평가 도입 등 현실성없고 일관성없는 교육정책을 탓했고, 교사들은 교사를 개혁대상으로만 삼는 풍토에서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모여고 김혜련 교사가 최근 펴낸 〈학교종이 땡땡땡〉(미래M&B 刊)은 이같은 학교붕괴 현상이 위험수위를 넘어섰음을 생생히 전하고 있다. "학교 문을 들어서는 순간 온몸이 짓눌리고 수업시간이 되면 숨이 막힌다. 책상이고 교탁이고 다 때려부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김교사는 털어놓는다.

뿐만 아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교사가 없어 애를 먹고 있기도 하다. 정년단축과 명예퇴직 등으로 퇴직자는 많은데 예산부족을 이유로 신규교사 임용이 되지 않아 과행수업이 빚어지고 있다.

대책 그렇다면 희망은 없는가. 교사와 전문가들은 교사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 평준화 시책의 단점 보완, 공교육의 질 향상등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하지만 교실파괴의 뿌리는 변모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이념과 사고방식에 있다. 김혜련 교사는 "학교 문제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욕구 자체가 다양해진 시대를 사는 아이들에게 획일적 공간과 사고를 강요하는 방식의 교육은 아이들에게서 꿈과 상상력을 빼앗을 뿐이라고 강조한다. 역설적이지만 교실붕괴를 막는 유일한 길은 기성세대의 변신과 이에 따른 신세대와의 조화와 공존에 있는 것이다.

〈선생자경〉에 "제자는 마땅히 배움을 반드시 사랑하며, 그릇된 행위가 없게 하며, 스승을 반드시 공양해야 하고, 스승은 학문을 배우게 하며, 지극한 기예(技藝)를 가르치며, 선도(善道)를 가지고 인도하라"는 부처님 말씀이 있다.

제자와 스승이 마땅히 제 본분을 지키고, 사회가 이들과 함께 호흡할 때만이 진정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한국 뇌물지수 세계2위

국제투명성기구 수출 많은 19개국 조사

국제투명성기구가 세계에서 수출을 많이 하는 1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뇌물공여국가로 발표됐다. 또 우리나라의 부패정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부패국민연대는 지난달 26일 발표된 국제투명성기구의 '뇌물공여목록'을 인용, 한국이 10점 만점의 뇌물 지수에서 3.4점을 얻어 3.1점을 기록한 중국에 이어 두번째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뇌물지수는 인도·브라질 등 수입국의 기업·은행 등의 임원,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770명을 상대로 수출업체들 중 어느나라 사람이 뇌물을 제공하는지를 설문조사해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이날 함께 발표된 각국의 부패지수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99개국 중 자메이카 리투아니아와 공동 50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96년 부패지수 5.02(54개국 중 27위)를 기록한 이래 97년 4.29(52개국 중 34위), 98년 4.2(85개국 중 43위), 99년 3.8로 해마다 부패정도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는 부패지수 10으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아시아권의 싱가포르(9.1) 일본(6.0) 대만(5.6) 몽골(4.3)도 우리나라보다 청렴한 나라로 조사됐다.

"50년내 암·에이즈 정복"

미국인들 미래전망…핵전쟁등 우려

미국인들은 새천년의 삶에 대해 어떤 생각과 비전을 갖고 있을까.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센터가 성인 1천5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0%가 과학·기술·의학·교육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 역시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응답이 많았다. 또 응답자 5명중 4명은 앞으로 50년 내에 암과 에이즈 치료법이 개발되고 민주주의가 계속 확산돼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응답자의 27%는 새천년 삶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절반 이상은 앞으로 50년동안 인구과잉에 따른 식량난과 자원난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하고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발생하며 범죄율도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들은 또 전쟁으로 인한 재난 가능성도 크다고 응답했다.

시론

우리것 세계로



한승원
〈소설가〉

"'김치'가 '기무치'로 '인삼'이 '진생'으로 그냥 두고볼것인가"

임진왜란때 우리들의 도공들을 붙잡아다가 도자기를 대대적으로 생산 수출하여 부자가 되었고, 그 부를 이용하여 세계대전을 치른 나라가 일본이다.

채소 재배 농가들은 해마다 일본에서 수입해온 종자들을 사용하여 농사를 짓곤 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종자들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종자 생산 기능은 날이 갈수록 쇠퇴할 수밖에 없고 외국 수입 종자에 대한 의존도는 무진 높아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외국에서 개량된 농산물들만 살아남고 전통적인 우리 것들은 사라져간다. 토종닭 토종돼지 토종 소들이 사라지고 외국이 원산지인 개량된 것들만 판을 치고 있다.

인삼의 신비한 약효는 몇 천년 전부터 익히 알려져 온 것이다. 인삼은 한국산 인삼이 최고의 것이라고 우리들은 자부하고 있다. 한데 외국 사람들은 인삼의 원산지가 일본이나 중국의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또 그들은 인삼이라는 말은 알지 못하고 '진생'이라는 말만 아는 것이다. 진생은 일본인들이 만든 말이다. 그와 같은 음모는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었다.

일본인들은 인삼을 가공하여 세계 각국에 '진생'이란 말을 붙여 수출하였으므로, 인삼이 원래 진생인 것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심지어는 '진생'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안에까지 역수입되어 한 회사의 약품 이름으로 쓰이고 있을 지경이다.

일본인들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김치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실제로 우리들의 전통 김치 담그는 법을 배워갔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여 김치공장을 만들어 대대적으로 생산을 하고 세계각국에 수출하여 오고 있다.

김치는 그 맛과 영양도 값진 것이지만, 담글 때 사용한 젓갈류로 말미암아 지니게 되는 소화효소가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음식이다.

외국에서 그 김치를 사서 먹는 사람들은 김치의 원산지, 혹은 종주국이 일본인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50%쯤이라고 한다. 일본인들은 지금 일본 안에서 김치 대축제를 열고 대대적인 홍보와 관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우리들의 김치 생산 관매가 일본의 상술로 말미암아 도전받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내에 요리만화 붐을 일으킨 화제작 '미스터 초밥왕'의 작가인 일본의 만화작가 다이스케 데라사와는 한국 김치를 소재로 만화를 그리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렇게 우수한 우리 먹거리를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김치는 우리 것이라고 입으로만 떠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안의 꽃농사꾼들은 장미 한 송이를 재배하여 팔 경우 그 원산지 나라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외국의 약품 회사들은 약초 연구가들을 통해 우리 나라에만 자생하고 있는 전통 약초들을 뽑아다가 재배하고 그 약초 연구를 하고 있다.

외국의 약초연구가들은 우리나라의 단방약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이런 저런 약초들과 그것의 효험과 사용방법들을 속속들이 배워간다. 그들은 약초를 가르쳐주고 녹취해준 댓가를 많아야 5달러쯤 지불할 뿐이다. 암과 염증과 당뇨병에 특효한 것들을 주로 훔쳐 간다. 일단 가져가서 연구를 거쳐 약품 생산을 하고 나면 몇 백 억달러의 이득을 얻게되는 것이다. 그들은 그것들의 약효가 확인될 경우, 그것에 대한 제조 판매 특허를 먼저 얻어내 버릴지도 모른다. 실제로 우리들의 철쭉이나 진달래 따위의 특허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가지고 있다고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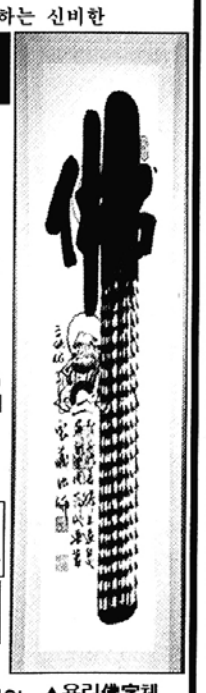
우리는 우리들의 철쭉이나 진달래도 내다 팔 때에는 그들 나라에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하루 속히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바야흐로 우리 강토는 이제 속빈 강정이 되어가고 있다.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한국신기록을 획득한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용린 佛字체」 최초로 공개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 그림, 龍자그림 (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龍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 인터넷 ◆ http://www.maharnall.co.kr

복사름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용린佛字체

▪ 생명의 전화 : (주)(02)2242-0331, 2242-0255
(야)(02)2216-0307, (011)471-1996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禪에서 본 반야심경

학림사 오등선원에서는
중국 大顚조사와 無后子 도인이
투철한 禪의 차원에서 반야심경을
주해한 것을 오등선원
祖室 한암 大元선사께서
禪에 입각하여 冬安居 결제동안
소참법문을 하십니다.
納子를 우선으로 入房시키니
精進과 깨달음의 기연을
맺기 바랍니다.

1999년 11월 3일

연락처
▶ 주소 :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514 학림사 오등선원
▶ 전화 : 042)825-6505(대표)
042)825-1724(원주실)

영남불교대학
통신과정·인터넷과정 모집
포교사 배출기관 (조계종8호)

♣ 정규과정 한학기 3천명이 모이는 기적의 교육도량!
♣ 그 생생한 소리를 멀리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의 저자 우학스님과 교계큰스님(자광스님, 박삼중스님, 무비스님 등)이 펼치는 명강의를 만나십시오..
♣ 1년 수료 후 졸업장을 드립니다.

교과목
■ 기본과정 - 불교학개론, 예불, 반야심경
■ 고급과정(선택)
천수경, 금강경, 원각경, 계초심학인문, 지장경, 법화경, 발심수행장, 화엄경, 법성게, 육조단경, 인도불교문화사
■ 전화로도 신청 가능

영남불교대학
053)474-8228
(http://www. cyberbuddha.or.kr)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가을

그리움의 계절인가.

잔잔하게
부서진 파도는
붉은 노을 속으로
가을을 안고 온다.

솜털 구름처럼
하얗게 피어오르는
여린
갈대숲 사이로

가득히 밀려오는
그리움 하나
그대의
투명한 눈망울이

가슴으로 와
보고픔은
그리움으로 남는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 영 숙

▪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결혼연구원
원장 이 영 숙 (법명: 無生子)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55호 탑골공원 맞은편 시사영어사 뒷편효원빌딩 502호
☎ 대표전화 : (02)2275-5592~3
핸드폰 : 018-277-5592

걸스카우트 불교지역대 '발대'

걸스카우트 활동을 통해서도 불교포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걸스카우트연맹 불교지역대가 결성된 것이다.

걸스카우트연맹 불교지역대는 10월 28일 서울 안국동 연맹 10층 강당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걸스카우트 불교지역대는 한국걸스카우트연맹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종교지역대 설립 사업의 결과로, 40년간 지역대활동을 해 온 가톨릭과 지난해부터 활동을 시작한 원불교에 이어 세 번째로 결성됐다.

가톨릭·원불교 이어 종교계 3번째 창설
회원 60명…다양한 자비·봉사활동 전개
보이스카우트 불교지역대 결성 영향미칠듯



◇걸스카우트 불교지역대 대원일동은 10월28일 한국걸스카우트연맹 10층 강당에서 불자로서 걸스카우트로서 열심히 활동할것을 서약했다.

걸스카우트는 종교를 초월한 단체로 1912년 미국에서 자라나는 소녀들을 착하고 올바르게 키우자는 정신운동으로 시작됐다. 우리나라에는 1946년 몇몇 여성선각자들이 중심이 돼 대한소녀단을 창설하면서 정착됐다.

걸스카우트불교지역대는 그동안 불교지도자의 부재로 결성에 어려움을 겪어오다가 명성여중 안주희 법사, 전 은석초등교 교사 박동원씨 등 10여명의 지도자들이 주축이 돼 지난 여름부터 준비작업을 시작해 결실을 거두게 된 것. 또한 종립학교 교사와 교법사 보이스카우트지도자회 등 지역대를 지속적으로 후원해 줄 육성위원회(위원장 오국근)도 구성했다.

명성여중 안주희교법사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착하고 바르게 살기위한 실천운동으로서의 걸스카우트의 정신과 부처님의 자비평등의 가르침은 일맥상통한다"면서 "걸스카우트의 체계화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적극 활용해 사찰에서 학교에서 건강한 불자청소년을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걸스카우트불교지역대는 60여명의 대원과 대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해 걸스카우트의 이념실천과 불교포교 활동이라는 1석2조의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걸스카우트불교지역대의 활동은 그동안 지역대 결성을 이루지 못한채 지도자회 활동을 하고 있는 보이스카우트불교지역대의 결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걸스카우트 연맹 김온숙조직부장은 "간혹 걸스카우트를 기독교 단체로 오해하는 이도 있는데 불교국가인 태국에서도 많은 불자들이 걸스카우트의 서약대로 '자신의 종교와 나라를 위해' 불교지역대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결성된 걸스카우트불교지역대의 활동은 걸스카우트 활동영역과 불교포교의 영역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은자 기자

강우방의 신라미술 강의

EBS TV 8~22일 방영



석굴암과 돌부처 에밀레종 등의 제작과정 및 연원을 통해 신라미술을 안방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EBS-TV가 8일부터 22일까지 3회에 걸쳐 방송하는 'EBS세상보기 신라미술을 알면 세계가 보인다'(매주 월요일, 오후5시 40분~오후6시)가 바로 그것. 강우방 경주국립박물관장이 진행하는 이 프로는 1일 제1편 '신라의 십이지상'에 이어 △8일 제2편 '진리의 양과 수-석굴암 △15일 제3편 우주에 충만한 부처-경주 남산 △22일 제4편 신체에서 울려퍼지는 진리의 소리-에밀레종 순으로 방영된다. 특히 제3편 '석굴암'에서는 절터 106개와 불상과 석탑들이 골짜기 마다 흩어져 있는 경주 남산의 모습을 영상과 함께 미술적인 가치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김주일 기자

"인터넷 포교 불교코스웨어 개발"

권진영교법사 주장

불교교학수업과 청소년불자 포교를 위해 컴퓨터를 이용한 불교코스웨어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내용은 불교교육연합회가 10월 22일 동국대학교부속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한 제29회 교학연구발표회에서 동대부고 권진영교법사의 '불교코스웨어 개발의 이론과 실제'주제 연구논문을 통해 발표됐다.

권법사는 연구논문에서 "정보화시대를 앞두고 부처님의 설법방법과 불교신행체계를 이론적 근거로한 불교 코스웨어(courseware)의 개발과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불교교학수업에 사용할 수 있는 불교코스웨어를 개발을 위해 교법사는 물론 교사들에 대한 종단차원의 연수 등을 통한 환경조성과 컴퓨터를 이용한 불교교육에 눈떠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특히 달마넷 등과 같은 불교정보망이나, 에듀넷 등의 교육 정보망을 이용해 인터넷 포교에 불교 코스웨어를 적극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권법사는 이번에 발표한 연구논문과 중학교 종교 교사, 학습과정안, 불교멀티미디어 자료모음 등을 cd롬으로 제작 발표해 자료로서의 가치도 부가했다.

이은자 기자

청소년단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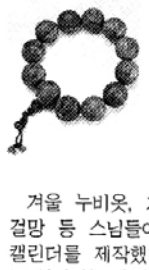
인천 청교련 홈페이지 개설

인천시가출청소년쉼터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매매춘문제해결센타 등을 운영하고 있는 인천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선일스님)가 홈페이지를 개설한다.

인천청교련은 한국정보문화협회에서 벌이고 있는 1시민단체 1홈페이지 갖기 운동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돼, 홈페이지를 개설하게 된 것.

인천청교련은 이 홈페이지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활동과 청소년프로그램, 청소년성폭력상담, 청소년캠프와 거리음악회 등 청소년 관련 사업과 향후 사업계획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청소년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홈페이지는 오는 12월에 선보일 예정이다.

어린이포교회 달력보급



한국불교어린이포교회(회장 법전스님)는 불자들의 신심을 돋우고 교육용으로 쓸 수 있는 캘린더를 제작 발급한다.

겨울 누비옷, 가사, 죽비, 삿갓, 걸망 등 스님들이 쓰는 용품으로 캘린더를 제작했다. 캘린더제작으로 얻어지는 수익은 전액 불교어린이 포교와 사회복지기금으로 쓰여진다.

(02)873-6647

자원봉사활동 사진전

대전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그동안 실시해 온 자원활동의 모습들을 담은 사진 전시회를 11월 10일까지 대전역, 한밭도서관, 평송수련원전시실, 탄방중학교 앞 등 대전지역 일대에서 전개한다. (042)488-0732

함지골 수련원 축제마당

부산 함지골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또래문화를 체험하게하는 제3회 청소년 축제 한마당을 11월 7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연다.

이번 축제마당에는 초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지역주민 3천여명이 참가해 청소년백일장, 청소년사생대회, 청소년국악경연대회, 청소년댄싱경연대회 등을 펼친다.(051)405-5223

부처님 법을 공양합시다

현대불교 '1구좌 1천원 법보시'…합본집도 법공양 예정

계절은 어김없이 가을의 문턱을 넘어 겨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앞두고 양로원과 소년원, 고아원 등 소외된 이웃들의 보금자리에서는 월동준비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몸만 따뜻하다고 그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까요? 마음이 따뜻해야 몸도 따뜻해 집니다. 소외된 이웃과 우리사회를 지키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문보내기 법보시 운동에 동참합시다. 신문보내기 법보시는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과 지혜의 눈을 뜨게 하고, 추운 겨울을 보내는데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1구좌 1천원으로 동참하는 신문보내기 법보시운동은 동참 시주자에게는 보시공덕 가운데 으뜸인 법보시 공덕을 짓게하고, 시혜자에게는 귀한 부처님법을 만나는 인연공덕을 짓게합니다. 신문보내기 법보시 운동이 확산되면서 총 8만8백84구좌, 전국 1천여불자들이 동참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현재 현대불교신문은 군법당(161곳), 경찰서(233곳), 교정청(1곳), 교도소(57곳), 구치소·감호소(19곳), 소년원(12곳), 감별소(6곳), 아동복지시설(37곳), 노인복지시설(24곳), 장애인복지시설(12곳), 부랑인복지시설(3곳), 청소년복지시설(17곳), 지역복지시설(21곳), 사회복지단체(24곳), 복지조합(8곳), 복지협의회(14곳), 복지종별협회(8곳), 사회복지기관(41곳), 기업복지단체(18곳), 복지관련대학(42곳), 불교병원(13곳), 국군병원(14곳), 경찰병원(2곳), 기타(88곳) 등 총 875개 시설에 매월 1,152부의 신문을 법보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98년도 불교계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98 현대불교신문 합본집〉법보시도 받고 있습니다. 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소년원, 감별소 등 60곳에 발송할 계획입니다.

신문 법보시 현황

구분	건 수	부 수
군법당	161	212
경찰서	233	233
교정청	1	1
교도소	57	138
구치소\감호소	19	77
소년원	12	12
감별소	6	6
아동복지	37	37
노인복지	24	24
장애인복지	12	12
부랑인복지	3	3
청소년복지	17	17
지역복지	21	21
사회복지단체	24	24
복지조합	8	8
복지협의회	14	14
복지종별협회	8	8
사회복지기관	41	41
기업복지단체	18	18
복지관련대학	42	42
불교병원	13	65
국군병원	14	45
경찰병원	2	6
기타	88	88
총계	875	1,152

후원자 명단

간종흡 강갑순 강경중 강말숙 김미영 강민정
강병원 강복지관 강성욱 강숙희 강순영 강신택
강영신 강옥구 강은영 강인성 강인숙 강장옥
강정기 강정숙 강정화 강정희 강종남 강지숙
강춘계 강태근 강태복 강현숙 강화진 경순자
고계환 고강진 고덕현 고순진 고영배 고영이
고용순 고은주 고재선 고필선 공광근 구진모
구필화 권갑남 권계순 권동희 권미경 권복연
권복자 권복현 권성행 권순권 권순혁 권연지
권영숙 권영현 권오석 권오웅 권오진 권옥숙
권옥순 권은경 권진순 권차순 권춘순 기현정
김경선 김경수 김경숙 김경열 김경옥 김경혜
김경훈 김경희 김광숙 김광순 김광태 김교안
김국중 김귀남 김규정 김근삼 김근영 김금순
김기춘 김길순 김남경 김남식 김남숙 김대현
김덕임 김덕자 김두영 김말남 김목인 김명덕
김명옥 김명훈 김명희 김문자 김미란 김미명
김미선 김미숙 김미순 김미정 김민옥 김범수
김범서 김병주 김병철 김병훈 김복남 김봉운
김봉해 김상덕 김상림 김상분 김서분 김석순
김석용 김선남 김성경 김성민 김성순 김성자
김성진 김성혜 김성희 김승자 김수영 김수희
김순경 김순남 김순녀 김순덕 김순련 김순식
김순옥 김순희 김승재 김승지 김식자 김신엽
김애란 김애리자 김애자 김양순 김여경 김연득
김연봉 김연수 김연옥 김연자 김연희 김영란
김영만 김영배 김영삼 김영숙 김영순 삼영식
김영아 김영자 김영희 김 옥 김옥경 김옥련
김외선 김 용 김용준 김양순 김원용 김원우
김유학 김은성 김은숙 김은환 김은희 김인성
김인숙 김일동 김자경 김정란 김정숙 김정옥
김정은 김정이 김정자 김정주 김정희 김제철
김종미 김종애 김종옥 김종일 김주곤 김준만
김준모 김준엽 김준형 김준희 김지현 김철수
김춘호 김춘화 김춘희 김치훈 김태현 김태훈
김택곤 김한나 김 헌 김현수 김현숙 김형창
김형철 김혜경 김혜기 김혜숙 김혜옥 김 호
김호영 김효홍 김화남 김화수 김활수 김희남
김희수 김희순 나숙희 남상수 남성진 남수경
남수미 남일우 남철수 남하자 노만효 노유택
노은택 노진희 노창순 노혜숙 덕운화 덩형관
도옥희 도재권 동사섭 류경훈 류봉수 류영란
류정님 류정오 류조형 마정혜 마진효 명세정
모영희 목포지원 무 명 문명순 문병기 문상철
문숙자 문순조 문형주 문화자 민경주 민병용
민복순 민소영 민승자 민응식 민하식 박강숙
박경남 박경래 박경선 박경수 박경숙 박경애
박광용 박광호 박구숙 박금숙 박기규 박남순
박남옥 박내순 박명의 박무순 박미경 박미정
박봉주 박상규 박상기 박상섭 박석열 박성래
박성수 박성진 박수진 박숙경 박순덕 박순득
박승희 박신영 박양님 박양자 박영애 박영우
박영준 박옥남 박용무 박용숙 박용자 박원규
박은기 박은식 박은주 박익형 박재련 박정산
박정수 박정희 박정화 박제원 박종두 박주연
박준형 박준호 박진환 박찬연 박찬혜 박천혜
박철수 박춘자 박태규 박필인 박현순 박현주
박혜명등 박혜숙 박혜정 박혜진 박금순 방명섭
방순환 배경숙 배동금 배병진 배성호 배순자
배연수 배춘자 백상준 백성옥 백양심 백유선
백현기 백혜원 백경선 법인스님 법현스님 변미자
본사직원 본원신도 본원약형 봉불중 부산신도회
부산지원 사단5동법회 한마음시랑방 상미숙
서경자 서귀연 서말자 서말희 서명선 서병학
서봉순 서부용 서삼조 서옥경 서을은행 서윤아
서정숙 서 준 서 진 서희선 서춘연 서충우
서형관 석해원 선유진 선장재 선정호 선현자
설갑문 설정수 설지석 성동환 성묘경 성민자
성재영 성필제 성호승 소진임 손광자 손금화
손미숙 손봉희 손상용 손인화 손정숙 손혜숙
손화자 송광옥 송규환 송미숙 송미애 송혜원
송성의 송양숙 송연숙 송인영 송정구 송필재
신경희 신기호 신미향 신미환 신복순 신상섭
신수호 신순애 신순희 신시균 신원민 신유진
신은진 신재락 신재철 신조현 신진임 신택건
신호용 신홍재 심광엽 심단희 심묘희 심보희
심성학 심원희 심일희 심춘자 심향희 심희주
안성모 안순옥 안영선 안진후 양병덕 양영애
양은숙 양의준 양점순 양정순 업남루 엄정임
영등포법회 오동규 오두환 오막순 오명자 오미환
오병현 오선희 오세철 오승준 오순자 오승종
오영희 오주중 오주희 오정희 오찬일 오창희
오현승 오현자 오형민 오형희 오희숙 옹산구법회
옹환웅 우경애 우금식 우상용 울산제일 울산한마음
원정옥 유강수 유금자 유미양 유선재 유양상
유은경 유인목 유재훈 유정연 유정용 육성희
윤경애 윤경희 윤기수 윤미희 윤병창 윤병희
윤상문 윤석범 윤성윤 옥 희 윤인자 윤재경
윤태학 윤준상 윤지동 윤지은 윤창섭 윤태원
윤향수 은경애 이강희 이경민 이경숙 이경아
이경원 이경인 이경자 이계선 이광형 이교재
이구자 이귀숙 이규만 이금순 이금주 이기오
이기철 이남심 이대섭 이덕희 이동기 이명규
이명순 이명자 이묘연 이미경 이미나 이미애
이미자 이번택 이병규 이병만 이병진 이보경
이복순 이봉우 이분순 이상란 이상옥 이상은
이성재 이송자 이수자 이숙희 이순규 이순랑
이순옥 이순임 이순자 이순천 이순호 이순희
이승숙 이숭은 이승훈 이신정 이아리 이애자
이 씨 이양희 이억수 이연규 이영경 이영숙
이영순 이영조 이여희 이오석 이옥택 이옥영
이옥형 이옥희 이우승 이유순 이은옥 이은주
이은진 이의남 이익수 이인상 이인숙 이임순
이장학 이재국 이재은 이재화 이점자 이정녀
이정례 이정수 이정숙 이정순 이정자 이정혜
이정희 이종돈 이종락 이종석 이종철 이준민
이준석 이준재 이준희 이중근 이지영 이지형
이지경 이진수 이진영 이진철 이창준 이창하
이창호 이철주 이태우 이태인 이태호 이태훈
이태희 이관순 이칠순 이한희 이향미 이현숙
이현실 이현안 이현양 이현주 이형호 이혜란
이혜숙 이혜옥 이호진 이화숙 이화영 이효순
익명 인천신행회 임경희 임기남 임명숙 임명진
임선원 임소연 임옥재 임완숙 임우식 임재순
임정숙 임종미 임채임 임춘심 임혜순 임형태
임형민 임희자 장금강심 장 미 장 욱 장영찬
장 절 장 정 장정숙 장정자 장정희 장혁자
장혜기 전갑임 전계연 전규백 전병임 전복순
전상우 전순남 전순자 전승현 전연석 전연택
전영자 전위자 전유정 전인성 전인호 전정순
전정희 전진희 전현수 전현진 정건재 정계영
정구순 정금란 정금란 정동한 정묘아 정무영
정문식 정미경 정미련 정미향 정미형 정민아
정복순 정분순 정분선 정삼준 정상열 정숙남
정숙점 정연동 정연봉 정연석 정연태 정연희
정영기 정영신 정옥녀 정옥찬 정은채 정인순
정점오 정종국 정정숙 정정순 정정자 정진육
진필수 정학선 전해정 정혜택 정현동 정호채
조경자 조귀자 조남섭 조남주 조명식 조미란
조미숙 조미순 조민우 조분숙 조신효 조승우
조악식 조양식 조영숙 조옥희 조은희 조은희
조유숙 조윤호 조은미 조인자 조종현 조철제
조혜숙 조혜연 주우순 주인공 지묘행대림 지은임
지유미 지정인 진경수 진광현 진영숙 진영화
진옥례 진옥상 진원중 진재영 진대용 차동호
차상환 차수왕 차용옥 차정순 차현주 차희자
채희순 천재경 천현숙 천화조 창꼬도소 최경락
최경자 최경진 최광례 최만례 최명희 최병순
최병언 최병조 최복내 최복순 최상철 최서은
최서원 최성근 최성녀 최성휴 최수현 최심형
최영도 최영명 최영봉 최영숙 최은희 최재두
최재혁 최정근 최정기 최정문 최정희 최주현
최형선 최형선 최희원 주청희 충남대교수불자회
타행남부 표혜명 하금자 하명자 하석남 하순임
하흥룡 한국여성불교 한기선 한마음선원 한명숙
한미순 한병소 한상현 한숙희 한순자 한아름
한양지 함임련 한청희 한춘명 한태희 함효심
함공점 함기석 함명익 함영숙 함지은 허명희
허상임 허선숙 허성국 허수자 허승자 허의숙
허재승 허재영 허정남 허정호 허종환 허찬승
허하연 허희숙 현보희 현수천 현일스님 현주월
혜원당 홍기장 홍명숙 홍민자 홍소순 홍어순
홍영호 홍인자 환금철 황기용 황명문 황옥란
황옥석 황옥순 황점숙 황정숙 황향명
(총 80,884 구좌 총 945명- 중복자제외)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불사에 관련해 문의 주시면 정성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보광사 불상·닫집

부처님을 향한 마음

대·한·불·교·예·술·원

오랜 전통과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최고의 작품만을 고집해온
대한불교예술원이 불교문화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서울 석림사 목탱화 법당

佛事 시공 전문업체

- 조각부 - 불상, 사천왕, 산신상, 목탱화
- 목공부 - 수미단, 닫집, 경탁 외
- 건축부 - 전통 건축, 현대식 건축 (초절약형) 임시법당
- 석공부 - 불상, 석등, 부도, 탑
- 화공부 - 단청, 탱화, 담채

대한불교예술원 대표 한성용 합장

공장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무봉리 545-5
TEL : 02)930-1681, 0357)542-1681FAX : 0357)543-3296 H.P : 011)336-5200

사무실 서울시 종로구 수성동 원당빌딩 201호
TEL : 02)736-9948

·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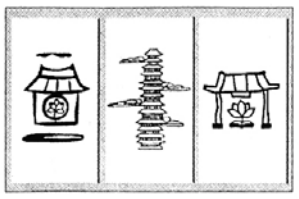
마 하 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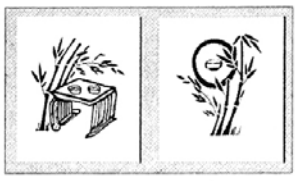
(http://www.mahamall.co.kr)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 <몰.부다피아>은
불교인의 정서에 맞는 불교 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쇼핑, 저렴한 가격, 마음껏 즐기는 불교문화 공간을
마하몰에서 만나십시오.

☎ 주문전화 02-732-1522 (직통)
02-737-8881 (대표)

기도포

기장 84cm×폭 39cm/ 재질- 면 가격:₩1,600

다 포

기장 50cm×폭 29cm/ 재질- 면
가격:₩800

찻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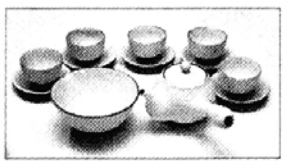
규격 52×32×8cm/ 재질 소나무
가격:₩54,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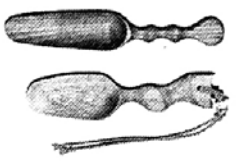
다기함

규격 50×39×15cm/ 재질- 소나무
가격:₩126,000

관음분청자기

가격:₩495,000

고산다기

가격:₩12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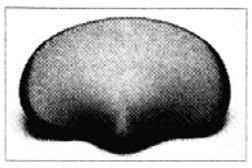
차 시

재질 - 참나무 고목 등
가격:₩15,000

불성차


가격:우전₩90,000 / 세작 ₩50,000
중작₩30,000 / 대작₩20,000

경 상

규격 72×34×32cm / 재질 느릅원목
가격:₩8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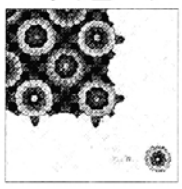
참선명상방석

규격 39×43cm
가격:₩27,000
· 실용신안:제 398-025039
· 의장등록:제387
· 인체공학적 설계로 척추보호

옥베게

편안한 수면은 어떤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가격: 1개 ₩30,000(셋트₩56,000)

불자반지

재질 금 · 큐빅(15돈)
※싸이즈는 호수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가격:18k₩130,000/ 14k ₩120,000

불교전통창살문양손수건

· 재질 면/ 인쇄 나염
· 문양 용문사 대웅전 창살
가격:₩5,000

옥액자

(대) 17.8×22.5cm ₩15,000
(중) 3.7×16cm ₩10,000
(소) 7×9cm ₩3,000
· 색상 베이지 톤종 택색
· 재질 옥

반야심경 종창걸이

· 색상 검정 · 금색
가격:₩9,000

황토로 만든 수행자의 그릇
와 발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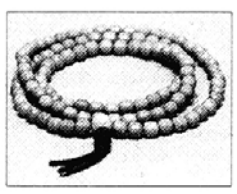
가격: 4합 ₩60,000 / 무게 : 2.7kg
2합 ₩30,000 / 무게 : 1kg

걸 망

색상 밤색 · 베이지 · 회색
가격:₩15,000

수암옥 염주세트

재질 옥 (원산지- 중국)
가격:₩98,000

생광석 108염주

가격:₩35,000

건강 옥 염주

청옥 · 백옥(小)
₩30,000
청옥 · 백옥(大)
₩40,000

반야심경 자개경판

가격 ₩600,000

반야심경 지통

재질 대리석 석분(돌가루)
규격(大)
높이 32cm×지름 25cm
₩220,000
규격(小)
높이 26cm×지름 20cm
₩140,000

금동미륵반가사유상

■ 도탕 · 금칠품
₩350,000
■ 개금
₩580,000

관음보살감로병

가격:₩500,000

용거북시계

가격:₩64,000

한국불교총람

4×6배판/ 1,114쪽/
양장제본
가격:₩120,000

한국불교총람 CD


가격:₩60,000

달마순금판 액자

규격 27×32cm (4자크기)
19×15cm (순금판 크기)
· 실용신안등록 24266호
상반신
가격: ₩120,000

달마순금판 액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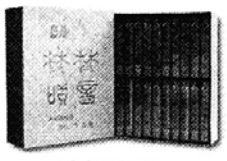
규격 27×32cm (4자크기)
19×15cm (순금판 크기)
· 실용신안등록 24266호
전신
가격: ₩120,000

무비스님 특강테잎

금강경강의/ 지장경강의/ 진심직설강의
가격: 각 ₩45,000

문구암스님 범음범패 비디오테잎

· 1부 제대령
· 2부 관욕
· 상영시간 각 60분
가격: 각 ₩25,000

문구암 스님 범음범패 테잎

가격:₩60,000

청화선사 대법회

비디오 테잎
가격: ₩15,000

부처님 일대기


비디오 테잎 (아동용)
가격: ₩10,000

바위속에 숨은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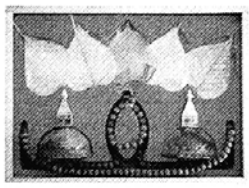
비디오 테잎
가격: ₩13,000

영인스님 예불천수경 CD


가격:₩9,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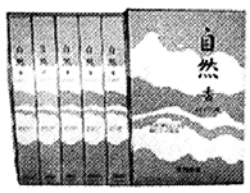
연좌대불상 진주

규격 25×30cm 가격:₩100,000

석가모니 탄생관련 성품

성품내용 성염(은색염), 성토, 성수, 성주
(인증서 첨부) 가격:₩148,000

명품향

가격:₩12,000

자연향101

규격 265×165×5cm
가격: ₩10,000(개당 ₩2,000)

자연향102

규격 155×85×3cm
가격: ₩4,200

박범훈 작곡집 1

가격: ₩9,500

날개CD

가격: ₩9,500

향나무 열쇠고리

· 안전운전
· 재수대통
· 소원성취
· 달마왕
※300개 이상 주문시 원하는 문구를 넣어드립니다.
가격: 각 ₩3,000

눈안마기

눈의 피로 감소! 가격:₩49,000

쑥엑기스

가격:₩55,000

쑥 환

₩56,000 (1달분 1통 1,500정)
₩90,000 (2달분 2통 3,000정)

오보크린

1세트 3개 ₩18,000

전자파제거장치

가격: ₩9,000(2개 한세트)

연꽃양면장수

규격 25×25cm(받침대 포함)
가격:₩600,000

싸이버에밀레종 봉황청동

재질 합금
좌대 30cm
종높이 15cm
종지름 11cm
가격: ₩143,000

싸이버에밀레종 팔각개금

재질 주석
종높이 17cm
종지름 12cm
가격: ₩200,000

싸이버에밀레종 사각동록

재질 합금
좌대 26cm
종높이 15cm
종지름 11cm
가격: ₩143,000

바라밀 건강칫솔

가격: ₩3,900

반야심경 향로

(가정용) 규격 4높이×7cm(지름)
가격:₩25,000

향 적 원 … 고향의 맛을 선물로

본 제품은 순창군 복흥면(해발300M) 지역에서 직접 농사지은 우리 농산물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무농약,무방무제,무조미료 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15도 이하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판매가 (본 제품은 1kg 기준임)
· 고추장 12,000원
· 무우 장아찌 12,000원
· 된장 7,000원
· 마늘쫑 장아 12,000원
· 쌈장 7,000원
· 된장 풍잎 12,000원
· 더덕 장아찌 30,000원
· 된장 깻잎 12,000원
· 오이 장아찌 12,000원
· 산초 장아찌 30,000원
· 감 장아찌 12,000원
· 울외 장아찌(마나스키) 12,000원
· 간장(1.8L) 8,000원

에밀레종 평면받침

지름 11cm
높이 18cm
가격: ₩63,000

에밀레종 사각받침

지름 15.5cm
높이 25cm
가격: ₩219,000

에밀레종

지름 11.5cm
높이 18.5cm
가격: ₩37,000

학산가족 숫자놀이

아동용CD · 3세 ~ 5세
가격:₩20,000

감잎차

가격:₩35,000

법회안내

사성제 · 팔정도 강의



보각스님(중앙승가대 교수) 3일, 10일 오후 7시 30분 서울불교청년회 기초교육원 삼법인 · 사성제 · 팔정도 강의 법회.(02)730-9108

3일 다보법회 법문



박완일법사(전 전국신도회장) 3일 오후 2시 대한불교진흥원 11월 다보법회.(02)703-0108

'대승보살의 길' 법문



정병조교수(동국대) 3일 오후 7시 국민체육진흥공단 무량회 '대승보살의 길 - 10바라밀다 실천의 미' 주제 법회.(02)2240-5291

'숨쉬는 이야기'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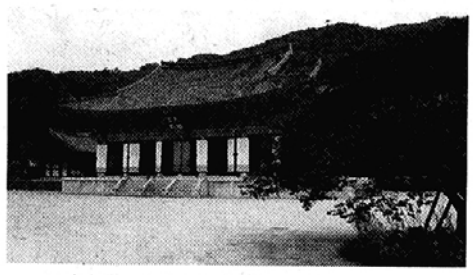


임경택교수(목포대) 7일 오전 11시 정토회 '숨쉬는 이야기' 주제 일요초청법회.(02)587-8993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 캘린더

11월4일 (목)



◇깊어가는 가을, 불교성지에서 신심을 다지자.

■선운사 · 불갑사 · 송광사 등 순례=용진신행회는 7일까지 도솔산 선운사, 영광 불갑사, 토말 미황사, 백련사, 대흥사, 송광사 등지로 철야성지순례법회를 떠난다.(02)2279-1191

■낙산사 홍련암 순례법회=능인선원은 오전 6시 낙산사 홍련암으로 11월 순례법회를 떠난다.(02)577-5800

11월5일 (금)

■최준식 교수 '한국전통 속의 생태사상' 강좌=한국불교환경교육원은 오후 7시 30분 정토회관 3층 강당에서 이화여대 최준식교수의 '한국전통 속의 생태사상' 강좌를 진행한다.(02)587-8997

11월6일 (토)

■길상사 거사림 수련회=길상사는 7일까지 거사림 회원 수련회를 연다.(02)3672-5945

■서불청 정진법회=서울불교청년회는 오후 6시 30분 서울 우면산 대성사 대웅전에서 11월 정진법회를 갖는다.(02)730-9108

■가족법회=우리는선우는 오후 3시 요가 침술 지도사 이영태씨 초청, 토요 가족법회를 연다.(02)2278-8672

■'한국불교정보화의 과제' 학술발표회=한국교수불자연합회는 천태종 관문사에서 한국불교 정보화의 과제를 주제로 추계학술발표화를 갖는다.(02)720-6618

11월7일 (일)

■금강메아리 수리산 산행법회=서울불교산악회 금강메아리는 경기도 수리산 수리사로 11월 산행법회를 떠난다. 오전 9시 30분 1호선 명학역에서 집결한다.(02)772-9517



◇산을 오르며, 호흡하며 깨달음의 길을 따라가보자.

■성주사지 참선기행=현대불교신문사는 성주산문의 중심도량이었던 성주사지와 무량사, 장곡사 등지로 구산선문 참선기행을 떠난다.(02)722-4162

■죽림정사 관음전 천일기도법회=죽림정사는 오전 10시 관세음보살전 천일기도법회 입제식을 갖는다.(032)679-3490

■수험생을 위한 특별법회=능인선원은 오전 10시 30분 대법당에서 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한 특별법회를 연다.(02)577-5800

11월9일 (화)

■선운사 · 내소사 성지순례=화요문화답사회는 오전 8시 고창 선운사, 내소사 등지로 성지순례를 떠난다.(02)2275-4333

11월10일 (수)

■금수사 수계 및 순국선열 55위 추모대법회=원효종 총본산 금수사는 오전 10시 수계 및 순국선열55위 추모대법회를 봉행한다. 오후 2시에는 중요무형문화재 범패보유자인 송암스님 초청 영산대법회도 진행한다.(051)467-3316

종단소식

조계종

동화사 불교 체험마당

대구 동화사(주지 성덕)는 개산 1506주년을 맞아 불교문화체험 한마당을 연다.

7일까지 열리는 이번 불교문화체험 한마당에는 서각초대전, 서각시연 및 체험하기, 목장승깎기 시연, 불교관화 · 경관인출시연, 달마그리기, 불교가훈써주기 등의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053) 982-0101

태고종

대각국사 탄신 944돌 다례

천태선종 창종주 대각국사 탄신 944주년 기념 다례법요식이 6일 오전 11시 순천 선암사 만세루에서 봉행된다. 이날 대각국사가 친히 수행했던 금란가사가 일반에 공개된다.(0661)754-5247

천태종

금룡사 관음불상 점안

구미 금룡사(주지 지도)는 11일 오전 10시 관음불상 점안식을 봉행한다. (0546)452-6570

진각종

추경예산 17억 의결

종의회는 10월20일 제 319회 정기종회를 열고 17억 1천 9백여만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추가경정예산은 전산실 시스템 도입 및 프로그램 개발, 국제불교교류, 홍보비디오 제작, 군불교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종의회는 또 종조 회당대종사 탄생 1백주년 기념사업 봉행위원회를 통리원장 직속 전담부서로 구성키로 했다.

보살십선계 관정불사

진기 53년 삼매야계단 보살십선계 수계관정불사가 서울 탑주심인당에서 8일 오후 1시, 대구 희락심인당에서 9일 오후 1시에 각각 봉행된다. 이번 보살계의 증명아사리는 각해 총인, 전계아사리는 도흔종사, 갈마아사리는 혜일 종사, 교수아사리에는 지광종사이다.

법륜종

5일 총무원장선출 종회

중앙종회는 5일 오전 11시 서울 총무원 3층 대법당에서 임시종회를 열고 제5대 총무원장을 선출한다.

조동종

4~6일 중앙연수교육

총무원(원장 학봉)은 4일부터 6일까지 2박3일동안 오후 1시 화성 보문사에서 제5차 중앙연수교육을 갖는다. (02)379-0027

총지종

호국 달마사와 결연



통리원(원장 총지화)은 28일 경기 화성군 소재 육군 51사단 군법당에서 호국 달마사(법사 정진권 중위)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총지화 통리원장과 효강 법장원장, 경인교구 승직자 등 총지종 관계자들과 51사단 사단장 및 군법사 호국달마사 신도회장 등 총 1백여명이 참석한 이번 자매결연식은 1부 법회에 이어 호국달마사 현안 및 개선책을 위한 간담회도 열렸다.

총지종은 이날 호국달마사에 컴퓨터, TV, 세탁기등 4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미륵종

사미계 수계 · 법계고시

총무원(원장 송정)은 2일부터 2박3일간 충북 음성군 정도사에서 연수교육을 갖고 4일 사미계 수계와 법계고시를 실시한다. (042)535-5522

무량종

총무원 개원법회

총무원 개원법회가 5일 정오 서울 종로구 홍지동 76-2 무량정사에서 열린다. 이날 총무원장 지은스님 상임부원장 령관스님 종회의장 혜안스님 등 종단간부 스님들과 신도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무량종은 〈아미타경〉을 소의경전으로 지난 4월 1일 창종한 대승교화종단이다. (02)3216-1600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 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게 시 판

알림

▲노인 무료진료=두송종합사회복지관은 7일 복지관에서 65세이상 노인 무료진료를 실시한다. 진료과목은 양 · 한방, 안과, 정형외과 등으로 진찰과 약처방을 한다.(051)265-9471

▲월악산고추 · 멸치액젓 판매=강남포교원 생협에서는 월악산 고추와 홍화씨, 멸치액젓 등 신선한 특산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02)539-2631

▲장애인 · 노인 이미용서비스=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1층 미용실에서 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 노인을 대상으로 이미용서비스를 실시한다.(02)571-2988

강좌

▲무료한지공예=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4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무료한지공예를 지도한다. 사각함, 필통, 찻잔받침 등을 제작한다.(02)2282-1100

▲취미 · 직업교실=낙동종합복지관은 지역민들을 위한 노래교실, 에어로빅, 홈패션, 양재, 노인대학 등의 취미교실과 미용, 한식, 양식, 출장요리사 등 직업교실을 연다.(051)271-0560

▲재활체조교실=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트레칭, 기공체조, 명상 등의 재활체조교실을 연다.(0443)652-0900

▲이미용자격증반=본동종합복지관은 머리마을자격증반을 연다. 컷트, 파머, 드라이, 신부회장 등을 지도하며, 4개월 과정이다.(02)817-8052

▲문화강좌=양정청소년회관은 일본어, 서예, 가야금, 장구, 노래교실, 힙합댄스, 탁구, 뮤지컬영어 등 성인과 청소년을 위한 가을강좌를 연다. 선착순 마감.(051)868-0750

▲달마어록 강의=강남포교원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직장인을 대상으로 〈달마어록〉 경전강의를 실시한다.(02)539-2631

▲성인취업 창업 대비반=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성인 취업 및 창업을 위한 한식조리사, 발관리전문가, 미용자격증 대비반을 개설. 4개월 과정, 수시접수.(02)852-0525

▲신바람노인교실=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60세이상 노인을 위한 신바람노인교실을 연다. 단전호흡, 생활체조교실 등을 운영한다.(02)571-2988

▲법연사 지장불교대 개강=법연사 서울법당은 23일 지장불교대학을 개강한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전 조계종 종정 서암스님 등이 강의한다.(02)651-8853

▲위빠사나 수행지도=강남포교원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오후 7시 3층 수선당에서 대념처경과 청정도론을 중심으로 위빠사나 수행을 지도한다.(02)539-2631

모집

▲보육사=송암동산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돌봐줄 보육교사를 모집한다. 자격은 고교졸업이상의 여성불자와 봉고차 운전이 가능한 남성불자.(0345)433-5326.

▲노인급식 지원봉사자=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급식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주 1회 오전 9시~12시 30분까지 급식준비 및 배식을 할 수 있으면 된다.(02)852-0525

▲무의탁노인 난방기기후원자=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겨울철에 대비 무의탁 노인가정의 난방기기 설치를 위한 후원자를 모집한다. 난방기기 관련 업체 및 난방기기를 소유한 개인으로 가스 및 전기난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02)385-1351

▲중고재고물품 기증자=한솔종합사회복지관은 생필품, 가전제품, 의류, 신발 등 중고 및 재고물품 기증자를 기다린다. 모아진 물품은 생활보호대상자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여진다.(0342)716-4215

답사

▲무주 적상산 일대=여래지답사회는 7일 오전 7시30분 무주 적상산 일대로 답사를 떠난다. 안국사와 양수발전소 상부댐 등도 둘러본다.(02)3445-0202

▲내장산 답사=화요테마기행은 9일 오전 7시 30분 정읍 내장산 일대로 가을기행을 떠난다.(02)514-5511

부음

▲한마음선원 본원 정한영 사무장의 부인 홍종부씨가 10월25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한마음선원 재단사무실 유상훈 부장의 모친 이봉남씨가 10월28일 별세했다.

인 터 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솔선식(2개월 50만원), 솔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래한방)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어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 법륜 합장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

노숙자 시설 겨울나기 '비상'

교계 24곳 후원자 줄고 예산 부족
난방 · 김장 어려움… '추운겨울' 걱정

교계 노숙자 수용시설들의 월동 준비에 빨간불이 켜졌다. 겨울철에는 평소보다 2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나 이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후원은 뚝 끊기고, 수용해야 할 노숙자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이래저래 어려움이 배가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현재 노숙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교계 시설들은 조계종 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보현의 집 4곳과 경불련의 아침을 여는 집, 우리는 선우의 화엄동산 등 6곳과 옥수·구로·삼전·청담·능인·길음·자양·본동 복지관 등 14곳으로 모두 4백20여명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설 대부분은 이달초부터 난방등 겨울철을 대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지만 빈약한 재정형편에 답답한 가슴만 쓸어내리고 있다.

교계에서 가장 많은 1백90여명의 노숙자를 수용하고 있는 영등포 보현의 집은 현재의 한달 평균 1천5백여만원의 예산으로는 올 겨울을 넘기기 힘든 상태다. 난방비는 물론 김장과 담요, 겨울의류, 온수시설 등의 준비가 필요하지만 조계종 복지재단의 지원도 한계가 있는데다, 수용정원 3백20명이 꽉 들어찰 경우 운영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그렇다고 시에서 난방비 등 겨울철에 필요한 지원금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니다.

서울 용산과 종로, 그리고 부산 보현의 집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많게는 80명에서 적게는 20여명을 수용하고 있는 이들 역시 부족한 예산탓에 후원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지난해와는 달리 후원도 거의 끊긴 상태. 노숙자들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점차 곱지 않은 시각으로 바뀌면서 흔쾌히 후원에 나서는 사람이나 단체는 찾기 힘들게 됐다.

이들 수용시설들이 계절이 바뀌면서 안게 되는 또다른 고민은 노숙자들의 취업문제. 겨울철에는 평소보다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여러 곳의 인력회사와 연계해 일자리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노숙자들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을 반영하듯 각급 회사들도 선뜻 일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다.

특히 여성 실직자들만을 수용하고 있는 화엄동산은 남성들과는 달리 필요한 일상용품이 더 많은데다, 공공근로 일자리도 거의 없어 공장이나 식당 등의 일자리 찾아주기에 애를 먹고 있다.

복지관들의 경우는 복지관 예산이 일부 편성돼 있어 수용시설들보다는 나은 형편. 하지만 복지관들 역시 부족한 재정탓에 후원에 큰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처지다. 게다가 복지관 특성상 이들의 재활교육까지 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더욱 신경이 쓰인다.

그러나 복지관들이 겨울철이 되면서 정작 우려하는 것은 이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을 편안하게 여기는 타성에 젖는 노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겨울철에 일자리를 잃을 경우 오히려 시설에서 안주하려는 노숙자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때문에 이들의 자활의지를 북돋워주기 위한 각종 직업교육과 정서프로그램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영등포 보현의 집 이영훈 생활지도사는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부족한 대로 운영이야 되겠지만 이것은 노숙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현재로서는 교계의 관심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교계 노숙자 시설

복 지 관	전 화
보현의 집(서울 영등포)	678-4992
보현의 집(서울 용산)	711-7735
보현의 집(서울 종로)	737-4894
보현의 집(부산 동래)	051-506-0146
아침을 여는 집	924-1010
화엄동산	2642-1363
옥수종합사회복지관	2282-1100
구로종합사회복지관	852-0522
삼전종합사회복지관	421-6077
청담종합사회복지관	806-1376
능인종합사회복지관	577-5800
길음종합사회복지관	985-0161
지양사회복지관	458-6796
본동사회복지관	817-8052



◇남양주 봉인사가 10월 24일 개원한 수련원 자광전.

봉인사수련원 자광전 낙성

스님 · 재가자에 개방

남양주 봉인사(주지 적경)는 10월 24일 석주스님(칠보사 조실)을 증명법사로 3백여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전문수련원 자광전 개원식을 개최했다.

이날 문을 연 자광전은 총건평 2백50평에 3층규모이며 법당수련장 60평, 대중방 40평, 휴게실 30평, 식당 40평, 좌선실, 행선실, 욕실과 불박이장을 갖춘 10개 방사등을 갖추고 있다.

주지 적경스님은 인사말에서 "창건주 한길로 법사의 교화도량 유지를 받들기 위해 자광전을 건립케 됐다"며 "스님들뿐 아니라 불자들이 찾아와 자유스럽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봉인사는 여래선(위빠사나) 전문수행자를 모집한다. 매달 회비 1만원이면 1년회원으로 자동가입되며, 3일 사마타수행과 7일 위빠사나수행을 통한 10일간 전문적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또 책자와 테잎, CD도 제공된다. 0346) 574-5585.

김원우 기자

부산 금정중 수계식

금정중학교(교장 서정락) 제25회 수계식이 10월 27일 학교 운동장에서 치뤄졌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성오스님을 계사로 진행된 이날 수계식에는 재학생 박영철의 293명, 교직원 가족 3명, 학부모 24명 등 총 327명이 계를 받았다.

천미희 기자

미주 한국불교 새단장 '한창'

워싱턴 보림사 천불봉안
뉴욕 백림사에 사리탑
마이애미 보현사 개원

워싱턴 보림사, 마이애미 보현사, 뉴욕 백림사등 미국내 유수 한국사찰들이 잇따라 개원식과 점안식을 갖는등 새천년 포교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워싱턴 보림사(주지 경암)는 7일 오전 10시 천불봉안 점안식 및 보살수계산림법회를 개최한다.

주지 경암스님은 "미국수도 워싱턴에 천불의 부처님을 모시게 된 것은 다민족인 미국시민들이 자유평등 평화와 남북통일이 이룩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보림사는 96년부터 3년간에 걸쳐 법당을 완공하고 8월에는 관음지장보살상을 조성한바 있다. 앞으로 2001년까지 탑 석등 범종 불사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마이애미 보현사(주지 광민)도 7일 오전 9시 개원식 및 관음지장보살 봉안대법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8월 2층 단독건물을 구입하여 내부수리를 해온 보현사는 불교의 볼모지인 마이애미 포교에 적극나서게 된다.

이에앞서 뉴욕 백림사(주지 혜성)는 10월 24일 보궁사리탑 및 관음지장보살 점안식을 개최했다.

주지 혜성스님은 "이번 행사를 통해 미국을 불국토로 만드는 새 역사가 되도록 하겠다"며 "보궁사리탑을 통해 동양문화와 한민족 문화를 알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우바이 무용단 우수상
제8회 전국무용제

우바이무용단(단장 심산)이 10월 13일-22일 강원도 속초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회 전국무용제에서 우수상인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부산대표로 참석해 "카르마"라는 한국무용으로 우수상을 수상한 우바이무용단은 파격적인 춤사위와 삶을 카르마라는 불교적 논점에서 깊이 있게 성찰한 수작이라는 평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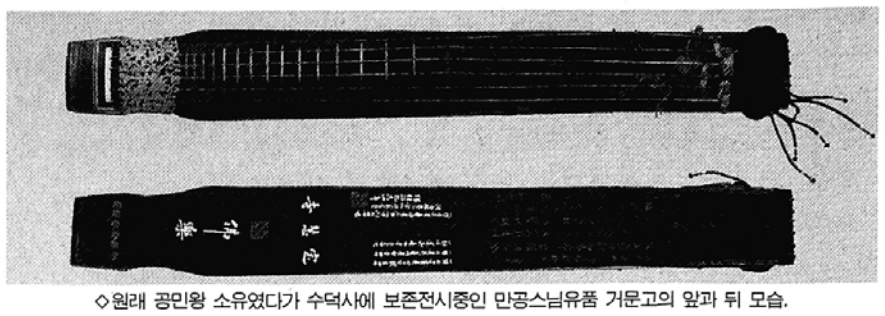
천미희 기자

경주 제7회 월명재 행사

경주 문화축제위원회(위원장 이임수 동국대교수)는 10월 23일 경주지역 30여개단체 5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경주 첨성대앞 광장에서 제 7회 월명재를 개최했다.

이임수위원장은 "월명스님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이며 인생의 멋을 아는 예술가였다"고 밝혔다.

이윤호 기자



◇원래 공민왕 소유였다가 수덕사에 보존전시중인 만공스님유품 거문고의 앞과 뒤 모습.

玄琴이 궁서 산사로 온 까닭은

20세기 불교 그 현장 그 인물 〈4〉

만공스님의 거문고

만공스님과 거문고, 선사와 풍류의 상징이자 백악지장 현금(玄琴). 아무리 짜맞추려해도 인연이 닿지 않을 것같은 만남이다. 덕숭산 수덕사에 있는, 고려 공민왕 소유로 700년 역사를 오롯이 간직한채 만공스님(1871~1946)에게 전해져, 선적인 깨달음까지 배었을 거문고가 바로 그 주인공. 이 거문고는 20세기 스테디셀러의 하나로 꼽히는 최인호씨 장편소설 〈길없는 길〉의 첫권 '거문고의 비밀'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경허스님 구도소설이랄 수 있는 이 작품은 39쇄 49만부를 찍을 정도로 인기를 누렸고, 따라서 만공스님의 거문고는 그만큼 세인의 관심을 끌었다.

언뜻 보기에도 명기로서의 기품을 느낄 수 있는 이 거문고는 은은한 붉은 기가 감돌며 옹골차 보이는 오동나무로 만들어졌다. 더구나 오늘날에는 찾아볼 수 없는 거북이 가죽으로 만들어진 노란색 대모 등이 결코 여느 거문고가 아니라는 평이다. 길이 164cm 폭 20cm의 크기로 지난 84년 문화재자료 192호로 지정돼, 현재 수덕사 성보박물관에 보존돼 있다.

이 보배로운 악기가 왕실에서 산사로 전해지게 된 경로는 아직 미스테리이다. 〈길없는 길〉에서는 실감날 정도로 자세히 전달경로를 소설화해 묘사하고 있지만, 분명하게 밝혀진 사실은 공민왕의 것이며, 왕실의 가보로 수많은 왕손들의 손때가 묻으면서 고종의 둘째 아들 의친왕 이강 공의 손에서 만공스님에게 신표로 건네졌다는 것. 전달 과정도 조선조말 상궁 나인들이 자주 만공스님을 친견하고 불공을 드렸던

공민왕→의친왕→만공스님
소설 '길 없는 길'로 알려져
98년부터 박물관 전시

것이 유일한 물증이며, 전달 시기도 만공스님이 수덕사에 머물면서 법을 편 1904년부터 열반에 든 1946년 사이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거문고의 툇판에는 거문고 주인이 공민왕임을 알려주는 찬문과 만공스님의 게송이 새겨져 말없이 증언하고 있다. 조선후기의 대 감식안이었던 육조 이조묵(1792~1840)이 1837년 날렵한 초서로 새긴 찬문은 이렇다.

"玄琴富如童蒲唯環 爲至寶者 恭愍王得神桐而製此耳 其後治隱珍藏而名賢高士無不爭秦聲韻之清爽特餘事 熙澤堂銘汾西等惜剛半磨滅足證世之質造上可幸也 丁酉竹硏日六橋撰仍題(현금이 넉넉하기로는 동포와 같지만 환패는 지보로 삼을 만하다. 공민왕이 신령스러운 오동을 얻어 이것을 만들었으니 그후 야은이 진장하고 명현고사들이 그 맑고 상쾌한 소리와 가락을 특어사로 삼아서 다투어 캐지 않음이 없었다. 택당의 명과 분서등과 더불어 진실로 아꼈으니 이제 거의 마멸되었으나 그 질은 세간에 증명하기 충분하여 참으로 다행스럽게 여기는 바이다. 정유년에 대를 쪼개 는날 육교는 이에 제를 찬한다.)

만공스님이 소유임을 드러내는 낙관과 함께 스님의 친필로 쓴 게송은 또 이렇다.

一彈云是甚 曲 是體玄曲也 一彈云是甚 曲 是句玄曲也 一彈云是甚 曲 是玄玄曲也 一彈云是甚 曲 是石女心中劫外曲也 咄(한 번 퉁기고 이르노니 이는 무슨 곡조인가. 이는 체의 현현한 곡이로다. 한번 퉁기고 이르노니 이는 무슨 곡조인가. 이는 일구의 현현한 곡이로다.

한 번 퉁기고 이르노니 이는 무슨 곡조인가. 이는 현현하고 현현한 곡이로다. 한 번 퉁기고 이르노니 이는 무슨 곡조인가. 이는 돌장승의 마음가운데 겁(劫) 밖의 곡이로다. 아하)

그렇다면 만공스님의 거문고 연주 솜씨는 과연 어땠을까. 말년까지 스님을 시봉했던 현 수덕사 방장 원담스님은 "스님이 거문고를 즐겨 탔거나 잘 다루시지는 않았다. 다만, 띵 띵 하고 뜯는 정도이셨다"고 증언한다.

만공스님의 거문고는 스님이 열반한후 정혜사 다락속에 깊숙히 보관되어 왔다. 그동안 단 한번도 공개되지 않았다가 지난 98년 11월 수덕사 성보박물관 개관과 함께 비로소 일반에 모습을 드러냈다.

위영란 기자 (yryui@buddhapia.com)

사하불교련 사무실 개소

사하불교연합회(회장 종원)가 10월 23일 구별 불교연합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별도 사무실을 개소했다.

사하불교연합회는 각 구내의 사암만으로 구성된 각구사암연합회와는 달리 사하구내의 사암은 물론 신행단체도 회원으로 포함시켜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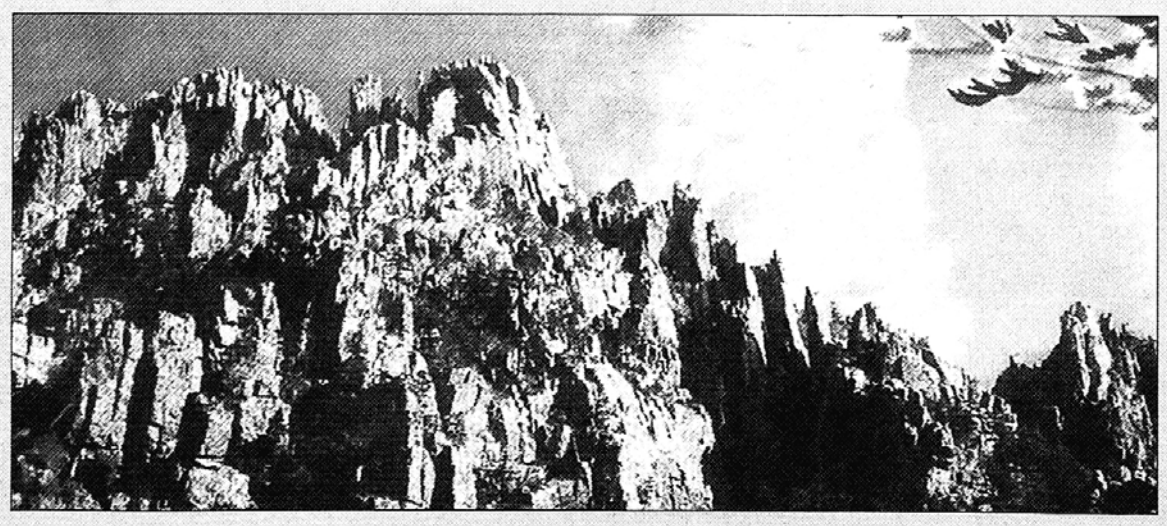
밝은길 아바타센터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합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 (02)396-2736 H.P. 016-228-2358

아바타 코스는 7-9일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사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교통편 : 서울역, 시청앞, 조계사앞, 3호선 경복궁역에서 135, 135-1, 2, 3번 버스로 약 20분 거리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에서
금강산 성지순례 관광을 보내드립니다



• 현상공덕향 특별할인가 5,000원 (개당)
불사판촉용 및 보시용으로 대량구매시 추가할인 하여드립니다.
※ 1~2개 주문시 등기료 구매자부담, 3개이상 구매시 판매자부담

• 판매원 :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
· Tel: 02)732-1522 · Fax:02)737-0697
· 인터넷:http://www.mahamall.co.kr, http://mall.buddhapia.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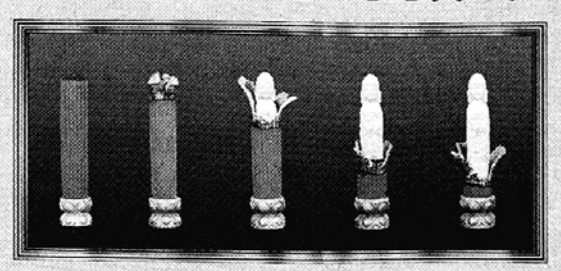
• 제조원 : 금 성 통 상 (전국대리점 모집)
· Tel: 051)324-3731 · Fax:051)324-3733

마하몰 경품대잔치

• 행사기간 : 1999. 9. 8 ~ 11. 22
• 응모기간 : 1999. 11. 30 까지
• 추첨 및 발표:
1999년 12월 3일자 , 현대불교신문게재
• 응모방법 :
행사중 「현상공덕향」을 구입하신후 포장지에 금박인쇄 되어있는 「현상공덕향」을 오려서 우편엽서에 붙여 보내주시면 추첨을 하여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 보내실 곳 :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 마하몰 앞

◆경품내용
· 대상 : 1명
(금강산 성지순례 관광 여행권 2매)
· 1등 : 2명 (고승기념메달 8개/세트)
· 2등 : 3명 (고산다기 및 다기함/세트)
· 3등 : 5명 (고산다기/세트)
· 4등 : 10명
(문구암스님 법음, 범패집 각 1질)
· 5등 : 50명 (참선명상방석 각1개)
· 마하몰상 : 200명(법성게걸망 각1개)

"수험생 입시성취 기도를 위한 현상공덕향"



기도와 함께 피워올린 향에서 부처님이 나투십니다

구입처 · 서울 :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 02)732-1522, 견지불교사 02)739-3032 · 대구 : 불광불교용품사 053)421-4768, 마하몰 대구지사 053)768-8008, 대구불교방송 사업팀 053)427-1011 · 부산 : 삼정원 051)646-6255, 마하몰 부산지사 051)634-5114, 관음불교 051)808-5655, 대성불교사 051)332-0289, 부다가야 051)865-4383, 부산불교전시관 051)632-7303 · 광주 : 마하몰 광주지사 062)375-9966 · 대전 : 대전불교사 042)257-0318 · 전주 : 전주불교전시관 0652)282-7054 · 창원 : 경남불교전시관 0551)295-8911 · 진주 : 마하몰 진주지사 0591)747-0106 · 밀양 : 부용불교사 0527)352-3756 · 속초 : 광영불교사 0392)631-7907 ※ 전국 유명불교 용품점 및 사찰내 용품점

금산사 미륵십선운동 펼친다

'미륵십선회' 전국조직 내년초파일 발대…"국민 도덕성 회복하자"

개산 1400주년 행사

'도둑질하지 말자' '거짓말하지 말자' '탐내지 말자' 등 생활속에서 불자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10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자는 미륵십선운동이 전국적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미륵십선운동을 주도적으로 펼쳐갈 '미륵십선회(지도법사 관행·금산사 교무국장)'가 새천년을 앞둔 10월 28일 개산 1400주년 기념법회를 열고 있는 미륵도량 김제 금산사(주지 도영)에서 준비 모임을 가졌다.

'미륵십선(十善)'이란 〈미륵상생경〉에 나오는 것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열가지 착한 행위이다. 부처님께서는 도솔천에 태어나고자 하거나 미륵의 제자가 되려면 오계와 팔재계, 구족계를 지키며 열가지 선을 실천해야 된다며 생활에서 실천해야 할 열가지 선업을 강조했다.

미륵십선회는 물질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고도의 정보화로 급변하는 21세기에 인간의 소외감과 갈등, 반목은 한층 심해지고 갈수록 물질만능주의가 되어가는 이 사회의 혼란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길은 '미륵십선'의 확산뿐이라는 확신아래 전국민적 사회도덕성 회복운동에 나선 것이다.

미륵십선

1. 살생하지 말것
2. 도둑질하지 말것
3. 간음하지 말것
4. 거짓말하지 말것
5. 이간하지 말것
6. 욕설하지 말것
7. 실없는 말하지 말것
8. 욕심내지 말것
9. 성내지 말것
10. 그릇된 견해에 빠지지 말것



◇미륵성지 금산사는 10월28일 5천여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개산 1400주년 기념법회를 열고 미륵십선회를 조직키로 했다.

미륵십선회는 금산사에 본부를 두고 내년 5월까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후 초파일경 금산사 미륵전에서 성대한 발대식을 갖기로 했다. 지역조직 결성에는 지난 여름 금산사 미륵십선수련회에 참가했던 불자 2백여명이 주축이 된다.

특히 미륵본찰인 금산사가 중심이 되어 말법시대 혹세무민 세력들이 날로 번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올바른 미륵사상의 정립과 홍포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금산사 주지 도영스님은 발대식에서 "올바른 미륵신앙의 공표를 통해 세간에 잘못 유포되고 있는 미륵신앙의 본질을 바로세우겠다"며 "미륵십선운동을 넘리 펴 가치관의 혼란을 바로잡고, 혼탁한 문화를 정화하여 희망찬 민족의 미래가 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산사는 28일 개산 1400주년 기념행사로 역대조사 헌공다례와 임진·정유재란시 산화한 승병과 의병을 위한 수륙재, 원성스님 시화전, 법우스님 축하공연, 전통사찰음식 시연회, 산사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오후 6시부터는 10만등불사 회향식 및 관등으로 도량전체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탄성(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이두(청주 관음사 회주) 월주(금산사 회주) 혜광(법주사 주지) 월서(조계종 호계원장) 정련(조계종 포교원장) 보선(대흥사 주지) 종걸(화엄사 주지) 성덕(동화사 주지)스님과 지하, 정념, 지광, 원행, 지명(조계종 중앙종회의원)스님 백창기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사부대중 5천여명이 참석했다.

김제=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대둔사에 초의선사 동상



대둔사(주지 보선)와 초의문화제집행위원회는 10월 29일 해남 대둔사내 초의문화관 앞 다전에서 한국차문화의 중흥조 초의선사(1786~1866)의 동상 제막식을 가졌다. 조선대학교 미술대 김인경 교수가 제작한 이 동상은 차(茶)를 앞에 둔 초의스님이 다선삼매에 든 모습을 표현한 좌상(坐像)으로 앉은 높이가 1m80cm (좌대포함 2m60cm)이다. 초의선사는 16세때 남평 운흥사에서 출가한 후 전국의 선지식들을 찾아다니며 선과 교에 다통달했으며 '다선일미(茶禪一味)'사상을 통해 끊어져 가던 한국전통 차문화를 부흥시키고 차 마시는 행위를 참선의 경지까지 끌어올린 조선후기 대선사이다.

이번에 건립된 초의선사 동상은 지난 95년 제4회 초의문화상을 수상하고 일지암 복원에도 앞장선 한국제다 서양원 사장의 차정신 선양 원력으로 이루어졌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호국사 촛불명상법회 육사생도 2백명 '정좌'

10월 27일 오후 7시 육군사관학교 호국사 법당에는 2백여명의 사관생도들이 정좌한채 촬로의 선율에 마음을 맡기고, 밖으로만 향했던 자신의 마음을 안으로 돌리는 명상체험을 했다. '99화랑제 축제의 종교행사 일환으로 열린 이색적인 촛불명상법회에서 마음닦는 수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법회는 육군 28사단 군법당을 지원하는 포교사단이 특별지원해 김정숙(한마음선원 신도)씨와 동생 김필숙씨(첼리스트)가 관세음의 노래, 성불사의 밤 등 찬불가와 클래식곡을 연주하고 시낭송을 하는 등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육사법당 장성화 지도법사는 "생도들의 법회참여를 높이고,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포교프로그램을 고민하던 중 자신을 돌아볼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주기 위해 촛불명상의 법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법회에 참석한 주홍철생도(2학년)는 "불교에 대해 색다른 느낌을 갖게 한 법회였다"면서 "법문위주의 딱딱한 법회가 아닌 다양한 방식의 법회들이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

"군검찰 부대출입일지 조작의혹"

김태복소장 공판서 변호인단 제기

군검찰이 김태복소장 법당보시금 뇌물적용 재판과 관련 증거를 고의로 조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27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김태복소장 사건' 2심 4차 공판에서 김소장의 변호인단은 "김문규(석탑 보시자)씨가 수십여 차례 부대를 방문해 뇌물을 주었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의도에서 군검찰이 101여단 부대 출입일지의 방문자 이름과 목적 등을 고의로 고친 흔적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김문규 한정호씨 등 민간인 증인들을 군검찰에서 회유·협박했으며, 증인들도 이런 사실을 법정에서 밝혔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군검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 1심의 양형이 부족하다며 항소한 부분을 취하한 것과 관련, "대법원 항고포기 또는 또는 뇌물적용 등의 증거불충분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날 현역 육군 대령인 황 모 대령이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인사·진급청탁의 대가로 3천3백만원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시주자 김원홍씨가 반대 증거를 분명히 제시했다. 건축허가의 대가로 현금 2천만원을 받았다는 것 또한 시주자 김문규씨가 사용한 돈으로 수표확인 결과 드러나 검찰의 공소유지가 어려울 것이란 게 관계자들의 평이다. 김재경 기자

유마선원 토요수련회

불교수행의 정수를 알고 싶으십니까?

→ 여기 **금강경 공관법**이 있습니다.

· 수행지도 : 유마선원장 적연 이제열 법사 · 일시 : 매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 교 통 편 : 유마선원 전철 - 3호선 화정역 1번출구 덕양우체국 앞
버스 - 신촌 921(좌), 영등포82(좌), 서울역 907(좌)
· 문 의 : 0344-967-9122

■ 저축의날 국민포장 받은 정호진보살

아껴쓰며 30년 보시행 '귀감'



조계사 신도인 정호진 보살(67)은 10월 2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36회 저축의 날에 저축유공자로 선정돼 국민포장을 받았다. 주위 사람들은 정보살이 30년간 불우이웃돕기를 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정도로 정보살은 숨어서 보시행을 실천해 왔기 때문이다.

"서른 다섯에 남편과 사별하고는 동네 골목가게에서부터 쌀장사, 연탄장사 등으로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돈이 조금 모아지자 의류장사에 뛰어들었고, 강남 일대에 땅을 조금 살 수 있을 만큼의 여유를 가지게 됐지요. 일년 중 추석 이틀만 쉬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억척스레 일했어요."

정보살은 어렵게 모은 돈이었지만 불우한 이웃을 위해 쓰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30대 중반을 넘어서부터 전국 각지의 암자를 순례했다. 신심 쌓는 일도 중요했지만 살림이 궁핍한 암자를 찾아 보시를 하기 위한 것. 또 정릉 경국사에 다니던 중 알게 된 두 스님의 6년간 유학 학비를 지원했고 소쩍새마을과 인연을 맺어 12년 동안 부처님 오신날과 추석 때는 보시금과 후원물품을 준비해 단 한번도 빠지지 않고 방문해왔다. 8년째 광동종고에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으며 5년간 전국 각지의 군법당을 위문, 보시해왔다. 96년에는 TV에서 우연히 본 전북 여수의 소년소녀가장 두 형제가 안스러워 지금까지 학비를 보내주고 있다. 정보살의 신심은 대단해 길 가다가 우연히 스님이라도 마주치면 "책이라도 사보시라"며 가진 돈을 모두 보시하는 일이 다반사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른 것뿐입니다. 보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제 일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못먹고 못입는 아이들을 보면 눈물이 나서 지나칠 수가 없어요…." 한명우 기자

뉴스 & 뉴스

태국서 청년지도자 세미나

세계불교도우의청년회(WFBY, 한국본부 회장 이치란)는 1~7일 태국 방콕에서 제1차 불교청년지도자세미나를 개최한다. 21세기를 맞으며 불교청년들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로서의 품성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1일 참가자 등록과 환영만찬, 2일 아유타야 지역 사원 방문 및 태국불교청년회 본부 방문, 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 개막돼 5일 회향식까지 사흘동안 집중된다. 이어 각국 대표들은 6일 WFB와 WFBY 본부를 방문하고 7일 국제담마카야홀에서 진행되는 카티나(태국 전통불교의식) 의식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종립학교에 장학금 전달

조계종 서울·경기지역 포교사단(상임운영위원장 김기병)은 27일 포교원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 4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1일 대전에서 전국운영위원회(팀장회의) 회의를 열고 포교사단 정관 제정안과 중앙운영위원회 및 임원 구성, 포교사단 출범식 준비위 구성 등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포교사단은 또 오는 15일부터 11개 종립 중학교의 추천(마감 6일)을 받은 불우 청소년 11명에게 4/4분기 장학금(생활보조금) 각 15만원씩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김재경 기자

수계 및 순국선열 추모법회

하동칠불계맥을 이은 제9대 묵담율사에게 계를 전수받은 법홍스님(원효종 종정)이 8~10일 부산 금수사에서 제1회 수계(설계) 및 순국선열 55위 추모대법회를 봉행한다. 갈마아사리에 석주스님(칠보사 조실) 증계아사리에 덕암스님(태고종 종정) 전계아사리에 법홍스님(원효종 종정) 교수아사리에 도월스님(용화사 주지)이 전계사로 봉행되는 이번 의식의 설계내용은 비구·비구니계, 사미·사미니계, 식차마니계, 보살계 등이다. (051)467-3316 이경숙 기자

도림사 나한상 절도범 체포

전남 곡성경찰서는 22일 사찰에서 나한상을 훔친 특수절도 혐의로 장모(60·광주 북구 문흥동)와 이모(41·광주 북구 문흥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21일 낮 곡성 도림사 응진당에 있던 목조 나한상(비지정문화재) 1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오종욱 기자

부산 보현의 집 첫 수련회

노숙자쉼터인 부산 보현의 집은 개소 이후 처음으로 10월 23-24일 수련회를 개최했다. 경주시 산내의 국민청소년수련마을에서 가진 수련회에는 보현의 집에 머물고 있는 36명이 참석, 축구경기, 요가 및 단전호흡, 명상수련 등의 프로그램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천미희 기자

제28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

"새 천년 불교는 어린이와 함께!"

모시는 글

반갑습니다. 방방곡곡에서 여래의 사자되어 전법에 신명을 다해 정진하고 있는 어린이 지도자 여러분께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새 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급변하는 사회환경으로부터 교육 및 불교의 전망과 대응은 우리의 화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회는 어린이 포교야말로 불교계의 대안이라는 인식 하에 「새 천년 불교는 어린이와 함께」라는 주제로 제 28차 전국어린이 지도자연수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연수회는 21세기 사회 변화에 따른 교육과 불교의 역할을 근본 과제로 하여 어린이법회 운영의 실제적인 도움이 될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무루 동참하시어 혜안을 넓히시고, 어린이 포교를 위한 대화와 토론 등으로 이번 연수회가 어린이포 교 발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원 드립니다.

불기 2543년 10월 맑은 날

주최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연수회 안내

■ 언 제 : 불기 2543년(1999년)
11월 27일(토) 오후 6시~28일(일) 오후 1시
■ 어 디 서 : 서울 올림픽파크텔(올림픽공원 내)
■ 참가대상 : 어린이지도자 및 포교에 관심있는 분 모두
■ 등 참 금 : 5만 5천원
(1박 3식, 기념품, 연수회 자료집, 만들기 재료 일체 준비 - 미리 접수시 : 5만 2천원/ 군종병, 도서벽지지도자 3만원)
■ 신청방법 : 실명인 관계로 송금 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접수도 가능(당일 송금 영수증 지참)
■ 보내실 곳 : 우체국 601310-0037877-11 / 예금주 : 대불어
■ 신청기간 : 10월 25일(월)~11월 20일(토)
■ 준 비 물 : 세면도구, 필기구, 분반수업시-강의 6(가위, 풀, 칼, 본드)
■ 접수·문의 : 본회 사무국 ☎ (051)808-4569,4570 (FAX 808-4571)
PC천리안 : GO BOSAL(운영자 수신 편지 이용)
E-Mail : Youngoc@thrunet.com/ZSBOSAL1@chollian.net

주요강의내용

주 요 강 의 내 용		강 사	비 고
어린이포교에 대한 종단의 증책과 방향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경전 상에 나타난 어린이 교화		정 병 조	동국대 교수
이야기가 있는 노래마당(국악강의)		김 정 민	방송연예인, 서울국악예고 강사
사찰 속 더불어 삶을 위한 어린이법회 운영 (어린이법회의 새로운 방향 및 프로그램 제안)		조 경 욱	조계사어린이회 지도교사
우리들이 부르는 찬불가		정 유 탁	풍경소리
분반수업	우리들이 만드는 세상 (미술활동 / 전통놀이감 만들기)	노 수 산	아동미술전문가, 나무미술학원 원장
	신나는 가락으로 입모아 마음모아 (노래를 이용한 레크리에이션)	최 홍	한국방송연기전문예술원 이벤트 실장
사찰예절과 예법		덕진스님	회장스님
21세기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청소년 교육과 불교		김 종 서	전 덕성여대 총장 전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주관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총재/정관 부총재/혜총, 철오 회장/덕진 상임부회장/정여
부회장/운성, 원혜, 영조, 해관, 무등, 심산, 성형, 인성 감사/지광, 박창식

지역문의처 ■서울·경기 (02)433-1506/유지선 사무국장 ■부산 (051)853-5486/이선경 총무차장 ■대구·경북 016-505-3143/김형중 사무국장 ■광주 011-719-5550/정수보 사무국장 ■대전 042)433-1141/류재희 사무국장 ■경남 (0551)242-0108/천명숙 사무국장 ■제주 016-691-4728/김봉현 사무국장

이 달 의 책



마음 바꾸기

계덕 가방 다르체아 지음
박영철 옮김
A5 변형
값 3,500원
불일출판사

영혼의 스승인 '아띠샤'의 가르침을 쉬운 말로 풀이해 놓은 책이다. 그 가르침 한 구절, "무엇이든 하기 시작했으면 바로 그것을 먼저 이루어라. 모든 일을 그렇게 해내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리라.

크고 깊은 가르침일수록 지극히 평범해 보인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는 책이다. 그런데 문제는, '평범의 진리'를 실천에 옮기기가 아주 힘들다는 데 있다. 그래서 '마음 바꾸기'가 '마음 닦기'의 핵심에 놓이게 된다.



오색 시리즈 3(파란색)

수행의 강을 건너는 이야기

구미래 엮음
B6변형 182쪽
값 4,500원
한세

인간의 삶을 '행복·사랑·수행·지혜·죽음'의 다섯 영역으로 나누어 조명한 「오색 시리즈」의 세번째 책.

불경(佛經)과 고서(古書) 속에서 찾아낸 57가지 이야기를 통해 '마음공부' 길을 열어 보인다. 관습 또는 타성의 감옷으로 갑싸인 일상을 한순간에 박살내 버리는 파격이 있는가 하면, 오랜 여운을 남기는 잔잔한 이야기들도 있다.



원효 설화의 미학

오대혁 지음
A5신 양장 308쪽
값 13,000원
불교존주사

한국 정신 문화의 고갈되지 않을 광맥인 원효의 세계를 설화를 통해 파 들어간 책이다. 이 점만 본다면 이미 나와 있는 원효 관련 저술들과 크게 달라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 책은 접근 방식에 있어 아주 새롭다. 이른바 설화 전승의 한 축인 '수용자'들의 세계를 살피는 데 노력의 대부분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원효라는 '텍스트'보다는 그것을 낳은 '컨텍스트'—1300년이라는 시간과 한국이라는 공간—에 초점을 맞춘 책이다.



고려말 나옹의 선사상 연구

교육론 지음
A5신 양장 288쪽
값 12,000원
민족사

한국 불교사에 있어 선사상의 완숙기이자 쇠퇴의 출발점이기도 했던 고려말의 고승인 나옹 혜근(懶翁 惠勤1320~1376)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그를 둘러싼 다양한 법통설을 재검토하고 있다. 특히 조선시대에 들어서 석가모니불의 후신 또는 조사로서 숭앙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식의 증명 법사로 추앙된 점은, 선(禪)을 실천의 도로 파악하고 대중 구제에 적극 활용한 결과로, 오늘날 한국 불교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법륜 스님의

통일로 가는 길

법륜 지음
A5 174쪽
값 7,000원
정토출판

현실의 한복판에서 불고적 이상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 온 법륜 스님이 제시하는 통일로 가는 길. 모든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 가장 원초적인 인간의 심성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일관된 주장이다. 그 구체적 형태는 민족 살리기.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실상을 가감없이 살피면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길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있다.



금강경 강의

남회근 지음
신원봉 옮김
A5신 양장 482쪽
값 20,000원
문예출판사

대만 총통의 국사를 역임한 불교계의 원로이자 대석학인 남회근 선생이 1980년에 대만에서 강의한 것을 정리한 책이다. 금강경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말이 모두 군소리가 될 것이므로, 출판에 대해 아주 부정적이었던 남회근 선생의 말을 그대로 옮기는 것으로 책 소개를 대신한다.

"3장 12부를 부처께서 모두 다 말씀하셨는데 또 뭘 말한단 말인가? 모두 쓸데없는 짓이라네! 이미 말한 것은 다 지나간 것이야. 출판은 무슨 출판인가!"



그리운 곳에 옛집이 있다

이청권 지음
A5 246쪽
값 8,000원
태를누리

고향이 사라져 가고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바람이 비껴가지 않은 곳이 없는 까닭이다. 그 결과 우리의 고향은, 적막강산 아니면 도시의 한 귀퉁이를 옮겨다 놓은 것처럼 되버렸다.

그러나 여기, 비록 책 속에서지만, 우리네 지난날이 고스란히 살아있다. 시인 이청권 씨가 아직도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옛집, 서원, 절집에서 옛 사람의 지혜와 우리네 고유의 마음결을 찾아낸 것이다.



약석 신화엄경론

이통현 지음
호산 옮김
B5 494쪽
값 20,000원
운주사

'화엄의 바다'라는 비유가 시사하듯, 화엄경의 세계는 넓고도 깊다. 어설프게 들어섰다가는 표류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이 약석 화엄경을 통하면 광대한 화엄의 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화엄경의 조직 체계를 네 권으로 집약하여 그 핵심을 밝혀 놓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을 통한 다음 대가들의 논소에 의거하여 화엄의 세계로 들어간다면, 최소한 허우적거리다 빠져나오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용수의 공사상 연구

프레데릭 J. 스트렝 지음
남수영 옮김
A5신 405쪽
값 9,000원
시공사

종교적 개달음과 개념적 표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저술된 책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저은이는, 2세기에 생존했던 용수(龍樹)의 공사상 즉 '모든 존재는 공하다'는 표현의 의미에 초점을 맞춘다. 나아가 그는 '공성'이라는 표현을, 인간의 무지와 집착을 털어내기 위한 '전환적인 자각의 수단'으로 파악하며, 용수의 궁극적인 의도는 사색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론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스테디셀러 찾아가기

벽암록



안동림 역주
B6 양장 510쪽 / 값18,000원

선(禪)은 언어와 문자를 철저히 부정한다. 그러나 짓궂게도, 선의 언어는 치밀하고도 정교하다. 바늘 들어갈 만한 틈도 보이지 않는, 금강석같이 단단한 언어가 바로 선의 언어인 것이다. 보라, '불립문자(不立文字)'니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이니 하는 말에서 한 치의 핫점이라도 발견할 수 있는지. 그러나 사실은 이런 말들도 선의 태도나 방법론을 보여주는 것일 뿐, 궁극적 목표인 '깨달음' 그 자체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궁극의 경지는 그러한 말의 외피를 완전히 벗어던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의 세계에서는 '할'과 '방'이 난무한다. 제자가 스승의 멱살을 잡기도 하고 몽둥이질을 해 대기도 한다. 그러나 제자의 행동에서 궁극을 확인할 때, 스승은 덩실덩실 춤을 춘다. 그 순간은 마치 전광석화와 같아서 한 조각이라도 사변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온전히 말을 떠난 자리인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인간의 관계가 이러한 스승과 제자의 사이일 수는 없다. 선사의 '할'과 '나' 사이의 간극은 멀다 못해 차라리 아득하다. 그렇다고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다. '할'과 '방'보다는 조금 더 친절한 형태로 일러 준 한 마디가 있기 때문이다.

화두는 '똥친 막대기'요 '뜰 앞의 잣나무'다.
언어이되, 철저하게 딴지를 거는 언어이다. 관습을 꼬집고 타성을 비트는
괴팍스럽기 짝이없는 언어이다. 생각의 그물로는 도저히 포착할 수 없는 언어이다.

이리하여 화두다. '똥친 막대기'요 '뜰 앞의 잣나무'다. 언어이되, 철저하게 딴지를 거는 언어이다. 관습을 꼬집고 타성을 비트는 괴팍스럽기 짝이없는 언어이다. 생각의 그물로는 도저히 포착할 수 없는 언어이다. 『벽암록』은 바로 이러한 언어의 진수를 보여 준다. 선의 그 깊은 세계를 최고 순도의 시적 언어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벽암록은 선종의 '종문제일서(宗門第一書)'라 불린다.

『벽암록』은 설두(雪竇) 선사가 뽑은 본칙(本則) 및 송(頌)에 원오(圓悟) 선사가 붙인 수시(垂示), 착어(著語), 평창(評唱)의 다섯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100가지의 본칙은 화두에 해당하며, 송은 이 화두에 대해 설두 선사가 읊은 선시이다. 본칙 앞에는 설두의 제자 원오가 후학들을 위해 붙인 수시가 있는데 이는 본칙의 요점을 해설한 것이다. 그 외에도 원오는 주석에 해당하는 착어와 평창을 달았는데, 본칙과 송에 대한 총평 성격의 문장이 평창이다. 그러나 현암사 판 번역본에서는 착어와 평창을 생략하고 해제나 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덧붙임: 몇 권의 번역본 중에서 현암사 판을 소개하는 까닭은, 우리말 번역문이 단정할 뿐 아니라 책의 모양새도 가장 정갈하고 정성스럽기 때문이다. 특히 다양한 학설과 권위있는 고증을 친절한 주로 소개하고 있는 번역자의 노력은 단연 돋보인다.

윤제학 / 도서출판 여시아문 편집장 jhyun@buddhapia.com

불교 출판계 소식

독자를 배려하는 불서 출판이 아쉽다

'초등학생도 읽을 수 있는 책',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경전', '초심자들을 위한 교리서…,' 신간서적이 출간될 때마다 따라붙는 거창한 소개말이다. 과연 신간이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졌는지 자못 궁금하다. 그러나 책장을 넘기면서 의문은 쉽게 풀린다. 이러한 소개말은 저자나 출판사의 독단적 입장이란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흔히 독자들은 불서를 어렵다고 한다. 그것은 우선 불교에 대한 지식 부족과 한문 경전으로 된 것만 생각하는 선입견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불서 신간이 나올 때마다 출판사들은 쉽게 풀어 쓴 책, 일반인도 읽을 수 있는 책 등의 미사여구를 영업 전략의 한 방편으로 사용한다.

불서를 출간하는 출판사들은 이런 애매모호한 미사여구를 사용하기 앞서 독자들의 입장을 보다 더 많이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자나 출판사의 입장에서는 쉬운 책일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독자와 직결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진정한 영업전략은 이러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알찬 책의 속살이다. 속이 알차면 독자들은 누구나 쉽게 다가가기 마련이다.

물론 출판사들로 이런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출판사는 기본적으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부처님의 법(지식)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 또한 맡고 있다.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곧 불교 지식 산업의 황폐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잡한 죽서



불교와 평화

법륜 지음
B6 136쪽
값 5,000원
정토출판 펴냄

인간성 상실, 공동체 붕괴, 자연환경 파괴 등 지구촌 위기의 극복을 불교의 근본 가르침에서 해답을 찾고 있는 책이 있다.

다툼이 없고,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세상/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다./ 아니 우리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고 싶다.

미혹한 중생들에 의해 끊임없이 반복되는 전쟁과 온갖 다툼을 그치게 하는 것은 불교의 근본 정신인 평화사상이라 말하고 있는 이 책은 그 울림이 잔잔하면서도 힘이 있다.

「(사)좋은벗들」의 법륜 스님이 강의했던 내용들로 모두 4편의 글을 싣고 있다.

다툼이 없고,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세상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다.
아니 우리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고 싶다.

첫째 장 '평화로운 세상 만들기의 과제 — 갈등을 넘어서'에서는 인종간, 민족간, 계급간, 이성간, 종교간 갈등의 문제에 대해 살피면서 어떻게 화합할 수 있느냐에 관심을 기울인다. 둘째 장 '세계평화와 민족통일'에서는 우리의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살피고, 셋째 장인 '종교의 사회적 기능과 불교적 대안'에서는 불자들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능과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마지막 장 '원효의 화쟁 — 불교의 평화'에서는 불교의 근본 정신에 입각하여, 모든 다툼과 의견 불일치가 결국 공허한 것이라는 사실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 주고 사상으로 정립한 원효 스님을 만날 수 있다.



고은 지음/ A5신 406쪽/
값 12,000원/ 장재상

이 책을 말한다

『 절을 찾아서 』

산사에 어린 눈물과 웃음, 구도의 역사를 담고 있는 문화 기행집.

김종근 기자

산에서 일기 시작한 불꽃이 사람들의 가슴을 활활 태우기 시작했다. 특히 고즈넉한 산사의 단풍은 지고한 법향과 어우러져 신심을 한층 북돋워 준다. 으레 불자들은 가을이면 붉게 물든 산사를 떠올리고 그곳을 향해 발길을 재촉한다.

시인 고은. 그도 이러한 마음엔 어쩔 수 없었던 모양이다. 오히려 시적 감흥이 더 되살아 났을지도 모른다. 전국에 걸쳐 명산과 명찰 61곳을 유람하며, 1천5백 년 이상 우리 민족 역사의 산 증인이 되어온 산사에 어린 눈물과 웃음, 구도의 역사를 시인 특유의 서정적인 문체와 탐미적 감성으로 그려냈다. 고은 문화기행집 『절을 찾아서』가 바로 그 책이다.

이 책은 읽는 이로 하여 나그네가 되어 대자연과 유구한 역사 속에 순정한 불심으로 구현된 가람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반추해 보고 내일의 이정표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준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 문화의 모태인 불교문화의 시원과 부흥, 스러짐과 발전의 모든 것을 한눈에 꿰뚫어보며 1천5백 년 유구한 불교사를 조망하고 있다.

구도하는 방랑자의 심정으로 산사를 유람하는 시인은 동해 낙산사에서부터 긴 여정을 시작했다. 의상대 일출을 감상하고 난 후 동해의 큰 파도 앞에서 '조신의 설화'를 떠올린다. 외로운 여행자로서 인생무상의 비감을 느낀 시인은 설악산 신흥사, 오대산 월정사를 지나 추풍령을 넘어 신라 불교의 장엄한 도량들이 자리하고 있는 경상도 지역으로 구름처럼 내려간다. 1천5백 년 전 신라 석공의 망치소리와 새벽 정적을 깨우는 쇠북소리 속에 동해를 지키는 변함없는 석굴암의 존재를 확인하고 애국불심의 현장 해인사를 거쳐 다시 서울·경기 지역으로 올라온다. 도심의 불심을 경계한 후 전등사, 신륵사를 거쳐 충청도로 내려간다.

비오는 법주사의 웅장한 가람 속에 절과 함께 흠뻑 젖은 시인의 여수(旅愁)는 비운의 백제 역사를 간직한 고란사, 계룡산 줄기에 웅비해 있는 동학사, 갑사를 지나 민족 고난의 산 증인 지리산 중턱에 있는 화엄사, 내소사, 선암사 등 전라도 지역으로 넘어가며 절정을 이룬다. 마지막으로 바다 멀리 제주도 한라산에 올라 귀양의 땅에 일으켜 세운 보살의 절, 관음사를 둘러봄으로써 장대한 기행을 마감한다.

산 15곳 사찰 46곳을 두루 돌아보며 아름다운 우리의 산천과 장엄한 불교 유적을 한눈에 바라본 이 책은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의 사찰 창건에 관한 역사, 사도세자에 대한 효심으로 창건한 용주사, 3년여 동안 미곡사에 사미로 입산한 백범 김구 선생의 자취에 이르기까지 1천여 년의 전설과 역사가 시인의 서정적 손길을 통해 융해된다. 깊어가는 가을, 호젓한 산사를 찾아 지친 심신을 달래거나 우리 문화유산의 흔적을 되밟아 내일의 지혜를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친절한 안내서로 손색이 없다.

고은 시인은 이 책에서 산천을 떠돌며 스스로에게 던진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의 답을 구하고자 한다. 때로는 경건하고 신실한 불자의 태도로, 때로는 한없이 속된 속인의 모습으로 산사를 떠돌기도 한다.

그는 이렇게 소회한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새삼 신비스러워지면서, 누구나 그런 신비로 이루어진 이 세상의 삶에 감사하고 싶고 그런 감사로 가득 찬 몸을 그 신비 안에 내던지고 싶어진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새삼 신비스러워지면서, 누구나 그런 신비로 이루어진 이 세상의 삶에 감사하고 싶고 그런 감사로 가득 찬 몸을 그 신비 안에 내던지고 싶어진다."

여시아문 추천 법공양 도서

1. 네 발밑부터 살피라 — 정념 엮음/ A5신 292쪽/ 장승/ 값 7,500원
2. 불교를 알면 평생이 즐겁다 — 윤청광 지음/ A5신 248쪽/ 지식산업사/ 값 8,000원
3. 영원한 자유의 길 — 성철 큰스님 지음/ B6 184쪽/ 장경각/ 값 3,500원
4. 화엄의 길, 생명의 길 — 도법 스님 지음/ A5신 328쪽/ 선우도량/ 값 8,000원
5.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 일연학연구원 엮음/ A5신 340쪽/ 불교시대사/ 값 10,000원
6. 수행으로 가는 길 — 이재열 지음/ A5신 258쪽 / 대원정사 / 값 6,000원
7. 기도 — 일타 스님 지음/ A5신 238쪽/ 효림/ 값 5,000원
8. 바람의 길 — 석지현 지음/ A5신 266쪽/ 민족사/ 값 5,500원
9. 나도 너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 — 홍신자 지음/ A5신 288쪽/ 안그라픽스/ 값 7,500원
10. 날마다 좋은 날 — 지묵 스님 지음/ A5신 298쪽 /우리출판사 / 값 6,000원

여시아문 통신

현대불교신문의 불서 정보란 '여시아문'에 신간 소개를 원하는 출판사에서는 보도 자료와 함께 신간을 보내주십시오. 좋은 책이 독자 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여시아문 편집부 —

접수안내 전화나 팩스로 주문하시면 전국 어느 곳이나 우송해 드립니다.
* 5,000원 이상은 우송료 무료

여시아문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732-1521
팩스: (02)737-0696

